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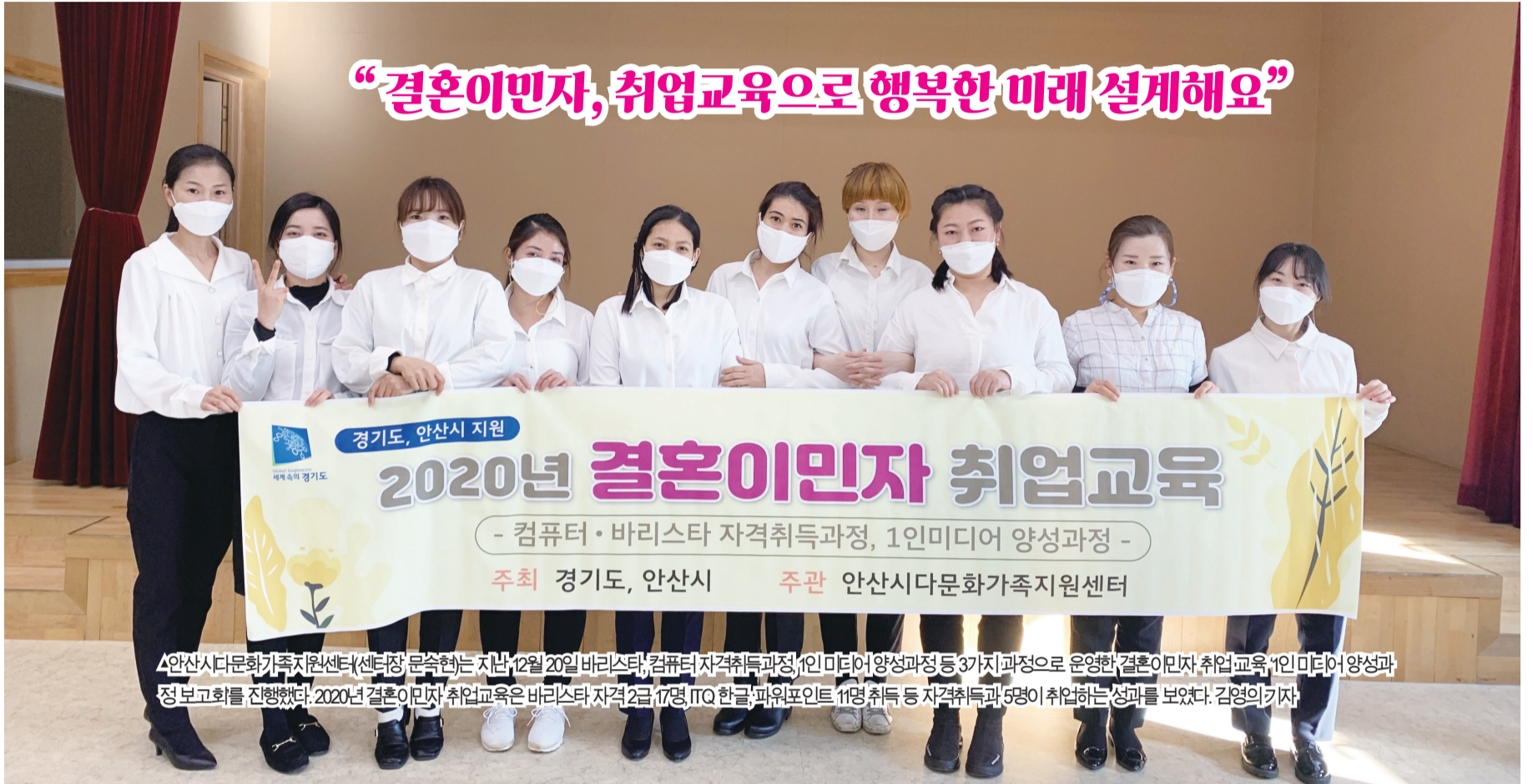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 031-257-1841

제189호 2021년 01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93-0445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행복한 미래 설계해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12월 20일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1인미디어 양성과정 등 3가지 과정으로 운영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1인미디어 양성과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바리스타 자격 2급 17명, ITQ 한글·파워포인트 11명 취득 등 자격취득과 5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김영익 기자

외국인주민 포함 경기도민에 2월 초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의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이 오는 2월 11일 설연휴 전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월 11일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히며 화답했다.

방법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뿐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11일 오후 2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2차 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속

지급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 때와 같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1차 때는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만명에게만 지급했지만, 2차 때는 도내 모든 등록외국인 48만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외국인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와 경기도에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2차 재난기본소득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국어 18면, 베트남어 29면, 러시아어 25면, 업데이트 번역기사는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참고)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6, 11, 17, 18, 34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13, 29, 39, 48 일본어(Japanese) 日本語 21, 29, 31, 39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4, 25, 31, 42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1, 17, 22, 23, 25, 35, 45 네팔어(Nepali) नेपाली 27 키르기스스탄 19 영어(English) 20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16, 20, 27, 28, 30, 32, 33, 34, 37, 44 금융 Finance 6, 14, 43 도서관 Library 3, 4 비자 Visa 17 육아 Infant Care 12 행사 Event 30, 48 한국어 Korean 43 복지 Welfare 17, 22, 29, 35, 42, 48 교육 Education 9 취업 Job 8, 15, 21 기고 Column 13 문화 Culture 23, 35, 45, 47 주거 Residence 46 인권 Human Rights 12, 19 기획 24 경기도 2차재난기본소득 1, 18, 21, 25, 29 정부 3차재난지원금 5, 11, 43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 스스로 주도해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참여해 한반도 평화 발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에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기도 땅에 공식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

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해 남북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 가자"고 덧붙였다.

북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합의의 성실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구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과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해 11월 평화부지사 집무실 통행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기초발제에서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필요가 없다"며 "유엔사 깃발 사용 승인 철회 등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현지 온라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사가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미군 수준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배달특급' 출시 한 달...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만족한다!"

한 달간 가입회원 11만명, 총 거래액 30억원 돌파 올해 총 27곳 서비스 확대 예정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결제하면
10% 선할인에 5% 쿠폰까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꿈의 배달앱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듭니다!

공공, 상생의 출발
가맹점 수수료 1%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자영업에 경쟁 시 10% 선할인 + 5% 할인쿠폰

지난해 12월 출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회원 11만 명, 총 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 최저 수준인 1%대 수수료와 경기지역화폐 결제 연계, 다양한 할인 이벤트로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의 마음까지 잡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시 이래 한 달 만에 배달시장의 긍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상생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배

달특급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다.

"배달특급 덕분에 희망이 보입니다."

지난 12월 1일 배달특급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화성, 오산, 파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배달특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보쌈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진성 대표는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서만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는 1%인 10만 원에 불과하다.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12%)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약 120만 원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

황 대표는 "배달특급에 참여한 것이 늘 막막했던 지난해 가장 잘한 결정"이라며 "아직은 민간 배달앱 주문 비중이 더 크지만 출시 한 달인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다. 이대로 배달특급 매출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수익은 계속 늘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

냈다. 파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길상섭 씨도 지난 한 달간 '배달특급'으로만 약 8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수수료는 8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아낀 수수료는 그대로 추가 수익이 됐다.

길 씨는 "우리 가게가 잘되는 것을 보고 근처 중국집도 배달특급에 가입했다"며 "배달특급 덕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특급이 출시 한 달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면서, 현재 독과점이나 마찬가지로 배달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메기'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계 최저 수준인 배달특급의 1%대 수수료가 기존 업계의 비싼 수수료 관행을 깨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달특급'은 올해 말까지 24개 시·군을 추가해 총 27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설날 앞두고 다문화가정에 사랑의물품 전달

한국숲사랑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의류 전달

(사)한국숲사랑총연합회 경기지역은 고양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에 25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숲사랑 경기지역 김필레 총재, 임유진 센터장, 김석진 수석부총재, 조금복 사무총장, 김미경 여성회장, 문진주 고양시지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랑의 물품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숲사랑 경기지역 임원과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의류로 135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숲사랑 경기지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산림보호, 산불예방 캠페인, 농촌돕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양시지회는 도촌천 일대 무궁화 단지 조성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꽃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등 크게 기여했다.

김필레 경기지역 총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받을 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며 “새해는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 극복과 새 희망을 갖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고양시 여성회관, '만원의 행복' 특강 개설

고양시, 재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 응원 위해 마련



고양시(시장 이재준) 여성회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든 강좌의 수강료를 만원으로 책정한 '만원의 행복' 특강 패키지를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개설한다.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참여해 볼 만하다.

이번 '만원의 행복' 특강의 모든 강좌는 언택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집 인원은 총 150명이다. 우선,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와 어학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쉽게 따는 ITQ한글', '쉽게 따는 토익' 강좌가 4차에 걸쳐 열린다. 강의는 해당 분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가 맡고, 직장인들을 위해 모두

야간강좌로 개설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응용해 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강좌가 마련된다. ▲코로나19로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락반찬점 창업' ▲매장 쇼핑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의류리폼점 창업' ▲일괄형과 트렌드에 맞는 헤어 커트 기술을 배우보는 '헤어 커트점 창업' ▲천연화장품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공방 창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는 '천연화장품점 창업' 등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개설한 '만원의 행복' 특강은 시민들의 재취업·창업을 응원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수강료도 최대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만원의 행복' 특강의 신청 접수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여성회관 홈페이지(wcenter.goyang.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4623, 4626)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가 마감됐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한 강좌는 곧 다시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지는 기자

한빛도서관 초등학생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 운영



고양시(시장 이재준) 한빛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한 초등학생 대상의 온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를 1월 23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는 역사와 북아트를 접목해 어린이들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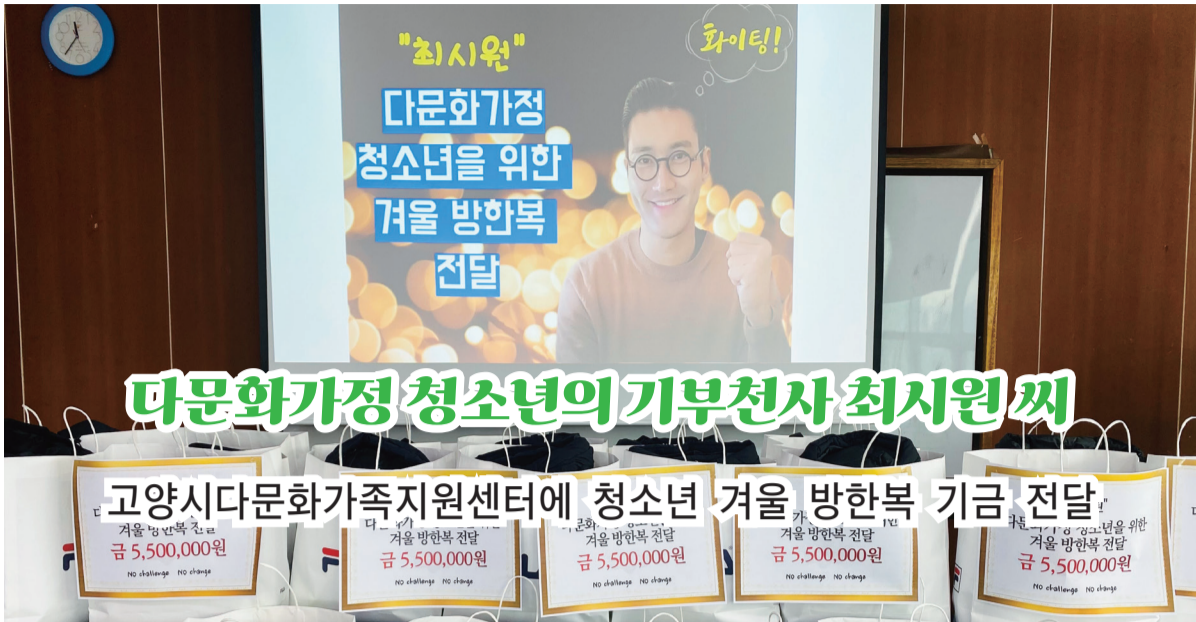
강의는 북아트 지도사 양미경 강사가 맡는다. 강사가 어린이들과 역사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후, 그와 연계된 북아트 활동(아코디언북 만들기, 가방북 만들기, 깃발북 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구성이다. 특히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삼국시대를 아우르는 한국사를 어린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역사북아트'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우리 역사를 배우는 한편 창의성과 예술감각까지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1~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4차시에 걸쳐 열린다.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30분에 1시간30분씩 3번의 강좌가 열리고, 마지막 4번째 강좌는 2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된다.

고양시 한빛도서관 문화행사 담당자는 “겨울방학과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며 창의성을 기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12일(화)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www.goyanglib.or.kr)에서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초등학생 4~6학년 12명이며, 재료비는 1인당 12,000원이다.

'랜선으로 만나는 Fun! Fun! 역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한빛도서관(☎031-8075-9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 한빛도서관은 이번 겨울방학 강좌를 시작으로 초등학생을 비롯해 청소년, 성인 등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지는 기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기부천사 최시원 씨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청소년 겨울 방한복 기금 전달

지난 1월 12일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SM 엔터테인먼트 소속)씨가 고양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겨울 방한복 구입 기금 550만원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겨울 방한복은 최시원 씨가 직접 티셔츠의 소재부터 디자인 부분까지 참여한 'No challenge No change'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되었다. 최시원 씨는 평소 나눔 문화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봉사단체 원아시아 대표이자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시원 씨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겨울 의류를 전달했다. 모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절대 잊지 말고,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값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겨울 방한복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40명에게 최시원 씨가 보내는 영상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었다. 방한복을 전달받은 청소년 중 최시원 씨의 팬이라는 한 학생은 “최시원 오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답글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대화도서관,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 프로그램

고양시(시장 이재준) 대화도서관이 2021년 새해를 열며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열두달 인문학당'은 2017년부터 시작된 대화도서관의 대표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매년 기획·운영돼 올해로 시즌5를 맞는다.

이번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전반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매월 전문 학자들의 초청 강좌를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총 4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개최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봄 편은 '코로나 시대, 인문학으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의는 매월 한번 해당 목요일에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30분간 고양시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강의(Zoom) 방식으로 진행한다.

봄 편의 첫 장을 여는 1월에는 김대식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희망이라는 놈은 가끔 변덕을 부린다'라는 강의를 22일(목)에 열린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지구의 생명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생명현상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부터 공존을 위한 사유와 삶의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2월 강의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다'는 제목으로 2월 18일(목)에 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특례시 확정 108만 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특례시란 무엇인가요?
특례시란, 기준과 같은 '일반 시'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권한을 인정받는 도시입니다

광역시 > 특례시 > 일반시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 걱정은 NO!"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줄어들고 우리시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 늘어 오히려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108만 대도시, 고양에 맞는 뜻이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 규모는 광역시급으로 커졌으나 일반시와 똑같은 자치제도와 조세구조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규모에 어울리는 자치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시	인구	자치제도
고양시	108만	일반시
광주광역시	145만	광역시
대전광역시	147만	광역시
울산광역시	114만	광역시

※ 지속·항동지구 택지 개발과 함께 머지않아 우리시 인구는 울산광역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재정도 당연히 높아야 합니다

도시	재정규모 (2020년 기준)
고양시	2조 6,914억 원
2020년 1만 명당 서울예산액	7조 5,571억 원

현재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나요?

사례1: 비슷한 인구에도 재정규모는 광역시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도시	인구	2020년 4월 기준 재정규모
고양시	1,080,000	26,914억 원
부산광역시	3,500,000	103,444억 원
대구광역시	2,400,000	82,776억 원

2020년 주민 1인당 서울예산액

도시	인구	2020년 주민 1인당 서울예산액
고양시	1,080,000	4,971억 원
부산광역시	3,500,000	4,725억 원
대구광역시	2,400,000	4,947억 원

2020년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도시	인구	2020년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고양시	1,080,000	1,839억 원
부산광역시	3,500,000	2,248억 원
대구광역시	2,400,000	2,389억 원

고양시가 특례시로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방재정이 쏙!** 늘어난 재정으로 도로, 교통,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합니다
- 복지혜택이 쏙!**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혜택이 확대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 자치권안이 쏙!**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자주적 사업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 지역경제가 쏙! 도시 경쟁력이 쏙!** 첨단·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WASH YOUR HANDS

with running water and soap for at least 30 seconds

Proper hand washing can reduc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y half.

At least 30 secs.

- PALMS**
Rub hands, palm to palm
- BACKS OF THE HANDS**
Right palm over left dorsum with interlaced fingers and vice versa
- BETWEEN THE FINGERS**
Palm to palm with fingers interlaced
- FINGERS INTERLOCKED**
Backs of fingers to opposing palms with fingers interlocked
- THUMBS**
Rotational rubbing of left thumb clasped in right palm and vice versa
- UNDER THE NAILS**
Rotational rubbing, backwards and forwards with clasped fingers of right hand in left palm and vice versa

Publication Date : 2017.12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자등록한 외국인도 버팀목 자금 받아 ... 특수고용·프리랜서는 고용안전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 자리 번역문 제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부터 바로 온

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영하고 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1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가족은 받을 수 있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은 자신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해서 신청해야겠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국어 11면, 베트남어 하단, 러시아어 11면, 일본어 31면, 태국어 31면> 이지는 기자

Trợ cấp “Tiền hỗ trợ khẩn cấp để ổn định tuyển dụng”, “gói sản phẩm Botimmok dành cho các tiểu thương” nhằm khắc phục dịch bệnh Covid

Đối tượng đăng ký kinh doanh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ừ gói sản phẩm Botimmok...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lao động tại mảng lao động đặc thù hay những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sẽ nhận sự hỗ trợ về ổn định lao động.

Chính phủ đã trợ cấp lần thứ 3 bắt đầu từ ngày 11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những tiểu thương,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ác mảng lao động đặc thù hay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ự do bị thiệt hại trong đợt bùng phát dịch Covid-19 lần thứ 3

Trong ngày 11 này, số tiền hỗ trợ sẽ lên đến 4,1 nghìn tỷ won với tên gọi “gói sản phẩm Botimmok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là tiểu thương” sẽ được trợ cấp đầu tiên, tin nhắn thông báo hỗ trợ cũng đã được gửi đến cho từng đối tượng. Đối tượng đăng ký kinh doanh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đủ điều kiện mà chính phủ đưa ra thì cũng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từ gói sản phẩm hỗ trợ này.

Trong tổng số 2 triệu 800 tiểu thương bị thiệt hại do dịch Covid thì chính phủ mới hỗ trợ lần đầu cho 2 triệu 500 người trước. Đây là những cơ sở kinh doanh được chính phủ yêu cầu cấm tổ chức hay hạn chế tổ chức kinh doanh trong đợt bùng dịch lần thứ hai vừa qua.

Từ sau ngày 24 tháng 11 năm ngoái,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 chính phủ và các đoàn thể địa phương đã thực hiện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đưa ra yêu cầu cấm hoặc hạn chế kinh doanh đối với một số cơ sở kinh doanh, các đối tượng này sẽ lần lượt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3 triệu won và 2 triệu won từ chính phủ. Các cơ sở kinh doanh có tổng doanh thu dưới 400 triệu won trong năm trước và thu nhập bị giảm hơn so với năm 2019 sẽ

được chính phủ trợ cấp số tiền hỗ trợ là 1 triệu won.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sẽ nhận được thông báo hỗ trợ thông qua tin nhắn, sau đó có thể đăng ký online để nhận hỗ trợ.

Để giảm thiểu được sự hỗn loạn trong việc đăng ký, ngày 11 và ngày 12 sẽ nhận đăng ký của những cơ sở đăng ký kinh doanh có số đăng ký kinh doanh lần lượt là số lẻ vào ngày 11 và số chẵn vào ngày 12, bắt đầu từ ngày 13 toàn bộ người đăng ký kinh doanh đều có thể đăng ký mà không phụ thuộc vào quy định về số cuối của số đăng ký kinh doanh.

Kế hoạch của Chính phủ là sẽ trợ cấp bắt đầu từ chiều ngày đăng ký đầu tiên theo lần lượt, muộn nhất là trong tháng 1 này sẽ trợ cấp toàn bộ. Số còn lại bao gồm 300 nghìn cơ sở kinh doanh sẽ được tổng hợp sau khi đăng ký trừ thuế vào ngày 25 tháng 1 và sẽ bắt đầu hỗ trợ cho các đối tượng này bắt đầu từ giữa tháng 3 tới đây. Tùy thuộc vào thu nhập thêm cũng như thời gian đăng ký trừ thuế mà thời gian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cũng có thể muộn hơn so với kế hoạch.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gói sản phẩm Botimmok có thể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 1522-3500 hoặc truy cập vào trang web www.버팀목자금.kr hoặc tổng đài tư vấn hỗ trợ ổn định lao động ☎ 1899-9595, địa chỉ web covid19.ei.go.kr để được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Khoảng 70 nghìn người lao động làm nghề lao động tự do mà thu nhập bị giảm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cũng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mang tên “Tiền hỗ trợ khẩn cấp nhằm ổn định lao động” bắt đầu từ ngày 11 này. Đối với gói hỗ trợ này,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có thể đăng ký nhận hỗ trợ.

Khoảng 650 nghìn người đã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gói tiền hỗ trợ khẩn cấp nhằm ổn định lao động được trợ cấp lần thứ nhất và lần thứ hai trong năm trước cũng sẽ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ưu tiên trong lần trợ cấp thứ ba này. Tuy nhiên những đối tượng đã đăng ký bảo hiểm lao động tính vào thời điểm là ngày 24 tháng 12 năm trước sau sự phát động phòng chống dịch cuối năm của chính phủ là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nằm trong danh sách được hỗ trợ.

Những đối tượng nói trên sẽ được đăng ký nhận hỗ trợ bắt đầu từ ngày 6 đến ngày 11. Những người không trực tiếp đăng ký lần thứ 3 này cũng được chính phủ ưu tiên rằng đã đăng ký và trợ cấp số tiền này thông qua số tài khoản mà người đó đã được nhận tại lần trợ cấp 1 hoặc lần trợ cấp hai. Kế hoạch của chính phủ sẽ trợ cấp các đối tượng này theo lần lượt số đăng ký bắt đầu từ ngày 11 đến ngày 15.

Đối với 50 nghìn đăng ký mới, chính phủ sẽ đánh giá và họ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100,000won/người. Vào ngày 15, chính phủ sẽ có thông báo về dự án này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ũng đang tiến hành triển khai chuẩn bị cho việc tiến hành dự án.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hãy kiểm tra xem mình thuộc diện hỗ trợ nào để có thể đăng ký nhận hỗ trợ từ chính phủ. <한글 기사 상단>

Ngoài ra, song song với dự án này của chính phủ, tỉnh Gyeonggi sẽ trợ cấp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trong tỉnh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số tiền trợ cấp là 100,000won/người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thứ hai tới đây.

国内居住人参考内容 Korean | Chinese

含本息(保险合同为解约退保金等)
每家金融公司最高
可保护5,000万韩元

!
超出5,000万韩元的部分
不受保护。

购买金融产品之前需再次确认内容!

- 是否受保护金融产品?
- 是否已听取保护产品的介绍?
- 是否已在说明确认栏签字?

银行·证券·保险·储蓄银行·综合金融公司的存款·零存整取及保险合同等均受存款保险公司保护。
(但债券及金融投资商品、变额保险主合同等除外。)

KDIC 存款保险公司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可以自己算一算
享受保护存款金额!

可以直接输入金融公司、金融商品、交易金额等信息
确认是否为受保护对象及模拟计算受保护金额。
请使用主页上的(www.kdic.or.kr)
“受保护存款金额模拟计算器”。

邀您访问生活金融学院!

存款保险公司为您提供财务管理方法、存款保险制度、金融支援制度等
生活必须的金融信息培训计划。
(提供e-培训教材,也可以申请参加现场培训)
详细内容请查看“生活金融学院”网页(www.kdic.or.kr),
如有疑问请拨打咨询电话(02-2259-8956)。

请咨询存款保险公司!

对存款保险制度有其他疑问时,
敬请拨打存款保险公司咨询电话(1588-0037)。

30 存款保险公司
04521 首尔特别市中区清溪川路30

上述内容为以2020年10月信息为准,后续会因相关法令的修订等发生变更。
并且,该内容提供的仅限于提高对存款保险制度的理解,因此不具有任何法律效力。

是否已阅读存款人保护通知?
是否已听取存款保险关系的说明?

什么是存款保险制度?

客户 支付存款保险金 → KDIC 存款保险公司 → 缴纳存款保险费 → 金融公司
无法支付存款

金融公司因停业、破产等原因无法支付客户存款时由存款保险公司代付存款以保护存款人利益的制度。

存款保险关系标示·说明·确认制度

存款保险关系标示·说明·确认制度为按照存款人保护法就投保金融公司销售的金融商品
在宣传册等内容中标示是否保护存款人及保护额度等信息,
与客户签署金融交易合同时向客户说明并获得客户确认签字,
以该等方式预防不完全销售行为保护金融消费者利益的制度。

请一眼确认受保护金融商品!

受保护金融商品上附有一眼能确认存款人利益是否能得到保护的标志。

KDIC 受保护金融商品
每人最高5,000万韩元

搜索受保护金融商品

可在公司网站上便捷搜索受保护金融商品!

http://www.kdic.or.kr
(网页 → 存款人保护制度 → 保护对象 → 金融商品 → 搜索受保护金融商品)

受保护金融公司及商品

受保护金融公司包含银行、保险公司、投资交易商·投资中间商、综合金融公司、储蓄银行

- 受保护金融公司也包含外国银行在国内的分行和农协银行·水协银行。
- 农·水协区域组合、信用协同组合、新村金库、邮局等依据个别法令受到其自身基金的保护。

并非受保护金融公司受理的所有金融商品都能得到保护。

- 只有存款、零存整取、保本货币信托等原则上到期日本金支付能得到保障的金融商品能得到保护。
- 金融投资商品、按业绩分红商品、证券公司CMA、次级债、变额保险的主合同(最低保证除外)均不属于受保护对象。
- 政府·地方自治团体(包含国·公立学校)的存款也不受保护。

不受保护金融商品的被保险案例

金融公司以“只投优良企业的商品,除非国家倒闭否则不会亏本的保本商品”的宣传诱导购买私募基金,但无法回购

比特币等虚拟货币、P2P公司及类似存款企业等不属于制度圈金融公司的也不提供存款人保护。

存款人保护诈骗案例

张三在非制度圈金融公司R企业多次举办的投资说明会及SNS介绍里面看到A商品为“不仅能保本且能受到5,000万韩元的存款人保护”的宣传,张三信以为真投资了,但无法回收投资款项

受保护金融商品 & 不受保护金融商品

区分	韩国 (存款保险公司)	中国 (存款保险基金管理有限责任公司)
保护额度	■ 每家金融公司每人5,000万韩元	■ 每家金融公司每人50万元(CNY) (约8,600万韩元)
受保护金融公司	■ 银行、保险公司、投资交易商·投资中间商、综合金融公司、相互储蓄银行(含外国金融公司在国内的分支机构)	■ 中国国内商业银行、农村合作银行、农村信用社等存款业务金融公司(不含外国金融公司在国内的分支机构)
受保护金融商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活期存款(普通存款、企业自由存款、专项存款、往来存款等) 储蓄型存款(定期存款、储蓄存款、住宅认购存款、Cover Bill等) 零存整取存款(定期存款、住房认购定金等) 外汇存款 按照存款受保护金融商品运作的固定缴款退休金计划及个人退休年金计划的计提款 编入个人综合资产管理账户(ISA)的金融商品中按受保护对象运作的金融商品 保本货币信托等 	■ 人民币及外汇存款
不受保护金融商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政府·地方自治团体(含国·公立学校)、韩国银行、金融监督院、存款保护公司、投保金融公司的存款 存款证书(CD) 附买回协议(RP) 金融投资商品(收益证券、共有基金、MMF等) 专项货币信托等按业绩分红型信托 银行发行的债券 住宅认购储蓄、住宅认购综合储蓄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融公司存款 金融公司高管在职的金融公司内存款 其他存款保险基金管理公司认为不属于受保护范围的存款
存款保险金支付	■ 金融公司停业命令等支付原因发生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存款人支付	■ 法院的金融公司破产申请受理等支付原因发生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存款人支付

*汇率: 2020年10月5日

**受保护金融商品的本息范围内
每人获得最高5,000万韩元的
资金保护,
超出的部分不受保护。**

- 利息是指金融公司承诺的利息和存款保险公司根据普通银行的一年定期存款平均利率决定的利息中较低的金額。
- 保险合同以退保金(到期时的保险金)和其他付款金额的合计金額为准。

每人受保护额度按不同金融公司计算, 总行和分行的存款则合计计算。

举例

Q A银行破产时在A银行的(a)分行有4,000万韩元存款, 在A银行的(b)分行有6,000万存款, 则存款人的受保护金额是多少?

A 同一家金融公司的分行并非独立受保护对象因此A银行的存款(1亿韩元)中只有5,000万韩元能受保护。

Q B·C储蓄银行都破产, 在B储蓄银行有7,000万韩元存款, 在C储蓄银行有3,000万存款, 则存款人的受保护金额是多少?

A 保护额度按金融公司分别适用, 因此对B储蓄银行的存款(7,000万韩元)中受保护金额为5,000万韩元, 在C储蓄银行的存款中受保护金额为3,000万韩元。

고양시, 2021년은 미래 자족도시 대전환의 해 "시민과 함께 성장"

다문화가정 맞춤형 방문서비스, 주거복지센터 개소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 총력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슬한 난관을 극복해 가는 지금, 108만 고양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온 고양시가 2021년, 자족도시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인구 100만 특례시란 뜻을 올리고 초대형 사업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 도시재생 추진 등 자족도시를 향한 힘찬 행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일자리·환경·생활 안전·복지·인권·문화 등에서 올 한해 역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이 사업들은 민선 7기 들어 차곡차곡 쌓은 미래예산 4천억원이 뒷받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사진)은 “2021년은 베드타운 꼬리표를 떼고 100만평 경제지도를 구체화해 자족도시로 대전환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외연적인 성장뿐 아니라 도시 속을 꼼꼼히 채우는 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시민 행복을 찾을 것”이라며 한 해의 포부를 밝혔다.

◇초대형 사업 착공, 광역 교통망 확장, 전국 최다 도시 재생 추진 등 자족도시 기틀 마련

고양시 100만평 경제지도의 핵심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전시장,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성사지구 등이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줄지어 착공한다.

올해 고양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주민 손실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하반기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총 755억원의 투자 유치 기금을 조성해 증강현실(VR)·가상현실(AR) 기반 콘텐츠 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등 신산업 우수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5위권, 세계 20위권 전시장으로 성장할 제3킨텍스 전시장 ▲국내 최대 42,000석 규모의 아레나가 들어서는 CJ라이브시티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1호 사업인 고양 성사지구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이 집적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자족도시의 기틀이 되는 초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원 마련·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양시민 1천명 대상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서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가 교통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서울·수도권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GTX-A 창릉역 추가 신설 ▲고양선 신설 ▲대곡~고양시청~식사 간 신교통수단 도입 등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되었고 ▲교외선 운행 재개 및 고양·관산 경유 노선 변경 ▲서해선의 일산~소사선 연장이 확정돼 개통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4량을 6량으로 증편 운행하고 탄현역 급행 전철 정차로 시민의 출퇴근 편리를 높일 뿐 아니라, 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해 일산IC 부근의 출퇴근길 병목 현상을 완화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사리현IC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도로(81호, 82호)를 개설하는 등 올해도 뺨 뚫린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전국 최다 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고양시는 올해 핵심 사업들을 완료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능곡역 리모델링, 토당문화플랫폼 조성, 원당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2022년 6월 준공 목표인 화전지역 드론앵커센터 건립과 2023년 완공 목표인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 특례시 지정으로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된 고양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혜택 확대, 학교 교육자치 실현, 도시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서북부 사법서비스 개선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사 건립 관련 지난해 5월, 덕양구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1,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국제설계공모 등을 진행해 저비용 고효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발굴, 소상공인 회복 지원, 청년 경쟁력 향상 등 시민과 함께 성장

고양시는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경제침체·사회불안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후 점포 수리 지원 ▲폐업 점포 지원 ▲1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기금 100억원 전액을 투입해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사업 ▲고양맞춤형 일자리 운영학교 등을 운영, 총 2,1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4차 산업 관련 청년 디지털뉴딜 교육 공간 운영 ▲청년 창업 재정지원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창업공간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한다.

◇신재생에너지·그린모빌리티·도시숲·장항습지·COP28 유치 등 환경에 투자

고양시는 100년 내 도시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는 환경이라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실질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로드맵 마련(2월) ▲TF팀 및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개최(5월, 10월)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진행 등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이 높아 우수한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장항습지의 랍사르 등록도 추진한다. 물골복원사업, 외래식물 및 쓰레기 제거 등을 통해 장항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데 힘쓰는 한편, 지난해 개관한 장항습지 탐조대를 통해 시민들이 습지를 탐방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민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 그린 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건축 인증 의무적용·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고양시에 녹색건축을 보편화한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전기차 등을 1,500대 이상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2022년까지 900기로 늘리며, 올 상반기 중 고양시 전역에 공유자전거 1,000대를 보급해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해나간다.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광장을 잇는 폭 60m, 길이 152m의 대형 보행통로가

올 상반기 착공, 나무 등을 식재해 걷기 좋은 생태공원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고양시는 ▲자유로 등 미세먼지 저감형 가로수 조성 ▲장항천 도시숲 ▲탄현 생태숲 ▲정발산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과 도시를 잇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대한 도시숲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고양누리버스, 주차공유제 등 생활 안전·편리 강화

고양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서 대통령상 수상,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등 잇단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한줄아이디어 창구 등을 운영하고 교육을 진행해 제안의 완성도와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고양시민 모두 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안심관리인이 무단투기 순찰·택배수취·환경정화 등을 담당하는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1기 신도시 노후승강기 지원 ▲노후 상수관 교체 등을 시행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을 꼼꼼히 살펴 해소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아파트·민간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공유제 시행 ▲일산동구청·한류월드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소외지역을 누비는 고양누리버스 6개 노선 운영 등으로 생활 편리를 높인다.

시민 1인당 평균 2,200원의 도서가 지원되도록 장서를 늘리고, 19개 시립도서관에 북큐레이션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특화해 도서관이 시민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된다.

◇유급병가지원, 한시적양육비지원, 주거복지센터 등 인권 사각지대 보호

고양시는 올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전국 최초 이혼가정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홀몸 어르신 이불세탁 ▲장애인 작업장 최소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정 맞춤형 방문서비스 ▲발달장애인 안심스마트팔찌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문 상담과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개소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립한 제2차 인권증진계획을 바탕으로 고양시 행정에 인권을 덧입혀 나갈 계획이다. 이지는 기자

앞서가는 다문화도시 안산,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최고!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2월 시작, 청년인턴 참가자 70명 모집,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2월 시작

안산시(시장 윤화섭, 사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2월로 늦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는 당초 이날 선발해 이달 18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극심한 한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다음달 1일 선발자 발표, 3일부터 시작하기로 연기했다.

전체 151개 사업으로 이뤄진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은 290명이 참여해 도시꽃길코디네이터, 공공시설육상 녹화관리, 근린공원관리, 도시숲 및 삼지공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현재 접수는 끝난 상태다.

선발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사업 기간은 2월 3일부터 5월18일까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청년인턴 참가자 70명 모집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1년 안산시 청년인턴’ 참가자를 이달 18~22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인턴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 중 만 18~39세 이하 고졸 이상을 대상으로 70명을 모집한다.

지원방법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2월 17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근무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안산시 각 부서에 인턴으로 배치돼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안산시는 이들이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취업박람회 참가 기회 및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며, 실무 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턴 참여자가 원하는 업무 분야별로 선발·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2)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 모집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일자리 창출사업은 창업지원기관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비대면·디지털 업무 담당 직무에 만 18~39세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기업 체별 각 1명씩 모두 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의 지속성 및 청년 고용률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1명의 월 임금 90%(최대 180만원)를 지원하며, 청년 참여자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자기계발지원금과 직무교육 및 직업역량 교육 등이 제공된다.

창업지원기관에 입주한 기업 중 비대면·디지털 기술 결합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분야의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고, 희망 기업체는 1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oseung@korea.kr)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031-481-3982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안산시 총 259명 모집, 20~26일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생계지원 필요한 주민 대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0~26일 모집이 이뤄지며, 규모는 지역공동체 23개 사업 191명, 지역방역 30개 부서 68명 등 모두 259명

이다. 선발되면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선발자 발표는 두 사업 모두 다음달 24일 개별 통보하며 안산시홈페이지(www.iansan.net)에 게시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안산시민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해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년을 초과해 반복 참여한 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시민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해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년을 초과해 반복 참여한 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 주 24~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으로 한 달 임금은 70만~100만(주휴 및 월차수당, 간식비 포함)으로 책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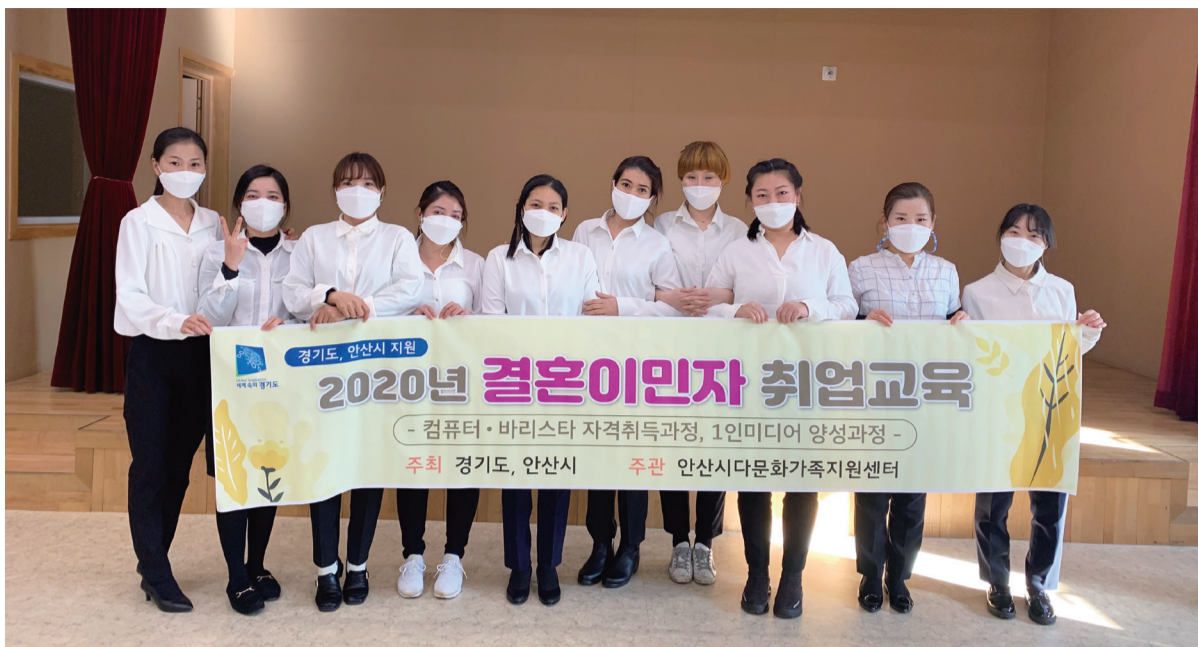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지역공동체, 지역방역일자리 두 사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31-481-2978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미래 설계해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보고회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12월 20일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1인 미디어 양성과정 등 3가지 과정으로 운영한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1인 미디어 양성과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바리스타 자격 2급 17명, ITQ 한글, 파워포인트 11명 취득 등 자격취득과 5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진행한 1인 미디어 양성과정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으며, 수료자 7명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작품을 만

들어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힘들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커 2021년에도 꾸준히 유튜브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원과 수료자들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문숙현 센터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결혼이민자 각자의 성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에도 다양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과정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가사 스트레스, 가족 함께 날려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월 15일까지 시민 대상 프로그램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지난 1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을 등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안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안산시민 대상으로 이뤄지며, 집콕놀이 5~8세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이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 놀이>, <도시락 수다방>, <심리상담>으로 나눠 진행된다.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 놀이>는 자녀 1명과 부모 1명이 참여해 5~6세 반은 1월 26일과 28일 2회 진행된다. 7~8세 반은 2월 2일과 2월 4일 2회 진행될 예정이다. 꾸러미를 제공해 실시간 화상원격 줌을 활용해 이뤄진다.

<도시락 수다방>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소그룹 수다방을 3개 그룹으로 나눠 2회씩 운영된다. 1그룹은 2월 16일과 18일, 2그룹은 2월 23일과 2월 25일, 3그룹은 3월 2일과 3월 4일 이뤄지며 도시락이 제공된다. 줌을 활용해 진행된다.

<심리상담>은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및 육아 및 가스 스트레스 관리 심리상담으로 3회기 실시간 줌을 활용해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센터 (031-599-1709)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인 ‘월피가치키움터’와 ‘석호가치키움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아동 정원 18명 규모의 상록구 안산천동로6길 2(201호)에 위치한 월피가치키움터는 LH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안산시가 시설 사용권을 무상으로 인계 받았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하다’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석호가치키움터는 기존 사동 주민들이 동네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석호경로당 내 유휴공간(상록구 서암로1길 10-3)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장소로 아동 25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감골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을 맡는다. 다문화가정 자녀도 물론 이용할 수 있다.

석호가치키움터는 이날부터, 월피가치키움터는 12일부터 운영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숙제지도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로 긴급돌봄 서비스만 제공한다.

시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상근인력으로 돌봄교사 등 2명과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한다. 이용자는 급식비 별도, 간식비 포함 월 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031-481-2269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초등학교 원격수업 돌입 등으로 요즘 더욱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장소를 발굴해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난해까지 3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8개소, 2022년에는 8개소를 확충해 2022년까지 모두 19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3호점 ‘사이동가치키움터’는 지난 11월에 개소했다.

상록구 평안로1안길 3층에 위치한 사이동가치키움터는 기존 행복한마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행복한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숙제 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동가치키움터는 166㎡(50평) 규모에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근무하며, 이용아동 정원은 25명이다. 이용료는 월 5만원에 소득수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민께 보고를 드립니다"

윤화섭 시장, 새해맞이 시민 시정보고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온오프 만남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시정을 보고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미팅'을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다음달 8일까지 매일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한편, 시민 300명과 온라인 간담회도 열고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올해 시정목표인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과의 만남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화섭 시장이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시정을 보고하는 자리는 전날 단원구 와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매일 동 행정복지센터 1~2곳에서 마련된다. 이틀째인 이날 방문지는 상록구 일동·이동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주민 10명 미만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최대 49명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첫 보고회가 열린 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30 안산비전'인 '다함께 생생 안산'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주민들께 시정을 보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주민 대표 6명과 온라인으로 4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화섭 시장은 시 주요성과와 시정방향을 보고했고, 주민들은 ▲조두순 등 강력사범 관리방안 ▲버스승강장 운영의자 확대 ▲주거지역 주차공간 확보 등 와동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온라인 참석자 중에는 박은경 안산시의회, 강태형 경기도의원, 이기환 시의원 등도 참여해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더했다.

윤 시장은 주민과의 만남 외에도 다음달 중순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며, 올해 역점사업 현장도 찾아가 주민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모든 행정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적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행정 ▲적극행정 ▲공감행정으로 시민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주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아침 상록구 사동 상가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가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윤 시장은 이날 아침 사고현장으로 바로 출근해 전날 사고로 균열이 발생한 도로에서 출근길 교통지도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현황과 추가 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사안을 설명했다.

앞서 윤 시장은 전날에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전문가 회의를 실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교육 지원한다

안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다뤄



안산시의회가 오는 25일 개최하는 제 268회 임시회에서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지난 6일과 7일 사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발의에 나선 의원은 이경애 한명훈 유재수 추연호 주미희 송바우나 나정숙 의원 등 7명이다. 이들 조례안은 길게는 지난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8일 열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68회 임시회 안건으로 부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과 나정숙 의원은 각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을 명시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육성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밝힌 '안산시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경애 의원은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정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과 활성화 조항 등을 담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재수 의원의 경우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인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추연호 의원은 안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지역 우선 공급 조항 등을 포함한 '안산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미희 의원은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영의 기자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서적을 만나보세요!

- 도서납품(외국도서, 국내도서)
- 교과서납품(전 세계국가, 국내)
- 다문화전자책 납품 국내유일
- 비도서(DVD, CD, 잡지) 납품(전세계)
- MARC DATA 구축, 장비, 태깅, 배가작업

경기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403호
 전화 : 032-325-4755 팩스 : 032-325-4772
 E-mail : hope6401@hanmail.net Website : www.bookhg.com

克服新冠病毒, 支付“小工商业者支撑资金”, “紧急雇佣安全支援金”

事业者注册的外国人也可以得到支撑资金. . 特殊雇佣、自由职业人员可获得雇佣安全支援金

韩国政府从11日开始向因新型管型病毒感染症(新冠病毒)第3次扩散而受到损失的小工商业者和特殊形态劳动者(特殊雇佣)、自由职业人员等雇用脆弱阶层发放第3次灾难支援金。

韩国政府11日向优先支付规模达4.1万亿韩元的“小工商业者支撑资金”的对象发送了通知短信。即使是注册了事业者的外国人, 只要具备条件也可以得到支援。

在遭受“新冠病毒”灾害的280万名小工商业者中, 首先将支付给250万人。目前, 接受第二次灾难支援金(新希望资金)的小商工人和根据政府的防疫方针被禁止聚集限制的特别受害行业是优先支援对象。

自去年11月24日以后, 因政府和地方自治团体加强防疫措施, 成为禁止聚集或营业限制对象的小工商业者分别可以得到300万韩元和200万韩元。随着去年销售额低于4亿韩元, 去年年销售额比2019年减少的小商人可获得100

万韩元。该小工商业者从收到通知短信的11日开始就可以在线申请。但是为了圆满的的申请, 11~12日两日间以事业者注册号码的尾号为基准, 运营着单双号制(11日是单数, 12日是双数)。从13日开始可以不分单双号, 自由申请。

政府计划从11日申请的当天下午开始支付, 最晚在1月份结束支付。对于其余30万名新领取者, 将以1月25日附加价值税申报内容为基础筛选支援对象, 最快从3月中旬开始支付支援金。但是, 如果根据审核附加税申报内容, 时间的延长, 今后申报销售额, 支付时间可能会进一步推迟。

对于小工商业者支撑资金事业的具体内容, 前端咨询中心(1522-3500)或网站(www.支撑资金)上进行确认, 对于第三次紧急雇佣安全支援金, 前端咨询中心(19999-9595)或官方(covid19.ei.go.kr)进行确认。

由于新冠病毒长期化, 对收入减少的70万名特殊雇佣和自由职业者发放的第三次“紧急雇佣安全支援金”也

将从11日开始发放。紧急雇佣安全支援金即使没有取得国籍, 多文化家庭也可以得到。

首先将面向去年获得第一、第二次紧急雇佣稳定支援金的65万人, 不经过特别审查, 每人支付50万韩元。但是, 以去年12月24日实施的“年末、年初防疫加强特别对策”为标准, 加入雇用保险的人将被排除在支援对象之外。

政府以他们为对象在6~11日接受了申请。对没有申请的人也视为申请, 在领取第1次或第2次支援金时, 用登记的账号支付第3次支援金。

政府将从11日至15日, 按照先后顺序完成支付。

5万名新领取者将经过审查后支付100万韩元。15日, 发布事业公告, 正在办理受理申请等行政手续。

多文化家庭应该仔细了解自己属于哪个行列, 然后提出申请。另外, 包括外国居民在内, 京畿道将向每人支付10万韩元的第二次灾难支援金。 <한글 기사 5면>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нятости»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связанных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 11 чис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чало выплачивать третью субсидию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таким как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або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специальная сфера занятости) и фрилансеры, пострадавшие от третьей волн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rona 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11-го числа в рамках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 общей суммой в 4,1 трлн вон, направило текстовое уведомление получателям. Иностранц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как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так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Из 2.800.00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Corona 19, сначала пособие получат 2.500.000 человек. Приоритет отдаётся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ранее получили вторичную поддержку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новые желающие), и предприятиям понёсшим особый ущерб из-за запрета или огранич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карантинного режи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или ограничена в связи с усилением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с 24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 3 млн вон и по 2 млн во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чей объём продаж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 менее 400 млн вон, а годовой объём продаж сниз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 годом, могут получить 1млн вон.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ил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нлайн с 11-го числ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лучат текстовое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й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 11 по 12 будет применена система чётного-нечётного числа (11-го нечётное, и 12-го чётное), на основе последней цифры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номера бизнеса в течение обоих дней. С 13-го числа можно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я без каких-либо различ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начать выплаты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в день подачи заявки 11-го числа и завершить выплаты не позднее середины января.

В случае остальных 300.000 новы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собие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с середины марта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исходя из содержания отчёта по НДС от 25 я

нваря. Однако из-за продления периода подачи налоговой декларации по НДС, период выплат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несён, если о продажах будет сообщено позж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екте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вяжитесь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колл-центром (☎ 1522-3500) или посетите веб-сайт (www.Support fund.kr).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3 пособ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звонив в специальный колл-центр (☎ 1899-9595) или на сайте (covid19.ei.go.kr).

Третий «Фонд поддержки стабильности занятости», по которому будет выплачено 700.000 фрилансерам и специальным работникам, чей доход снизился из-за продле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из-за пандемии, выплаты также начнутся с 11 числа.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нятост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даже если они не получили гражданства.

По 5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буду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ыплачены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роверок 650.000 человек, получивши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1-е и 2-е п

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чрезвычайных условиях для поддержки занятости. Однак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были введ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меры по усилению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 конце года и к Новому году, лица, которы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на страхование занятости, не имеют права на пособ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имало заявления с 6 по 11 число. В случае н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пособие будет выплачено автоматически н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номер счёта при получении 1 и 2-го пособия. Выпла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порядке очереди с 11 по 15 число.

50.000 новым получателям будет выплачено по 1млн вон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данных. 15 числа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роект,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у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оцедуры, такие как приём заявок.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должны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пределится к какой из категорий они принадлежат.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мимо этого, Кёнгидо выплачивает по 1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в рамках 2-го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한글 기사 5면>

장울가 기자



이주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 대책 모색

고영인 의원, 이주노동자 주거 안정 및 건강권 확보 간담회 개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횡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 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 간의 입장 차도 논의되어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00만원 지원, 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흥기원 국회의원, 원미정 부위원장, 고기복 자문위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법무법인 덕수 조용관 변호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김지립 변호사,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현주 국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일만 자격부과실장 등이 함께했다. 최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은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외래진료 및 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 가운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과 협력해 진행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

장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신체 발달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보건·복지·교육·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481-22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임신·출산·양육 정보 망라 홈페이지 구축 안산시 '아이 LOVE YOU' 1일 운영 다양한 정보 손쉽게 파악 가능 눈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아이 LOVE YOU’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다 6일 밝혔다.

지난 1일 개설된 웹사이트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의료시설·돌봄시설·수유시설 등의 지역정보, 교육·행사 등 모든 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분류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임신준비 ▲임신중 ▲출산 ▲육아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각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자녀수, 소득에 따른 선택형 맞춤 검색도 가능하다. 각종 육아와 관련한 정보에서는 아빠와 아이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아빠놀이카드’ 정보도 담겨져 아빠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습득만을 위한 웹서비스가 아닌,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발적 참여 공간도 제공돼, SNS 간편 로그인 후 소통방, 따뜻한 한마디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출산·양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정책변화에 대응한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 LOVE YOU’ 사이트는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너를 클릭하거나, www.ansan.go.kr/iloveyou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화면으로도 최적화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 중, 출산,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ao động ở Hàn Quốc làm công việc gì?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3D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돈보다는 기술과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인식해야

Các lao động nước ngoài diện lao động phổ thông ở Hàn Quốc chủ yếu làm việc các công việc nặng nhọc, yêu cầu kỹ thuật thấp. Nơi mà các lao động người Hàn ít làm việc. Vì ở đây lương và điều kiện trợ cấp ít hơn không đảm bảo cho cuộc sống của họ.

Nhưng có rất nhiều công ty yêu cầu người lao động có trình độ nhất định. Ví dụ như cắt gọt kim loại, khuôn mẫu, hàn, cắt dây .v.v... Những công ty này vẫn tuyển dụng lao động phổ thông nhưng khả năng hoà nhập và làm việc của người mới thường rất chậm. Nhất là khi mới qua thì tiếng biết ít lại phải tiếp thu kỹ thuật mới nên rất vất vả. Nhất là trong giai đoạn dịch bệnh kéo dài các trung tâm tiếng hàn không mở cửa. Khả năng học tiếng của những người mới qua khoảng giữa năm 2018 tới nay trong giai đoạn này rất khó để học tiếng. Chính vì điều này mà rất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phải chuyển nơi làm việc mới gây khó khăn cho người lao động bên sở hữu lao động. Nếu như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này được học kỹ năng làm việc thì năng suất làm việc sẽ tăng lên và áp lực ực công việc sẽ giảm xuống. Nhất là giảm xung đột với quản lý.

Có rất nhiều lao động được học qua chuyên ngành từ trước đã bắt nhập và làm việc rất tốt. Những người này làm chủ công việc và hầu như không chuyển nơi làm . Nếu như các lao động trước khi qua làm việc họ cũng được đào tạo những khóa học ngắn hạn đúng yêu cầu kỹ thuật của công ty thì tốt biết mấy. Hay những trung tâm người ngoại quốc ngoài những khoá học tiếng Hàn thì nên mở thêm các khoá học kỹ thuật sát với yêu cầu làm việc trong công ty. Trước đây cũng có những khoá học như vậy nhưng rất ít và không thường xuyên. Nhưng khi chưa có các khoá học dành cho các bạn thì mọi người phải tự thân học hỏi. Intenet sẽ cung cấp những gì cơ bản và cần thiết nhất cho mọi người .khi mới qua thay vì mục tiêu kiếm tiền thì phải đặt mục tiêu làm việc để học hỏi khi bạn làm việc tốt thì thu nhập sẽ tự nhiên tăng.

Mọi người có thắc mắc tại sao Hàn Quốc phát triển nhanh và bền vững không nguyên nhân đầu tiên mà người Hàn nói cho bạn đó là khả năng ham học hỏi (교육열). Kỳ thi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là 1 trong những kỳ thi khắc nghiệt nhất trên thế giới. Muốn hoà nhập và làm việc lâu dà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ỗ lực rất nhiều.

Theo mình nhận thấy các lao động ở các chuyên ngành như tiện CNC(선반 CNC), phay MCT(머시닝), cắt dây(와이어커팅), Hàn MAG(Metal active gas chủ yếu là co2), MIG(Metal inert gas chủ yếu là Ar và heli). TIG (Tungsten Inert Gas chủ yếu là Ar,He) và khuôn mẫu(금형) đây là các chuyên ngành rất thiếu lao động kỹ thuật. Đặc biệt là phay MCT các công ty tuyển dụng rất nhiều yêu cầu chủ yếu là biết vẽ CAD và lập trình CAM kinh nghiệm trên 1năm . Nếu các bạn có ý định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nên học một trong các chuyên ngành trên. Nhưng cho dù bạn làm chuyên ngành gì thì cũng phải học tiếng Hàn giao tiếp tốt mới làm việc được.

Các bạn trước khi sang Hàn làm việc thì hãy chuẩn bị hành trang tốt nhất cho mình nhé.

Hàn Quốc đang có rất nhiều lao độ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àm việc. Họ làm những công việc mà người Hàn không muốn làm. Nếu các bạn có ý định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nên học một trong các chuyên ngành trên. Nhưng cho dù bạn làm chuyên ngành gì thì cũng phải học tiếng Hàn giao tiếp tốt mới làm việc được.

Mọi người có thắc mắc tại sao Hàn Quốc phát triển nhanh và bền vững không nguyên nhân đầu tiên mà người Hàn nói cho bạn đó là khả năng ham học hỏi (교육열). Kỳ thi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là 1 trong những kỳ thi khắc nghiệt nhất trên thế giới. Muốn hoà nhập và làm việc lâu dà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ỗ lực rất nhiều.

Theo mình nhận thấy các lao động ở các chuyên ngành như tiện CNC(선반 CNC), phay MCT(머시닝), cắt dây(와이어커팅), Hàn MAG(Metal active gas chủ yếu là co2), MIG(Metal inert gas chủ yếu là Ar và heli). TIG (Tungsten Inert Gas chủ yếu là Ar,He) và khuôn mẫu(금형) đây là các chuyên ngành rất thiếu lao động kỹ thuật. Đặc biệt là phay MCT các công ty tuyển dụng rất nhiều yêu cầu chủ yếu là biết vẽ CAD và lập trình CAM kinh nghiệm trên 1năm . Nếu các bạn có ý định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nên học một trong các chuyên ngành trên. Nhưng cho dù bạn làm chuyên ngành gì thì cũng phải học tiếng Hàn giao tiếp tốt mới làm việc được.

Các bạn trước khi sang Hàn làm việc thì hãy chuẩn bị hành trang tốt nhất cho mình nhé.

Mọi người có thắc mắc tại sao Hàn Quốc phát triển nhanh và bền vững không nguyên nhân đầu tiên mà người Hàn nói cho bạn đó là khả năng ham học hỏi (교육열). Kỳ thi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là 1 trong những kỳ thi khắc nghiệt nhất trên thế giới. Muốn hoà nhập và làm việc lâu dà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ỗ lực rất nhiều.

Theo mình nhận thấy các lao động ở các chuyên ngành như tiện CNC(선반 CNC), phay MCT(머시닝), cắt dây(와이어커팅), Hàn MAG(Metal active gas chủ yếu là co2), MIG(Metal inert gas chủ yếu là Ar và heli). TIG (Tungsten Inert Gas chủ yếu là Ar,He) và khuôn mẫu(금형) đây là các chuyên ngành rất thiếu lao động kỹ thuật. Đặc biệt là phay MCT các công ty tuyển dụng rất nhiều yêu cầu chủ yếu là biết vẽ CAD và lập trình CAM kinh nghiệm trên 1năm . Nếu các bạn có ý định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nên học một trong các chuyên ngành trên. Nhưng cho dù bạn làm chuyên ngành gì thì cũng phải học tiếng Hàn giao tiếp tốt mới làm việc đượ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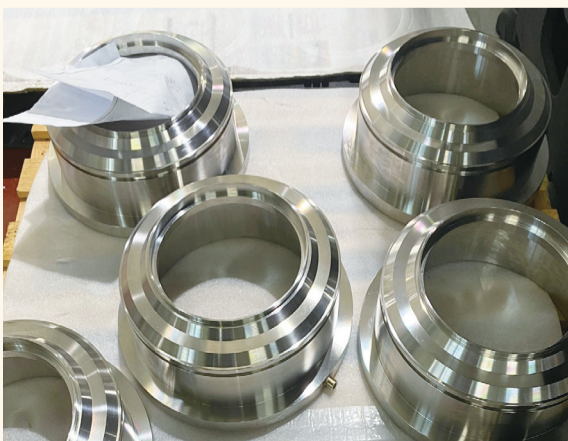
Mọi người có thắc mắc tại sao Hàn Quốc phát triển nhanh và bền vững không nguyên nhân đầu tiên mà người Hàn nói cho bạn đó là khả năng ham học hỏi (교육열). Kỳ thi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là 1 trong những kỳ thi khắc nghiệt nhất trên thế giới. Muốn hoà nhập và làm việc lâu dà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ỗ lực rất nhiề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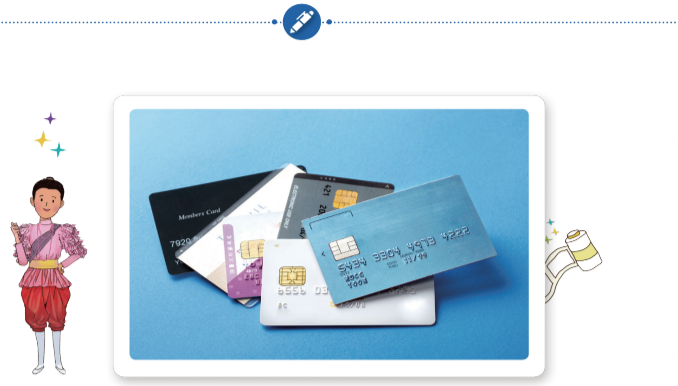
Theo mình nhận thấy các lao động ở các chuyên ngành như tiện CNC(선반 CNC), phay MCT(머시닝), cắt dây(와이어커팅), Hàn MAG(Metal active gas chủ yếu là co2), MIG(Metal inert gas chủ yếu là Ar và heli). TIG (Tungsten Inert Gas chủ yếu là Ar,He) và khuôn mẫu(금형) đây là các chuyên ngành rất thiếu lao động kỹ thuật. Đặc biệt là phay MCT các công ty tuyển dụng rất nhiều yêu cầu chủ yếu là biết vẽ CAD và lập trình CAM kinh nghiệm trên 1năm . Nếu các bạn có ý định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nên học một trong các chuyên ngành trên. Nhưng cho dù bạn làm chuyên ngành gì thì cũng phải học tiếng Hàn giao tiếp tốt mới làm việc được.

Mọi người có thắc mắc tại sao Hàn Quốc phát triển nhanh và bền vững không nguyên nhân đầu tiên mà người Hàn nói cho bạn đó là khả năng ham học hỏi (교육열). Kỳ thi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là 1 trong những kỳ thi khắc nghiệt nhất trên thế giới. Muốn hoà nhập và làm việc lâu dà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ỗ lực rất nhiều.

Theo mình nhận thấy các lao động ở các chuyên ngành như tiện CNC(선반 CNC), phay MCT(머시닝), cắt dây(와이어커팅), Hàn MAG(Metal active gas chủ yếu là co2), MIG(Metal inert gas chủ yếu là Ar và heli). TIG (Tungsten Inert Gas chủ yếu là Ar,He) và khuôn mẫu(금형) đây là các chuyên ngành rất thiếu lao động kỹ thuật. Đặc biệt là phay MCT các công ty tuyển dụng rất nhiều yêu cầu chủ yếu là biết vẽ CAD và lập trình CAM kinh nghiệm trên 1năm . Nếu các bạn có ý định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nên học một trong các chuyên ngành trên. Nhưng cho dù bạn làm chuyên ngành gì thì cũng phải học tiếng Hàn giao tiếp tốt mới làm việc được.

Mọi người có thắc mắc tại sao Hàn Quốc phát triển nhanh và bền vững không nguyên nhân đầu tiên mà người Hàn nói cho bạn đó là khả năng ham học hỏi (교육열). Kỳ thi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là 1 trong những kỳ thi khắc nghiệt nhất trên thế giới. Muốn hoà nhập và làm việc lâu dài ở Hàn Quốc thì người lao động phải nỗ lực rất nhiều.





บัตรเครดิตกดเงินใน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꼭 갏자!

บัตรเครดิตมี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นการใช้จ่ายซื้อของเมื่อไม่มีเงินสด แต่หากใช้จ่ายอย่างไม่ระมัดระวังอาจประสบปัญหาไม่สามารถชำระเงินตาม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ได้ ซึ่งหากเกิดกรณีเช่นนี้คุณจะต้องรับภาระดอกเบี้ยที่สูงมาก ยิ่งไปกว่านั้นบัตรของคุณจะถูกระงับและประวัติ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จะถูกส่งไปยังบริษัทแม่ ซึ่งจะส่งผลกระทบต่อธุรกรรมการเงินอื่นๆ ด้วย ดังนั้นจึงควรคิดให้รอบคอบก่อนทำบัตรเครดิต ทางที่ดีควรใช้เช็คการ์ดซึ่งสามารถใช้เงินได้ภายในวงเงินที่เรามีอยู่เท่านั้น หากเป็นไปได้แทนที่จะถือบัตรเครดิตหลายๆใบควรถือบัตรเพียง 1-2 ใบก็เพียงพอ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 좋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대금을 못 갚을 경우 연체이자나 매우 높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카드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융회사에 연체기록이 남아 다른 금융거래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2개 정도면 충분하므로,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합니다.

III



สรุป
정리하기

- 1. **ข้อควรระวังในการตั้งรหัสบัตร**
ไม่ควรเปิดเผยรหัสบัตรให้คนอื่นรู้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ไม่ควรใช้ข้อมูลส่วนตัว เช่น วันเกิด, หมายเลขทะเบียนรถ,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 ฯลฯ ตั้งรหัสบัตรเพราะจะถูกเปิดเผยได้ง่าย
- 2. **ตรวจสอบยอดเงินคงเหลือในบัญชีล่วงหน้า**
เช็คการ์ดกับบัตรเดบิตจะต่างกับบัตรเครดิตที่ถูกตัดยอดออกจากบัญชีทันทีที่เราซื้อของ ดังนั้น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ยอดเงินคงเหลือในบัญชีล่วงหน้าว่ามีเพียงพอหรือไม่
- 3. **ระวังอย่าชำระเงินล่าช้า**
การใช้บัตรเครดิตคิดดอกเบี้ยให้รอบคอบก่อนซื้อว่า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จ่ายเงินคืนในภายหลังได้หรือไม่ หากคุณไม่สามารถจ่ายเงินคืนประวัติ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จะถูกบันทึกไว้กับ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ซึ่งจะส่งผลเสียกับการทำธุรกรรมทางการเงินอื่นๆ เช่น การกู้ยืมเงิน ฯลฯ ในอนาคต
- 4. **จะทำอย่างไรเมื่อบัตรหาย**
เมื่อบัตรหายต้องโทรแจ้งบริษัทบัตรหรือธนาคารในทันทีเพื่อแจ้งอายัดบัตร จากนั้นคุณจะสามารถใช้บัตรได้อีกครั้งเมื่อได้รับบัตรใหม่
- 5. **เซ็นชื่อด้านหลังบัตรให้ชัดเจน**
ต้องเซ็นชื่อด้านหลังบัตรทันทีที่ได้รับบัตร หากไม่มีการเซ็นชื่อ บริษัทบัตรหรือธนาคารอาจปฏิเสธ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ต่อค่า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กรณีบัตรสูญหาย

- 1. **카드 비밀번호 설정 시 주의 사항**
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생년월일, 자동차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로 만들면 쉽게 노출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 2. **통장에 있는 잔금, 미리 확인하기**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물건 구입 시 바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3. **연체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신용카드는 미리 물건을 구입한 후 나중에 돈을 내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 전에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를 이용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에 남아 대출 등 다른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4.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해당 카드회사나 은행에 바로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이동을 정지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발급을 받으면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카드 뒷면에 꼭 사인하기**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즉시 뒷면에 본인 사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사인이 없으면 카드를 분실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카드회사나 은행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II

เคสตัวอย่าง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ก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
다문화가족 사례

ค้างชำระไปสองเดือนเลย
โดนหักค่าปรับไปด้วย
자동차 2 คันก็โดนยึดแล้ว,
연체료가 추가로 나갔เน...



นาง B ซึ่งเป็นคู่สมรส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สามารถเดินทางไปธนาคารได้บ่อยๆ เพราะต้องทำงาน มีอยู่ครั้งหนึ่งเธอต้องเสียค่าปรับเนื่องจาก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ล่าช้า เธอจึงตัดสินใจตั้งรายการชำระ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อัตโนมัติ ทุกวันที่ 10 ของทุกเดือน วันหนึ่งเธอพบว่า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ถูกหักออกไปรวดเดียว 2 เดือนซ้อนแถมยังมีค่าปรับเนื่องจากไม่ชำระเงินตามกำหนดอีกด้วย หลังตรวจสอบเธอพบว่าเดือนก่อนไม่มีเงินในบัญชีพอที่จะชำระ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ทำให้เกิดยอดค้างชำระและค่าปรับทำให้เดือนถัดมาถูกหักเงินออกไป 2 เดือนซ้อน

결혼이주여성 B씨는 회사를 다녀서 은행에 자주 못 갔습니다. 한번은 공과금 납부기간이 지나서 연체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일에 공과금이 본인 통장에서 빠져 나가게 자동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공과금 두 달치가 한꺼번에 빠져 나갔고, 연체료도 추가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그 달 돈이 빠져 나가지 못했고, 통장에 잔액이 생기자 두 달치가 한꺼번에 빠져 나간 것입니다.

หลังจากที่ได้ตั้งหักบัญชีอัตโนมัติ 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ยอดเงินคงเหลือในบัญชี
ในวันกำหนดตัดยอดว่ามีเงินเพียงพอหรือไม่

자동차를 신청한 후에는 공과금 결제일에 통장잔액이 충분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สรุป
정리하기

- 1. **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คืออะไร?**
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 คือ ค่าไฟ ค่าแก๊ส ค่าน้ำ ที่ใช้ภายในบ้านเรือน ผู้ที่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ทุกคนรวมถึงคนต่างชาติจำเป็นต้องจ่ายค่าไฟ ค่าแก๊ส และค่าน้ำที่ใช้ในแต่ละเดือนทุกเดือน
- 2. **การ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ได้อย่างไร?**
การ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 ก่อนอื่นจะต้องมีใบแจ้ง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ซีโรทงจ็ชอ, ซีโรโดจ็ชอ)ที่ถูกส่งมาให้ที่บ้าน นำใบแจ้ง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ดังกล่าวไปจ่ายเงินที่ธนาคารหรือไปรษณีย์ หรืออาจจ่ายผ่านอินเตอร์เน็ต หรือ ตั้งหักบัญชีอัตโนมัติ ก็ได้เช่นเดียวกัน
- 3. **ต้อง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ภายในกี่วัน?**
กำหนดเวลาชำระเงินจะระบุไว้ในใบแจ้ง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 ดังนั้นจึงควรจ่ายเงิน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 หากไม่จ่าย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จะทำให้ถูกตัด ไฟฟ้า และแก๊สได้ ทางที่ดีจึงควรจ่ายภายใน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
- 4. **ควรเก็บรักษาใบเสร็จ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ไว้ให้ดี**
ใบเสร็จ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ถือเป็นหลักฐานการ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ดังนั้นควรเก็บรักษาเอาไว้ให้ดี

- 1. **공과금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을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본인이 한 달 동안 쓴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 2.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일단 집 주소로 온 납부 통지서(지로통지서, 지로고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자동차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3. **공과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납부 통지서에 납기일 또는 납부 마감일이 써 있으니 그 날짜 안에 내야 합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못 내면 연체료가 생기고, 계속 공과금을 못 낼 경우에는 전기, 가스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은 되도록 밀리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공과금 영수증을 챙기세요.**
공과금 영수증은 요금을 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III



다문화가족에 도움 되는 일자리정보

안산시, 더 다양해진 특화형 맞춤형 일자리 정보



취업을 고민 중인 다문화가족이라면 올해 안산시의 일자리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산시의 주요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계층별 특화된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스마트워크센터 및 인공지능(AI) 화상면접 체험관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요 행사는 예년과 달리 열리는 계층별 특화 취업박람회(919 취업광장)를 시작으로, 3월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업!(UP) 일자리 박람회'를, 6월에는 다문화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다 같이 일자리 박람회'를, 11월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년 드림(Dream)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기업생생정보통'은 관내 기업의 최신 정보를 수집해

구직자에게 기업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체계화해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시 스마트워크센터 AI 화상면접 체험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늘어난 비대면에 대응하며, 이달 중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안산시청사에 설치된 AI, VR(가상현실) 화상면접 체험관은 취업준비생에게 AI 면접체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031-481-2277~8, 031-481-2882)

한편 안산시는 새로운 화상면접장을 활용해 신축년 새해 첫 취업 행사로 소규모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 '목요일에 희망잡(Job)고(Go)'를 개최해 15명이 현장 채용됐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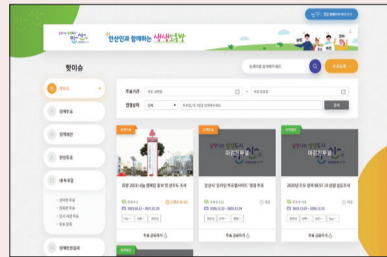
지난 7일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와 구직자를 맞춤형으로 매칭한 이번 행사에는 3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지원자 34명 중 27명이 화상면접에 참여해 15명이 현장 채용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소규모 맞춤형 취업 행사인 '목요일에 희망잡(Job)고(Go)'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온라인으로 소통해요~ 생생소통방

안산시, 시민 의견수렴 빠르고 쉽게 홈페이지 오픈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 결정부터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사이트 '생생소통방'(<https://www2.ansan.go.kr/vote/>)을 구축해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반응형 웹 기술이 적용된 생생소통방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는 생생소통방을 활용해 시정과 관련한 설문과 시민의견이 필요한 선호도 조사, 명칭 선정 등을 진

행할 예정이며,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시민 제안을 받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시민 대토론회와 원탁회의 등의 시민참여 행사를 재개해 생생소통방을 활용한 현장 투표 등을 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런 가운데 올해 첫 시민 선호도 조사 주제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정했다.

안산시는 선호도 조사에서 기부 가능한 금액과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지원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해 '시민 맞춤형 기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생생소통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정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1 안산시 지구촌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안산시 지구촌합창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내국인 가정 유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써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2021년 지구촌합창단의 신규 합창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아동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1. 1. 15.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단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1. 1. 15. ~ 1. 29. 18:00 ※다문화가정아동에 한해 수시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대상 : 안산 관내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합창영상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yuri13@korea.kr
 - 동영상파일명 : 참가자 이름 (예시. 지구촌.mp4)
- 기타문의 : 외국인주민지원과 지구촌합창단 담당자 031)481-3309

참가자 오디션

- 방 법 : 비대면 면접(자유곡 1곡 녹화 영상 심사)
- 선발기준
 - 다문화가정 아동 우선 선발
 - 가창력 심사
 - 개별 준비한 자유곡으로 음정, 박자, 표현능력 심사
 - 합창단 활동 경력 아동 우대 선발
- 심사위원 : 지구촌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2명
- 결과발표 : 2021. 2. 1. (합격자 개별통보)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집콕 놀이

도시락 수다방

심리 상담

자녀와 함께 신나게 놀아요 ~ '집콕 놀이'
도시락을 먹으며 놀아요 ~ '도시락 수다방'
가사 스트레스로 힘드시죠 ~ '심리 상담'

사업기간 2021년 1월 2일 - 2021년 3월 15일

참여대상 안산시민 누구나
집콕 놀이 5세-8세 자녀가 있는 가정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 중복신청 불가

놀이 전문가와 함께 집콕 놀이	· 자녀 1명, 부모 1명 참여 · 5-6세 (A반) : 2021.1.26/1.28 (2회) · 7-8세 (B반) : 2021.2.2./2.4 (2회) ※ 꾸러미 제공, 실시간 화상원격 (ZOOM) 활용
도시락 수다방	· 소그룹 수다방 운영 (2회) · 1그룹 : 2021.2.16 / 2.18 · 2그룹 : 2021.2.23 / 2.25 · 3그룹 : 2021.3.2 / 3.4 ※ 도시락 제공, 실시간 화상원격 (ZOOM) 활용
심리상담	·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 육아 및 가사 스트레스 관리 심리상담 ※ 3회기 실시간 화상원격(ZOOM) 활용

문의 및 접수 031-599-1709 (이윤정)

아이폰출처 : www.flaticon.com

"외국인주민 포함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흥 발전 위해 노력"

시흥시, '2021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 유튜브 통해 비대면 생중계 진행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4일 '2021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개최하고,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은 5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55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흥시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50만 대도시 시흥의 비전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이 꿈꿔온 자부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7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의 변화와 미래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임 시장은 호조별과 시화호의 역사를 지닌 시흥의 힘을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 시흥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 권한 확대"라며 2022년부터 적용될 행정.재정.조직상의 특례와 이에 따른 시흥시 변화를 소개했다.

#다문화가정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에 대한 시 직접 처리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27→47%)로 약 80억원 추가 예산 확보 ▲부시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 설치 가능 ▲교육지원청과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 위상 강화 등 변화를 통해 맞춤형 도시 개발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무엇보다도 50만 대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공정한 분배와 균형 있는 성장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민생'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50만 대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시흥시는 새로운 50만 시대에도 '민생'을 우선으로 안전과 일자리, 돌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분야는 ▲감염병관리과를 주축으로 한 감염병 확산 방지,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북부권 시흥시 보건소, 남부권 정왕보건지소, 중부권 중부건강생활센터의 권역별 지역 보건시스템 가동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는 ▲올해 2만8,000여 개 일자리 창출로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달성 주력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시 직영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통한 다문화가정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통한 다문화 사업 발굴

미래 비전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도

시'를 표방했다. 그 방안으로 시흥시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과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을 두 축으로 청소년, 청년, 시민의 배움 성장 기반 제공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구축으로 한국형 교육자치 모델 구현 ▲정왕노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어르신,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한 시군별 다문화 사업 발굴 ▲연꽃문화공원, 물왕수변공원, 거모소공원 등 녹지와 호수를 품은 도심 공원 조성 ▲계수저수지에서 은행천, 보통천, 물왕저수지 연결로 명품 수변 경관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흥시는 K-골든코스트를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50만 대도시 도약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흥 웨이브파크' 상반기 중 전면 개장 및 숙박시설 착공,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진행,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흥스마트허브 스마트 산단 추진, 신안산선, 월곡-판교선, 제2경인선 등 전철 사업 신속 추진 등이 50만 대도시 기반조성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임산부 또는 산모에게 1년간 친환경농산물 지원 추진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원하는 농산물 직접 주문 가능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시흥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1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생아 수 3천384명의 50%에 해당하는 1천7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다.

다문화가정 임신부도 물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임산부 1인당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통합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비대면 자격 검증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검증이 완료된 뒤 문자 혹은 이메일로 임신부 고유번호를 지급받아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신청도 진행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출산 후 12개월이 지난 산모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제외되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다문화가족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자.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김영의 기자

비취업 목적의 모든 H-2 비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동포 희소식'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цев: продление виз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С 21 декабря всем держателям виз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будет продлеваться на 1 год.

Немалую часть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составляют держатели визы Н-2: рабочая поездка(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и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данным на август 2020 г по Н-2 в Коре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8272 чел из стран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др.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По данной визе можно находиться в Корее до 3 лет. Виза Н-2 является рабочей визо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закреплен список из 39 отраслей простого труда :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услуги и др, где разрешено работать по данной визе, н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не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пунктом. Т.е можно находиться в Корее, даже если держатель визы Н2 не планирует работать, а заехал с целью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 семьей, учебы,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и др.причинам, не связанных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16 декабря на сайте www.hikorea.go.kr вышло официальное объ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нструкция о разрешен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о визе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соглас-

но данной Инструкции, держатели виз Н-2, у которых истекает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3года и 4года 10мес), и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находиться в Корее не в целях работы, а как было описано выше: посещение семьи и совместное пребывание, уход за детьми, учеба и т.д.-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пребывания. Данная Инструкция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21 декабря. Продлевать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можн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каждый раз на 1 год.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Инструкции "О разрешен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о визе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первый раз буд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штраф, во второй раз- штраф и отказ в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а также ограниче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и получении повторной визы Н-2 до 6месяцев, либо при смене статуса визы Н-2на F-4.

Процедура продления, согласно Инструкции, та же самая, что при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Н-2, только к списку докумен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Пункты для вниман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держателей виз Н-2, с целью, исключающе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Дл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можно позвонить в комплексную инфор-

м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0*12*0 соединение с русскоязычным консультантом).

Подоб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миграцион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внушают большую надежду, что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ет иметь продолжени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е нарушали корейские законы, и миграционные в том числе.

Перевод Инструкци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редоставлен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Номо г. Ансан.

Будьте в курсе последних миграционных законов вместе с репор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Еленой Ким.

지난 12월 21일부터 비취업 목적의 모든 H-2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어권 외국인 대부분은 H-2(방문취업) 비자(2020년 8월 통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구소련에서 온 28,272명이 H-2 비자 등록) 소지자입니다. 이 비자자격은 한국에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H-2 비자는 취업 비자이며 법무부는 이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제조업, 농업, 축산, 서비스 등 39개의 단순 노동 부문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취업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즉, H2 비자 소지자가 취업을 계획이 없고 가족방문과 동거, 학업,

자녀 양육 등 취업과 무관한 사유로 왔더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12월 16일 법무부 웹사이트 www.hikorea.go.kr에는 '취업외 목적' 방문취업 H2비자 동포, 장기체류 허가 안내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문취업 H-2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3년, 4년 10개월)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12월 21일에 발효됐습니다. 체류 기간은 1년마다 여러 번 연장 가능합니다.

'H-2 비자로 동포 장기 체류 허가, 취업 제외 목적' 지시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과태료,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며, 6개월 간 H-2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H-2 비자의 상태를 F-4비자로 변경할 때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방문취업 H-2비자 체류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으로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 절차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정보서비스 1345 (러시아어 상담원 0*12*0 연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러한 출입국법의 변화는 외국동포 지원정책이 계속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이 됩니다. 따라서 동포들은 출입국법을 포함한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한 러시아어 번역은 '너머문화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收入低, 日常生活有困难的话, 请申请生活补助 생계급여 신청해요

基础生活保障、生活补助、赡养义务者的标准大幅放宽。韩国政府将从2021年开始放宽对“老人”、“单亲家庭”、“重残家庭”的基本生活保障、生活补助等抚养义务者的标准。抚养义务人标准是指以申请基础生活保障的承包方的所有家庭成员为对象,考虑父母,子女等1寸直系亲属的财产收入水平。

如果收入过低,生活困难的情况,包括多文化家庭在内的国内人可以要求政府支援生活补助。当时,政府确认了抚养义务人的标准,如果申请者家属的父

母和子女等直系亲属中有财产或收入较高的人,就拒绝支付生活补助。

但随着此次放宽“有老人的家庭”、“单亲家庭”和“残疾人家庭”的抚养义务者标准,父母或子女以财产多为由得不到生活补助支援的事例可能会消失。

根据已放宽的抚养义务者标准,除抚养义务者每年1亿韩元、每月834万韩元以上的高收入者和金融财产外,财产在9亿韩元以上的情况下,不能得到生活费支援。

除此之外,只要满足申请生活费的

人的收入、财产等的标准,就可以获得生活补助。以2021年的标准是能够得到生活补助的中等收入的30%,4人家庭为例是146万2887韩元,3人家庭为119万5185韩元,2口之家的价格为92万6424韩元。

如果自己家人的工资达不到这一标准,可以到邑、面、洞行政福利中心申请生活补助。

如果不清楚自己目前的情况,最好先访问行政福利中心,与负责福利的职员进行咨询。另外,政府将医疗薪金支付在中等收入的40%以下,居住资金在中等

收入的45%以下,教育资金在中等收入的50%以下,即使多文化家庭不能得到生活补助,也可以申请其他补助。

政府计划通过散发宣传物及登载网站等进行积极的宣传,挖掘对象,并让其得到实惠。政府相关人士表示:“期待更多的市民能够得到国民基础生活保障制度的实惠”,“将积极挖掘过去因超过抚养义务者标准等而没有得到支援的低收入层,消除福利死角”。详细内容可向居住地邑面洞行政福利中心进行咨询。

<한글기사 37면> 왕그나 기자

"시흥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

시흥시,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및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 월 10~24만원 지급



시흥시의 2021년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게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시흥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흥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로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늘린다.

시흥시 일자리은행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 연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듬는다.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시흥시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해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요즘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는 등 △주민등록부여 체계가 변경된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관 및 운영되며 화장은 16만원, 봉안은 50만원, 자연장지 160만원, 수목장은 240만원이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도입 및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연계사업 추진으로 배달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다. 또, 건강검진 앱 '만보시루'를 도입했다.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카드형도 도입해 관내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시루앱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다.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체크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이차보전)이 추진되며 보증 규모는 10억 원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최대 2억, 마을.자활기업 최대 1억 원을 보증한다.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되며, 임대기간은 30년이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지원된다. 자립훈련 수당은 20~25

만원, 자격취득수당은 20만원이다.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비대면 간편 배출사업이 도입되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된다.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출산 1년 이내의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달라지는 행정제도

CM송 제작, 홍보 콘텐츠 기획, 브랜드 상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 방안 다양화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기존 점심(11:30~13:30)만 운영하던 푸드타임 운영은 저녁(17:30~19:30) 시간까지 확대한다.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주민참여예산 365일 제안창구 운영 및 올해부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50km/h 이하로 운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도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이 80세 미만 월 7만원

으로 인상된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월 5만원에서 만 0세~2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0만원, 만3세~5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24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주민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 소득수준도 인상돼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 시행하며 △시흥화폐 시루 할인판매 및 가맹점 모바일앱 신청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 지원사업 및 △2021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지표가 시군 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제공률(GSEEK),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추진실적,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 실적으로 변경됐다.

△청소년 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도 기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서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동주택 내 투평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며, 단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김영의 기자

包括外国人在内的京畿道居民2月初人均灾难基本收入10万韩元

京畿道议会, 向京畿道提议...京畿道知事李在明回应说:“将讨论规模、时间。” 2차 재난기본소득

包括京畿道的外国居民在内的所有居民有望在2月11日春节长假前每人获得10万韩元的灾难基本收入。

京畿道议会于1月11日正式向京畿道提出了向所有道民支付第二次灾难基本收入的方案。

对此,京畿道知事李在明在自己的SNS上回复道:“感谢京畿道议会为了道民而做出的深深的苦恼和决断”,“对于是否支付第二次灾难基本所得和规模、对象、时间

等,将从道民和共同体的立场上考虑”。

实际上,政府已经决定向包括外国人在内的全体岛民支付灾难基本所得的方案,只是还没有确定方法而已。

11日下午2时,京畿道议会议长张贤国,副议长陈龙福、文更姬,民主党代表议员朴根哲在京畿道议会举行记者招待会,正式提议向京畿道支付第二次灾难基本收入。

张议长表示:“作为克服新型冠状病毒感染症(新冠病毒)的实质性经济扶持对

策,将要求京畿道迅速支付‘第二次灾难基本收入’。”

第二次灾难基本收入是去年4月支付的第一次灾难基本收入水平,预计将支付道民人均10万韩元。

目前正在讨论同第一次支付一样,通过京畿道地区货币信用卡和信用卡,在春节前的2月初进行支付的方案。

但是,第二次灾难基本收入是否会支付给所有外国居民尚不清楚。

去年,第1次灾难基本收入只支付给了多文化家庭和拥有永久居留权的人等,因此第2次灾难支援金也有可能以类似的形式支付。

但是,京畿道去年曾表示,将中长期研究向所有外国人支付灾难基本收入的方案。

京畿道多文化新闻对此相关信息,确认京畿道的方针后,立即进行补充报道。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记者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01 Ала турган айлыгыңыз (эмгек акыңыз) төлөнүлдүбү?

Айлыкты төлөө мөөнөтүн созуу деген эмне? Белгиленген убакытта (эмгек акысын төлөө күнү) жалдоочу төлөй турган эмгек акыны төлбөгөн учур. Эмгек акыны бир тараптуу түрдө кемитүү (азайтуу), же жумушчунун макулдугун албай, жумушчу жумуштан бошогондон кийин 14 күндүн ичинде, эмгек акысын төлбөгөн учур кошулат.

Эмгек акынын төлөө убактысын созгон учурда, бул маселени төмөндөгүдөй чечесиз. Эмгек акынын төлөө убактысын созгон учурда, өндүрүштү көзөмөлдөгөн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не арыздана аласыз, же болбосо сотко жарандык доо арыз менен кайрыла аласыз. Өндүрүш (иш чарбасы) банкрот болуп калган учурда компенсация * төлөө жөнүндө арыз бере аласыз.

* Компенсация: Өндүрүш банкрот болуп калганда, же башка себептерге байланыштуу жумушчу эмгек акысын албай калган учурда, мамлекет белгиленген ченемдин ичинде баарынан мурун төлөй турган эмгек акы.

Классификация	Арыздануу же сотко кайрылуу	Жарандык доо арыз аркылуу жардам алуу
Процедура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не арыз кагазын бербей даярдоо сотко арыз берип, жалдоочуну кылмыш жазасы менен коркуудан пайда болгон маселени чечүү керек.	Сотко доо арызды бергенде, ал менен бирге мулк камоока алынат ж.б. консервация иш чаралары жүргүзүлөт.
Жакшы жактары	Маселе бат чечилши мүмкүн Чыгым аз, процедурасы жөнөкөй	Эмгек акысын төлөнүшүнүн гарантия берүү үчүн мажбурлоо иштери жүргүзүлүшү мүмкүн. Төлөнүлбөгөн эмгек акысынын төлөнүшү да далил
Кемчилер	Эмгек акыны төлөөгө жалдоочунун мүмкүнчүлүгү жок болгон учурда, маселени чечүү оор болот.	Талап кылынган убакыт жана төлөмү, бир канча көп жана чоң.

02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дуңузбу?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 Жалдоочу каза болгондо эмгек мамилелер жокко чыгарылат, аты жөнү же процедурага карабастан эмгек мамилелер бир тараптан аякталган иш чаралар,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 болуп саналат.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нун чеги Жалдоочу мыйзамдуу себеп жок болгон учурда, өзү гана (бир тараптан) жумушчу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чурда эмгек акынын төлөнүшүнүн чеги жок.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нун себеби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нун себеби өндүрүштүн экономикалык абалы болгон учурда, атап айтканда башкарууда пайда болгон маселелер өндүрүштүн абалынын начарлашынын себептери болгон учурда да, белгиленген шарттарды жана процедураны өтүү керек.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кон учурда, бул маселени төмөндөгүдөй чечүү керек. Өндүрүштөн 5тен көп адам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чурда, жергиликтүү эмгек коргоо комитетине жардам сурап арыздана аласыз.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ы кайра иштегенге ниетиниз жок болгон учурда,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бакыт ченеминдеги эмгек акыны ала аласыз. 5тен аз адам жумуштан адам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чурда, сотко арыз менен кайрылсаңыздар болот.

* Жардам берүү жөнүндөгү арыз: Мыйзамсыз түрдө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соң 3 айдан ичинде жардам берүү жөнүндөгү арызды берүү зарыл.



04 Жумушта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га чалдыккан болсоңуз?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деген эмне? Башка тарапты жыныстык катнашууга мажбурлаган сөздөр жана кылык жорук менен кемсинтүү жана ызаалоо, жумушка алууда ж.б. ар кандай зыян келтирген кылык жорук. Жалдоочу, жогору турган кызматкер жана бирге иштеген жумушчу жумуш ордуна өзүнүн кызмат ордун колдоноп, башка жумушчуга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асаганга, же жалдап туруп кемсинткенге тыюу салынат.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инсанды каршы кылмыш болуп эсептелинет. Жумуштан сырткары өткөрүлгөн корпоратив кечелеринде, шаардын сыртына чыгып эс алуу учурунда болгон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болуп саналат.

* Жумуштан сырткары өткөрүлгөн корпоратив кечелеринде, шаардын сыртына чыгып эс алуу учурунда болгон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болуп саналат.

Төмөндөгү кылык жоруктар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болуп эсептелинет.

- Сөз менен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Адепсиз жана булганыч (бузуку) тамаша сөздөр. Адамдын нийими, денеси, кебете келбетинде жыныстык окшоштуктарды табуу жана баалоо. Жыныстык катнаш жөнүндө суроо берүү, же жыныстык катнашка тийешелүү маалыматты атайы жарыялоо. Корпоратив учурунда, же башка жерде жыныз атууруп алып, аракет берүүнү талап кылуу ж.б. Жыныстык катнашты талап кылуу, же көндүрүүгө багытталган аракеттер. Телефон аркылуу бузуку жана булганыч сөздөрдү айтуу.
- Денеге тийүү аракеттери: Өбүү же кучактоо, арг жагынан кучактоо ж.б. денеге жабыңдаган аракеттер. Көчүк ж.б. жерлерди сыйлапал кармоо аракеттери. Массаж же эрежелүүнү талап кылуу ж.б.
- Көргөзүү аракеттери: Адепсиз фото, сүрөт, жазуу, бузуку жана булганыч басма продуктусун илип коюу, же көрсөтүү. Бузуку жана булганыч кат, сүрөт, фотону түздөн түз берүү, же факс, компьютер аркылуу жиберүү. Адамдын денесин атайын ачуу, же сыйлапоо. Адамдын денесин тиктеп кароо, же изилдеп кароо.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га чалдыккан убакта төмөндөгүдөй иш аракеттерди жасаңыз! Бузуку адамга каршылыкты так даана билдириниз, көрсөтүңүз.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күнү, сааты, болгон жер, айың мазмуну, күбө же өз көзү менен көргөн ишиңизди көрсөтмөсү, сөз менен асылуу иш аракеттерин жасап жаткан убактыга сезимдер ж.б маалымат жазуу түрүндө болуу зарыл. Жумуштагы башкамага консультация ж.б. иштерди жасап берүүнү токтотууну талап кылуу. Жергиликтүү эмгек коргоо мекемесинен консультация алуу жана арыз жазу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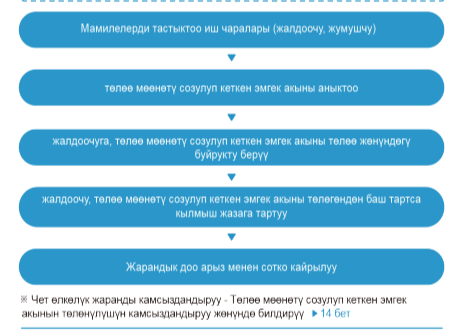
* Эмгек коргоо министрлиги,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өнүндө жашыруун билдирүү борбору (www.moeil.go.kr) Интернет үй баракчасы- жарандык арыз-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өнүндөгү жашыруун билдирүү баракчасы.

03 Жумуш иштеп жаткан кезде жаракат болдуңузбу?

Төмөндөгү көрсөтүлгөн документтер керек болот Өндүрүштүн (иш чарбанын) адреси, катташуу маалыматтары, жалдоочунун аты жөнү ж.б. өндүрүштө тийешеси бар маалымат. Эмгек келишими, эмгек акы төлөнүшүн деталдуу баяндамасы, эмгек акы төлөө аманат китепчеси. Бирге иштеген күбөнүн көрсөтмөлөрү, жумуш убактысы жөнүндөгү жазылган маалымат ж.б.

Жардам берүү процедурасы төмөндөгүдөй.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не арыздануу процедурасы (арыздануу же сотко кайрылуу).

* Арыздануу: Төлөө мөөнөтү созулуп жаткан эмгек акынын төлөнүшүн талап кылуу. * Сотко кайрылуу: Жалдоочуну Эмгек Кодексине жараша жазалоону талап кылуу.



04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 деген эмне? Жумушчу жумушка байланыштуу жумушту жасап жаткан учурда, жана башка жумуш милдеттерин аткарууда өлүмгө дуушар болуп калганы, жаракат алганы, же оорула чалдыкканы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 болуп эсептелинет.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а чалдыккандан 4 күндөн көп убакыт даарылоо зарыл болгон учурда, же өлүмгө дуушар болгон учурда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тан камсыздандыруу фондусунан компенсация ала аласыз.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тан камсыздандыруу жөлөкүлдүн түрлөрү төмөндөгүдөй көрсөтүлгөн.

Камсыздандыруу жөлөкүл түрлөрү	Компенсация
Эс алуу жана ден соолукту чыңдоо үчүн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а чалдыккан адам толугу менен даарыланганга чейин, медициналык чыгымдар төлөнүлөт.
Эмгекке жараксыз болгон жаранга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Даарыланып жаткандыктан иштей албай калган учурда, тиричиликти камсыздандыруу максатында жөлөкүл төлөнүлөт.
Майып болуп калган жаранга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а чалдыккандан кийин даарыланган жаран, майып болуп калган учурда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Жеке медициналык тейлөөгө сарпталган жөлөкүл	Даарылануу аяктаган соң,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а чалдыккан жумушчу жеке медициналык тейлөө керек болгон учурда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Мураскерлерге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Жумушчу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а чалдыгып каза тапкан учурда, мураскерлердин жашоосуна кам көрүү максатында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Сөөк коюуга сарпталган жөлөкүл	Өндүрүштөгү бөөдө кырыска чалдыгып каза тапкан жумушчунун сөөгүн коюуга керек болгон чыгым төлөнүлөт.
Жаракат алган кезде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Дарылоо башталгандан соң 2 жыл ичинде толугу менен сакталган учурда, убактылуу эмгекке жараксыздык жөлөкүлдүн ордуна төлөнүүчү жөлөкүл.

04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Денеге тийүү аракеттери Өбүү же кучактоо, арг жагынан кучактоо ж.б. денеге жабыңдаган аракеттер. Көчүк ж.б. жерлерди сыйлапал кармоо аракеттери. Массаж же эрежелүүнү талап кылуу ж.б.

Көргөзүү аракеттери Адепсиз фото, сүрөт, жазуу, бузуку жана булганыч басма продуктусун илип коюу, же көрсөтүү. Бузуку жана булганыч кат, сүрөт, фотону түздөн түз берүү, же факс, компьютер аркылуу жиберүү. Адамдын денесин атайын ачуу, же сыйлапоо. Адамдын денесин тиктеп кароо, же изилдеп кароо.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га чалдыккан убакта төмөндөгүдөй иш аракеттерди жасаңыз! Бузуку адамга каршылыкты так даана билдириниз, көрсөтүңүз.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күнү, сааты, болгон жер, айың мазмуну, күбө же өз көзү менен көргөн ишиңизди көрсөтмөсү, сөз менен асылуу иш аракеттерин жасап жаткан убактыга сезимдер ж.б маалымат жазуу түрүндө болуу зарыл. Жумуштагы башкамага консультация ж.б. иштерди жасап берүүнү токтотууну талап кылуу. Жергиликтүү эмгек коргоо мекемесинен консультация алуу жана арыз жазуу.

* Эмгек коргоо министрлиги,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өнүндө жашыруун билдирүү борбору (www.moeil.go.kr) Интернет үй баракчасы- жарандык арыз-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өнүндөгү жашыруун билдирүү баракчасы.

02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дуңузб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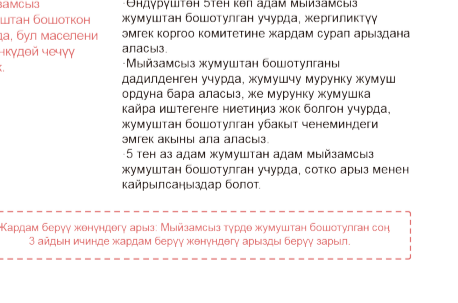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 Жалдоочу каза болгондо эмгек мамилелер жокко чыгарылат, аты жөнү же процедурага карабастан эмгек мамилелер бир тараптан аякталган иш чаралар,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 болуп саналат.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нун чеги Жалдоочу мыйзамдуу себеп жок болгон учурда, өзү гана (бир тараптан) жумушчу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чурда эмгек акынын төлөнүшүнүн чеги жок.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нун себеби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унун себеби өндүрүштүн экономикалык абалы болгон учурда, атап айтканда башкарууда пайда болгон маселелер өндүрүштүн абалынын начарлашынын себептери болгон учурда да, белгиленген шарттарды жана процедураны өтүү керек.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кон учурда, бул маселени төмөндөгүдөй чечүү керек. Өндүрүштөн 5тен көп адам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чурда, жергиликтүү эмгек коргоо комитетине жардам сурап арыздана аласыз.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ы кайра иштегенге ниетиниз жок болгон учурда,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бакыт ченеминдеги эмгек акыны ала аласыз. 5тен аз адам жумуштан адам мыйзамсыз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учурда, сотко арыз менен кайрылсаңыздар болот.

* Жардам берүү жөнүндөгү арыз: Мыйзамсыз түрдө жумуштан бошотулган соң 3 айдан ичинде жардам берүү жөнүндөгү арызды берүү зарыл.



04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Денеге тийүү аракеттери Өбүү же кучактоо, арг жагынан кучактоо ж.б. денеге жабыңдаган аракеттер. Көчүк ж.б. жерлерди сыйлапал кармоо аракеттери. Массаж же эрежелүүнү талап кылуу ж.б.

Көргөзүү аракеттери Адепсиз фото, сүрөт, жазуу, бузуку жана булганыч басма продуктусун илип коюу, же көрсөтүү. Бузуку жана булганыч кат, сүрөт, фотону түздөн түз берүү, же факс, компьютер аркылуу жиберүү. Адамдын денесин атайын ачуу, же сыйлапоо. Адамдын денесин тиктеп кароо, же изилдеп кароо.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га чалдыккан убакта төмөндөгүдөй иш аракеттерди жасаңыз! Бузуку адамга каршылыкты так даана билдириниз, көрсөтүңүз.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күнү, сааты, болгон жер, айың мазмуну, күбө же өз көзү менен көргөн ишиңизди көрсөтмөсү, сөз менен асылуу иш аракеттерин жасап жаткан убактыга сезимдер ж.б маалымат жазуу түрүндө болуу зарыл. Жумуштагы башкамага консультация ж.б. иштерди жасап берүүнү токтотууну талап кылуу. Жергиликтүү эмгек коргоо мекемесинен консультация алуу жана арыз жазуу.

* Эмгек коргоо министрлиги,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өнүндө жашыруун билдирүү борбору (www.moeil.go.kr) Интернет үй баракчасы- жарандык арыз- жумуштагы жыныстык асылуу жөнүндөгү жашыруун билдирүү баракчасы.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Helping out-of-school Youth Dream(Kkum Dream)

Kkum Dream (031-404-1318/070-7477-1318)

- **Eligible for Support**
 - Youths aged 9 to 24
 - Teenagers who have been absent or suspended from school for more than three months after enter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 Teenagers who have been re-enrolled or dropped out of high school.
 - Teenagers who didn't go to high school
 - Teenagers who are considering dropping out
- **Support Details** :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out-of-school youth, such as counseling, psychological testing, mentoring, etc.

Self-reliance support service for single-parent families for teenagers

Customized Welfare Team at each 'Dong (community)'s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 **Eligible for Support** : single parents under 24 years of age, a person whose income is less than 60% median income.
- **Support Details**
 - (Children's Child Care Expenses) 350,000 won per month per child
 - (Education Expenses) Cost for studying for the qualification exam (within 1,540,000 won per year) and school supplies (5,100 won per child)
 - (Self-support Expenses) Within 100,000 won a month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Don't give up on your studies.

Dongbang Nuri School(031-656-3472)
Holt Goun School(031-216-9004)

- **Eligible for Support** : Teenagers who are re-enrolled and have difficulty going to school due to pregnancy
- **Application Method** : Fill out application form and recommendation form from existing school and submit it to alternative school



Youth Scholarship Support

Section	Topic
Siheung City Educational Youth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 031-311-6590, 11 Sorae Mountain Road Gyeonggi/Siheung-si • (home page) https://www.sheyfund.or.kr • (major project) Siheu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udents, Talented Scholars, Siheung Industrial Park Students, Multiple-child Household Students, etc.
Blue Lighthous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 1599-2000, 125 Sinam-ro, Daegu/Donggu • (home page) http://www.kosaf.go.kr • (major projects) income-linked scholarships, state scholarships, donations, student loans, etc.
KT&G Scholarship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19F, KT&G Tower) 416 Daechi-dong Seoul/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 (home page) 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major projects) Top Student Scholarship (middle/high school/university/top students), students with specialization(experience in art, highest award, RESTART)
Dream* Samsung Dreams Scholarship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 02-727-5400, 20F Gateway Tower, 107 Huam-ro, Seoul/Yongsan-gu • (home page) https://www.sdream.or.kr/main • (major projects) Mentoring dream scholarship project, leader training and growth study project, learning center education support, global scholarship project, etc.
Shinhan Scholarship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 02-6360-3137, 20 Sejong Main Road, Jung-gu, Seoul • (home page) http://www.shsf.or.kr • (major projects) general scholarship (middle and high school/college student), pure merit child general scholarship (children of police, fire officer, maritime police who died while on duty)
STX Scholarship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 02-2271-9360, 8F 156 Mareunae-ro Jung-gu Seoul • (home page) http://www.stxfoundation.or.kr • (major projects) domestic scholarship project (for student expected to be promoted to the third grade of a four-year university in Korea)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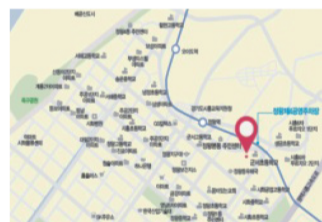
Siheung City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http://shcity.familynet.or.kr>

Homepage View



Directions to Siheung City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eung-geok Branch



Siheung City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Center's Director** : Kang Eun-ee
- **Staff Members** : 1 Center's Director, 1 Secretary General, 7 Teams
 - Education Team, Cultural Community Team, Family Empowerment Enhancement Team, Cooperative Child Care Support Team, Child Care Support Team, Neungeok Branch Team, Operations Support Team
- **Location**
 - (Main Branch) 449th Street, 51 Jeongwang Cheonso-ro, Siheung-si, Gyeonggi-do (Postal 15052) (☎ 031-317-4522)
 - (Branch Office) 59th Street, 1 Seungji-ro, Siheung-si, Gyeonggi-d (Postal 14995) (☎ 031-432-7994)
- **Main Services**
 - Support for Korean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Conducts Korean Language Education
 - Support for school meals during the semester (vacation) for low-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and vulnerable children
 - Support for marriage immigrants' interpretation/translation services
 - Family Education/Counseling, Family Care Sharing Culture, Child Care Support, Vulnerable Family Support, etc.

Siheung Foreign Welfare Center

<Http://www.shmwc.or.kr>

Homepage View



Directions to Siheung City Foreign Welfare Center



Jeong-wang Branch



Siheung Foreign Welfare Center

031-434-0411

- **Center's Director** : Lee Joong-kyo (Social Welfare Corporation Roman Catholic Diocese of Suwon Social Welfare Society)
- **Staff Members** : 1 Center's Director, 1 Secretary General, 7 Social Welfare Member Education Team, Cultural Community Team, Family Competence Reinforcement Team, Joint Child Care Support Team, Child Care Support Team, Neungggok Branch Team, Operation Support Team
- **Location**
 - (Main Office) 259th Street, 5 Main Road Industrial Complex, Siheung-si, Gyeonggi-do (Postal 15052)
 - (Branch Office) 50th Street, 6-1 Gunso-ro, Siheung-si, Gyeonggi-do (Postal 15052)
- **Contact** : 031-317-4522,4524
- **Main Services**
 -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ational youth school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education, etc.
 - (Welfare) Support for Community by Country (Friendship promotion)
 - (Advice) Communication problems, counseling (such as overdue wages) and rest areas for foreign workers
 - (Culture, etc.) Summer camp, cultural club, World People's Day,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etc.



▲왼쪽부터 박춘호 의회의장, 임병택 시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큰솔공원(정왕동 1512)에 인근 외국인 주거 비율이 높은 정왕동의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월드’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mom편한 놀이터’ 15호점을 오픈했다.

‘mom편한 놀이터’ 15호점은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난 14일 개소식을 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박춘호 시흥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mom편한 놀이터’ 15호점에는 ▲글로벌월드 조합놀이대 ▲앙코르와트 파고라 ▲세계여행 배흔들놀이 등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를 적용한 시설을 설치해 지역 아동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시설물 이외에도 휴식공간을 위한 포토존 벤치와 음수전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도 조성했다. 시흥

시는 글로벌 월드라는 특색에 맞게 국적에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커뮤니티형 놀이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이 함께하는 공간, ‘mom편한 놀이터’를 시흥에 오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롯데그룹 사회공헌사업의 목적대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간 또는 아이들끼리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om편한 놀이터’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착안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해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김영의 기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모집

취업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의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자.

시흥시의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자산이 3억 원 미만인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흥시민 중 취업취약 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흥종합일자리센터와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주말 제외) 위와 동일한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京畿道民に2月初旬、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の災難基本所得

京畿道議會、京畿道に提案 ...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回答 “規模、時期を検討する”

京畿道道民に旧正月の連休前の2月初旬に、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の災難基本所得が支給されると見られる。

京畿道議會は1月11日に道民に2次災難基本所得を支給する法案を京畿道に公式要請した。

これに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が自身のSNSに、“道民を思う京畿道議會の政策決断に感謝する”とし、“2次災難基本所得支給可否と規模、対象、時期などを道民と共同體の立場から熟考して決定する”と明らかにし

た。方法はまだ決定していないが、災難基本所得金支給案は實質的に決定したとみるべきだろう。

11日午後2時、チャン・ヒョングク京畿道議會議長とチン・ヨンボク、ムン・ギョンヒ副議長、パク・グン Chol 共に民主党代表議員は、京畿道議會で記者會見を開き、京畿道に第2次災難基本所得支給を公式提案した。

チャン議長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コロナ19)克服をめざす實質

的景氣浮揚策として、‘2次災難基本所得’の迅速支給を京畿道に要請する”と明らかにした。

2次災難基本所得は、昨年4月に支給された1次災難基本所得水準で道民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とみられる。

1次支給時と同じく京畿地域貨幣カードか信用カードに、旧正月の前の2月の初旬に支給される案が検討されている。

しかし2次災難基本所得がすべての外國人住民に支給されるかは不透

明だ。1次災難基本所得は結婚移民者と永住權者にのみ支給されたため、2次災難支援助金もこれと同等の支給となる可能性がある。

しかし京畿道は昨年すべての外國人に災難基本所得を支給する案を中長期的に検討するとしている。

京畿多文化ニュースはこれに関連して、京畿道の方針が確認され次第、追伸記事を発信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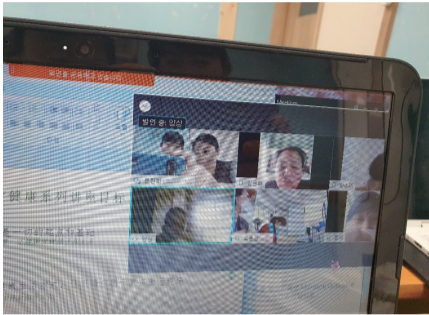
ソン・ハソン記者

<한글 기사 1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아이와 함께 이중언어로 재미있게 배워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아로마테라피'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취학 전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가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아로마테라피'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활동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이 이뤄졌으며, 참여한 대상

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경험 나눔으로 부모-자녀 간 소통을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두 개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는 강점을 가진 자녀들이 엄마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센터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의 향기 아로마오일 체험을 통해 가정의 안정화 및 건강화를 조성하고 자녀들의 엄마 모국어 일상용어 사용 빈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로마테라피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강의실에서 웹엑스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선착순 10가정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은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코칭, 부모자녀상호작용교육,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부천시가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 바우처)을 발급하여 원하는 서비스 및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2021년 부천시에서 모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등 7개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170% 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 건강보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2-320-3000 이지은 기자

Если из-за низкого дохода вы испытываете трудност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одайте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о поводу надлежущ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обратитесь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в 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и, критерии для ли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значительно смягчены.

Начиная с 2021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мягчит критерии для следующих категорий лиц: «пожилые люди», «неполные семьи» и «семья инвалидов тяжелой степени»,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а поддержка, а именно по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и.

Критерии для ли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это рассмотрение уровня имущественного дохода прямых кровн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ключая родителей и детей, всех членов домохозяйств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Если по причине слишком низкого д

хода, есть трудност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о наряду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и семьями и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могут за просить 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держку для покрытия расходов на проживание.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ряло критерии ли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и если существовал и кровные члены семьи заявителя, такие как родители или дети с большим состоянием или доходом, то тогда было отказано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Однако на этот раз, поскольку критерии для: «семей с престарелыми», «неполных семей» и «домохозяйств с инвалидами», были смягчены,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чти не будет семей, которые не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из-за того что родители или дети имеют большое состояние.

Согласно смягченным критериям лиц,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по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олько тем, у ког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дохода 100млн. вон в год и 8.340.000вон в месяц, ил

и владеющие имуществом, исключая финансовые активы, в размере более 9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аким критериям, как доход и имущество, заявитель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1 год 30% средних доход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составляет 1.462.887 вон для семьи из 4 человек и 1.195.185 вон для семьи из 3 человек. Для семьи из двух человек составляет 926.424 вон.

Если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ашей семьи не превышает данного стандарта, можно посетить 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рай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Если вы не уверены в своей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лучше посетить 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работником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 тем,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плачивает медицинское пособие в разм

ере до 40%, жилищное пособие в размере до 45% и пособие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азмере до 50%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даже если они не получают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могут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на другие пособ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 счет актив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повещений и размещения на веб-сайте, планирует уведомить новых получателей пособ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Один из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сказал: «Я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больше граждан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азовой системе обеспечени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Мы будем актив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которые в прошлом не получали пособия из-за превышения критериев, и это позволит устранить "слепую зону"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бращайтесь в 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рай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 месту вашего проживания.

<한글 기사 37면>

장울가 기자

Доставка еды и продуктов 한국의 빠른 음식 배달에 대해

코로나 시대, 배달 회사간 경쟁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한국의 배달 서비스

Одно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удобств, доступных в Корее - быстрая, качественная доставка еды. Практически любой ресторан или кофейня работают на доставку,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озвонить не 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общепит или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ние, вписать свой адрес, оплатить и подождать, пока быстрый "педальщик" доставит вам вкуснятину до двери.

Самые известные приложения: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Принцип везде одинаковый, но последний вариант - самый быстрый, причина (по моим предположениям) - курьер ждет ед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месте, а не наоборот.

В свете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когда люди опасаются лишний раз выйти из дома даже в супермаркет, становится широко популярна доставка продуктов.

В том же приложении 배달의민족 есть отдел B마트, где можно заказать продукты из ближайших магазинчиков, доста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течение часа и возможна 24 часа в сутки.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уммы заказа: 5,000~10,000 - 2,500 вон, 10,000~20,000 - 1,500 вон, свыше 20,000 вон доставка бесплатная.

Минимальная сумма заказа - 5,000 вон. Зона покрытия - пока только Сеул.마켓컬리 - одни из пионеров в сфере доставки продуктов.

При заказе до 11 часов вечера можете ожидать свою коробку с вкусным содержимым до 7 часов утра. Заказы возможны ежедневно без выходных.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 3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свыше 40,000 вон доставка бесплатная.

Зона покрытия сервиса - Сеул, Инчон, Кёнгидо. Во все остальные регионы кроме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х возможна доставка почто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6 раз в неделю (кроме воскресенья и официальных выходных), при заказе до 8 часов вечера доставка происходит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аналогична со стоимостью срочных заказов - 3000 вон, при заказе свыше 40,000 вон доставка бесплатная.

В приложении 쿠팡 есть отдел 로켓프레쉬, при заказе до 12 часов доста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о 7 утра, при заказе до 10 утра - посылка будет ждать вас у двери до 6 часов вечера того же дня.

Фишка в том, что можно выбрать упаковку: обычная картонная коробка или специальная упаковка многоразов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торую при вашем следующем заказе забирает посыльный.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бесплатная, минимальная сумма заказа - 15,000 вон.

Зона покрытия - Сеул, Инчон, Кёнгидо, н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дукта, вернее его наличия на ближайшем складе, доставка может быть ограничена.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авки в ваш район необходимо добавить продукт в корзину.

Цены в целом в приложениях и в супермаркетах примерно одинаковы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езопаснее и выгоднее выходить из дома как можно реже,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доставка выручает на все сто.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편리한 서비스 중 하나는 빠르면서 질이 높은 음식 배달이다.

거의 모든 식당이나 커피숍이 음식을 배달한다. 배달 주문을 하려면 직접 식당에 전화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주소를 입력한 뒤 선결제를 한 다음 배달아저씨가 문까지 맛있는 것을 배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한국에서 음식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앱은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이다. 모든 앱이 빠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배달 앱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이제 어떤 서비스는 배달 아저씨가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배달하기도 한다.

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까지도 식품 배달이 널리 퍼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는 B마트가 있어 인근 상점에서 상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배송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배송비는 주문 금액에 따라 다르다. 5,000~10,000원을 주문하면 배송비는 2,500원, 10,000~20,000원을 주문하면 배송비가 1,500원, 20,000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다. 최소 주문 금액은 5,000원이다.

마켓컬리는 식품 배달의 선구자 중 하나다. 오후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맛있는 식품이 담긴 박스를 기대할 수 있다.

주문은 연중 무휴로 가능하며 배송비는 3,000원이다. 40,000원 이상 주문시 배송비는 무료이다.

서비스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이다. 제외된 기타 지역은 우편 배송이 가능하며 주 6회(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후 8시 이전 주문시 다음날 배송된다. 배송비는 3,000원으로 동일하며, 40,000원 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된다.

쿠팡 응용 프로그램에는 로켓배송이 있어 밤 12시 이전 주문시 오전 7시까지 배송이 이루어지며 오전 10시까지 주문시 당일 오후 6시까지 택배가 문앞에 대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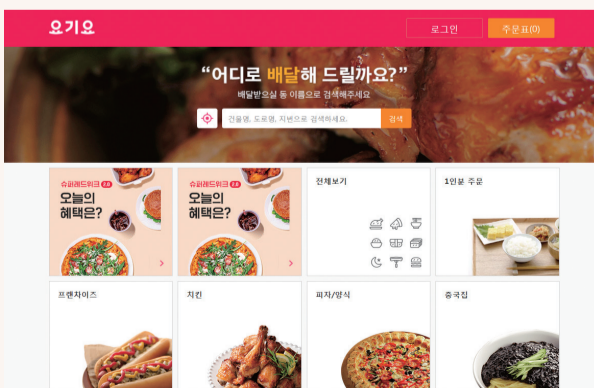
포장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일반 상자(박스) 이외 특수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선택하면 택배기사가 다음 주문시 그 재활용 포장을 가지고 간다.

배송비는 무료이며 최소 주문 금액은 15,000원이다.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이다. 상품에 따라 또는 가까운 창고의 재고 여부에 따라 배송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지역 배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앱과 슈퍼마켓의 가격은 거의 같다.

최근에는 가능한 한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경우 배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송내동 마을라디오 ‘께네마 라디오’, 문화다양성을 말하다”

한국, 일본 청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문화공연 멘토단 ‘아프리카 댄스’로 공동체 회복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문화예술기획단 ‘께네마’는 아프리카 댄스로 함께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 모임이다. 4년 전 ‘춤추고 노래하는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 음악가들과 아프리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국, 일본 청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문화공연 멘토단인 ‘께네마’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해왔다.

께네마 조운령 대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는 “청년들과 문화예술기획단을 만들면서 지역에서 공연도 하고 청소년 문화공연 멘토단으로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카톡으로만 소통할 수밖에 없어 활동들이 멈추었다”고 설명했다.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만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도 휴관에 들어갔다. 만남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활동도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다들 답답해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한 채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께네마 라디오’는 코로나 속 만남과 소통을 고민하는 단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출신 이주여성인 아끼코 씨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머리를 맞댔다.

‘께네마 라디오’는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유튜브, 라디오로 문화예술을 하는 이들과 만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우리는 서아프리카 음악 등을 하는 청년들이 있으니 라오로 음악을 들려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단절을 딛고 소통에 나서다

단원들은 ‘코로나 시대, 께네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솔한 만남과 고민을 통해 라디오와 유튜브로

마을 속에서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갔다. 팟캐스트를 들으며 틀을 짜고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찍어 8월부터 업로드를 시작했다.

“께네마의 문화기반이 서아프리카고, 라디오를 준비한 이들 중 3명이 서아프리카를 같이 다녀온 청년들이라 보니 ‘성찰’과 ‘도전’을 이야기하는 라디오로 시작하게 됐어요.”

조 대표는 “처음 준비할 땐 한 회에 20회~50회 정도 조회 수가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한 회당 500회가 넘는 만큼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께네마 라디오는 매주 기획회의와 녹음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올린다. 이야기거리를 조사하고 나누는 기획회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기획회의 자체를 녹음해 올리기도 했다. 7화를 찍고 함께했던 2명이 군데에 가며 조운령 대표도 자연스럽게 라디오에 합류했다.

현재는 대만에 갔던 단원이 돌아오면서 6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음악은 저작권 문제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예술강사인 아미두 디아바테의 자작곡과 서아프리카 민요를 사용한다.

“께네마 라디오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서아프리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을 플랫폼+문화다양성을 품다

께네마 라디오의 이야기는 개인과 마을, 부천의 이야기를 담으며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속 소통의 고민은 희망의 메시지로, 삶에 대한 고민과 아프리카 음악과 춤으로, 청소년의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생태 다양성, 문화다양성 등으로 확장되며 그만큼 다양해졌다.

조 대표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디오에 나오고 싶다고 제안하며 부천문화재단 문화다양성사업과도 연결됐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만들었지만, 송내동 플랫폼이 돼 마을과 그 속에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 듣고 싶던 께네마 라디오에선 반가운 제안이었다. 아이들이 나와 노래도 부르고 프로젝트 소개도 하며 께네마 라디오는 마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내디뎠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으로 부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께네마 라디오는 기획회의를 통해 5부작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화다양성의 정의와 다름과 차이에 대해 각자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1부작을 시작으로 2~4부는 문화다양성으로 이주민과 장애인의 삶 등 다양한 이들을 초청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라디오로 한걸음 가까이, 마을공동체

께네마 라디오는 정해진 틀 없이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부천에 사는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하며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 대표는 “라디오를 고민하며 ‘우리에게 성찰, 수다, 지식 등은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을 통해 소중한 가치를 꺼내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께네마 라디오는 앞으로도 마을 플랫폼으로 청소년, 아이들, 엄마, 장애인 부모, 이주민 등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인 송내동에서 시작해 부천,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까지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취자들의 이야기도 듣는 소통의 창’을 꿈꾸는 께네마 라디오는 서아프리카의 문화예술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깨달음과 돌아봄의 과정이자 공동체를 회복하는 청년들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다.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김영의 기자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사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ชาวคยองกี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สนอ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 100,000 วอนต่อคนให้จังหวัด Gyeonggi-do ในต้นเดือน ...กุมภาพันธ์ ข้อเสนอถึง Gyeonggi...คำตอบของ Lee Jae-myung 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Gyeonggi-do " พิจารณาและเวลา"

คาดว่า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จังหวัด Gyeonggi-do จะได้รับ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 100,000 วอน ต่อคนก่อนในวันหยุดปีใหม่ ในวันที่ 11 กุมภาพันธ์ เมื่อวันที่ 11 มกราคม สภา Gyeonggi-do ได้ยื่นคำร้อง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

ไปยังจังหวัด Gyeonggi-do สำหรับแผนการจ่าย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ที่สองให้กับผู้อยู่อาศัยทุกคน Lee Jae-myung ผู้ว่าการ Gyeonggi-do ได้โพสต์ใน SNS ของเขา "ฉันรู้สึก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อย่างลึกซึ้ง

และความมุ่งมั่นของสภาจังหวัด Gyeonggi-do เพื่อประชาชน" เขากล่าว "ฉันจะพิจารณาจากมุมมองของพลเมืองและชุมชน

ชนว่าขนาดเป้าหมาย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ครั้งที่ 2 จะได้รับหรือไม่"

ไม่ได้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เฉพาะวิธีการนี้แต่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

แผนการจ่าย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ให้กับ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ด้วย

เมื่อเวลา 14.00 น. ของวันที่ 11 Jang Hyeon-guk ประธานสภาคยองกีโด รองประธาน Jin Yong-bok และ Moon Kyung-hee ,Park Geun-cheol ตัวแทนของ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ได้จัดงานแถลงข่าวที่การประชุม Gyeonggi-do และเสนอการจ่ายเงิน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ครั้งที่สองให้กับคยองกีโด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

ประธานจางกล่าวว่า "ในฐานะมาตรการ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ในทางปฏิบัติเพื่อเอาชนะการ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สายพันธุ์ใหม่ (โคโรนา 19) เราขอให้ Gyeonggi-do จ่าย" 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 ในทันที"

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คือระดับของ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ครั้งแรกที่จ่าย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ปีที่แล้ว คาดว่าจะจ่าย

100,000 วอนต่อผู้อยู่อาศัย เช่นเดียวกั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

ครั้งแรกจะ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แผน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ผ่านบัตร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ของ

Gyeonggi-do ในช่วงต้น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ก่อนวันหยุดปีใหม่ทางจันทรคติ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ยังไม่เป็นที่ชัดเจนว่าจะจ่าย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จาก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งหมด ปีที่แล้วรายได้พื้นฐานหลักจากภัยพิบัติจะจ่ายให้กั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ผู้อยู่อาศัยถาวรเท่านั้นดังนั้นจึง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จ่ายเงิน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ในรูปแบบที่คล้ายกั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เมื่อปีที่แล้วว่า จะทบทวนแผนการจ่าย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งหมดในระยะกลางถึงระยะยาว

Gyeonggi Multicultural News มีแผนจะเขียนบทความเพิ่มเติมทันทีที่นโยบายของจังหวัด Gyeonggi-do 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 <한글 기사 1면>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размере 1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для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се граждане, в том числе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Кёнгидо,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размере 1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до 11 февраля,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11 января парламент Кёнгидо обратился с официальным запросом о плане выплат второго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сем жителям Кёнгид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го Ли Чжэ Мён сообщил на личной странице в соцсети: «Спасибо за глубокие пережива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гражданам и за решимость Парламенту Кёнгидо». «По поводу соответствия и масштабов, получающих лиц и сроков, касающихся выплат Вторичного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раждан и общества»- отв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данным заявлением.

Только метод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ен, но план выплат основн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сем гражданам,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был фактически принят.

11 числа в 14:00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Кёнгидо Тянь Хён Гук,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Чжин Ён Бок и Мун Кён Х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Пак Гын Чхоль провели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в парламенте Кёнгидо и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ложили проект выплат второго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Тянь сказал: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rona 19), в качестве практической ме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мы просим Кёнгид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начать выплаты «Второго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 по Кёнгидо».

Вторичный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на таком же уровне что и первый, который был выплачен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по 100.000

вон на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План выплат, как и в случае первых выплат,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а карту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Кёнгидо(경기지역화폐) и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до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днако пока неясна ситуация: будет ли выплачиваться вторичный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сем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ервый базовый доход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ыплачивался тольк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и лицам с ПМЖ, поэтому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выплаты вторичного пос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в аналогичной форме.

Однако было сообщено о то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ёнгидо пересматривало планы выплат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сем иностранцам, проживающим как в течении среднего так и короткого сроков(한글 기사 1면)

В газет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новости Кёнгидо как только будет подтверждена политика Кёнгидо, касающаяся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будут напечат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татьи. 장울가 기자



외국인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 현웅이의 행복 나누기

부천시주민지원센터에 부천시민 박경조, 박현웅父子가 과자 후원

사단법인 부천시주민지원센터(이사장 임영담, 센터장 손인환)에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연말연시 후원이 감소하며 안타까움을 느끼던 부천시주민지원센터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박경조, 박현웅 부자가 후원의 손길을 보내왔다.

순천제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현웅 군은 "평소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보다 더욱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군대 제대 후 부천시주민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보았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

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의 도움으로 과자를 후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인환 부천시주민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웅 군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신 부천노총 박종현 의장님과 아버지 박경조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라며 "박경조, 박현웅 부자 덕분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이날 후원품 전달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천노총 박종현 의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추운 겨울, 혹시라도 배고파하고 있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타

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부천시에 살아가는 우리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후원이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응원하였다. 전달식에는 손인환 부천시주민지원센터 센터장,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후원자 박경조, 박현웅 부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사)부천시주민지원센터는 부천시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외국인주민 조기 정착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의 기자

추운 겨울, 집에서 방콕 인형극 즐겨요



부천시 상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온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함께 볼 수 있는 온라인 인형극을 운영한다.

이번에 방영할 공연은 인형극과 뮤지컬을 혼합한 복합극 '토끼의 재판'이다.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착한 돌쇠를 되려 잡아먹으려는 배은망덕한 호랑이를 보고 지나가던 토끼가 재판을 벌이는 과정을 그렸다.

바깥 날들이 어려운 요즘 따뜻한 집안에서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하호호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주말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토끼의 재판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 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문화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도 알아야 할 2021년 부천시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부천시, 복지 교육 보건 등 달라지는 7대 분야 28개 주요 제도 시책 발표



부천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는 7대 분야 28개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용해보자.

#일반행정 분야

2021년부터는 집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도시주택 분야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촘촘하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다.

#복지 분야

부천시에 아동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가 완화돼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 분야

부천 관내 디지털역량센터에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교육부터 인 미디어(유튜버), 3D 프린트 등 중급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

#보건 분야

2021년부터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이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식품접객영업자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रोजगारी तथा श्रम
263

05 प्रसुति पहिले वा पछिको मातृत्व बिदा तथा बाल रेखदेख बिदा

गर्भवती भएको अवस्थामा तपाईं बच्चा जन्मनुअघि र पछिको बिदाको लागि योग्य हुनु हुनेछ । तपाईंले 8 वर्षभन्दा कम उमेरका द्वितीय श्रेणीका बालबच्चाहरूको पालन पोषणको लागि बाल-देखरेख बिदा प्रणाली (शिशु हेरचाहको बेला काम गर्ने समयमा कटौति)को पनि उपयोग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1. प्रसुति पहिले वा पछिको मातृत्व विदा

(1) औद्योगिक

श्रम मापदण्ड कानूनले नियमन गरेको व्यवसायमा एक वर्ष भन्दा धेरै काम गरेका महिला कर्मचारीहरूले जस्तोसुकै श्रम करार (स्थायी जागिर, अस्थायी जागिर, आदि) गरेका भए पनि यो बिदा माग तथा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छन् ।

(2) बिदाको अवधि

- प्रसूतिमा कुनै समस्या नभएको अवस्थामा कर्मचारीले दिन देखि 90 दिन सम्मको बिदा पाउनेछन् ।
- कर्मचारीले बच्चा जन्मिएपछि 45 वा 45 भन्दा धेरै दिन सम्म बिदा प्रयोग गर्न पाउनेछन् ।
 - ※ प्रसव अघि 44 दिनको मातृत्व बिदालाई निम्न अवस्थामा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न्छ: ① कर्मचारीको गर्भपात वा मृतजन्मको बिदाको मामलामा, ② कर्मचारीको उमेर 40 वर्षभन्दा बढी छ भने। ③ कर्मचारीले गर्भपात वा मृतजन्मको चिकित्सा रेकर्डको प्रतिलिपि पेश गर्नु पर्ने।
- केही व्यवसायमा काम गर्ने कर्मचारीहरूलाई बच्चाको जन्म अघि वा पछि मातृ बिदा दिइन्छ । त्यसैले, बिदाको समयमा रोजगार करार समाप्त भयो भने पनि बिदा पनि समाप्त हुन्छ ।
 - ※ 1, 2014 सम्म जुम्ल्याहा बच्चा जन्माउने महिलाहरूले 120 दिन सम्मको जन्म पहिले वा पछिको मातृ बिदा पाउने छन् । प्रसूतिपछिको बिदा 60 वा 60 भन्दा धेरै दिनको हुनु पर्छ ।

(3) प्रसुति र सुत्केरी बिदा खर्च

- बच्चाको जन्म पूर्वको र जन्मसकेपछि पनिआमा भत्ता प्रदान गरिनेछ ।
- ठूला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ने कामदारहरूले 60 दिनको पुरै तलब पाउँछन् र बाँकी तीस दिनको तलब रोजगारी बिमाबाट पाउँछन् । (महिनामा 1,600,000 वनसम्म)
- सहयोगको प्राथमिकतामा परेका व्यवसायको हकमा साना तथा मझौला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ने कामदारहरूले 90 दिनको बिदा भत्ता रोजगारी बिमाबाट पाउँछन् (महिनामा 1,600,000 वनसम्म) धेरैमा 60 दिनको जति कम्पनिको साधारणतलब र सुत्केरी हुनु अघिपछिको तलबको भिन्नता मात्र दिइन्छ।
 - ※ 2014साल 7महिना 1 तारिक पछि एकै पटक दुइ भन्दा बढी बच्चा जन्माएमा ठूला कम्पनिको सन्दर्भमा 75दिनको कम्पनिबाट सामान्य तलबको 100% दिइन्छ, बाकि 45दिनको रोजगारबिमा बाट दिइन्छ।(महिनामा 1,600,000 वनसम्म) मध्य र साना कम्पनिको सन्दर्भमा 120 दिनको रोजगार बिमाबाट सुत्केरी हुनु अघिपछि को रकम दिइन्छ। (महिनामा 1,600,000 वनसम्म)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बच्चाको जन्मपछि र पछिको बिदा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264

(4) बच्चाको जन्मपहिले वा पछिको मातृत्व बिदाको ज्याला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

- बिदाको समयमा भत्ता प्राप्त गर्ने मनसाय भएका कामदारहरूले, व्यवसायको मालिकबाट पुष्टि कागजात लिएर बच्चाको जन्म पहिले वा पछिको मातृत्व बिदाको ज्यालाको निवेदन सहित आफू बस्ने ठाउँ वा व्यवसाय भएको ठाउँको क्षेत्राधिकार हुने रोजगारी केन्द्रमा पेश गर्नु पर्छ ।
- आवश्यक कागजातहरू
 - कम्पनीबाट लिएका कागजातहरू: प्रसुति पहिले वा पछिको मातृत्व विदा पुष्टि गर्ने कागजात, रोजगारी करार (प्रतिलिपि), अदि जस्ता तलब पुष्टि गर्ने तलबक्रम कागजातहरू ।
 - रोजगारी तथा श्रम मन्त्रालय वा रोजगार केन्द्रको गृहपृष्ठबाट पाएका कागजातहरू: प्रसुति पहिले वा पछिको मातृत्व विदाको आवेदन फाराम ।

2. गर्भ तुहुँदा प्राप्त हुने विदा

(1) मापदण्डहरू

- सिद्धान्तत, प्राकृतिक रूपमा गर्भपतन भएमा वा गर्भ तुहिएमा मात्र बिदा दिइनेछ । बिदाको अवधि गर्भ अवधि अनुसार फरक पर्दछ ।
- श्रम मापदण्ड कानून अनुसार, 1 जनाभन्दा धेरै कर्मचारीहरू भएका कार्यस्थलमा संलग्न महिला कर्मचारीहरूले श्रम अनुमति (नियमित कामदार, आंशिक समयमा कामगर्ने कामदार आदि) वा सम्बन्ध नभै जसलेपनि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2) गर्भपतन हुँदा वा गर्भ तुहुँदा प्राप्त हुने विदा अवधि

- गर्भपतन हुनु वा बच्चा तुहिनु अगाडिको गर्भवती अवधि अनुसार प्रगतिशील सुरक्षा बिदा प्रदान गरिन्छ ।
- गर्भवती भएको 11 हप्ता भित्र: गर्भपतन भए पछि वा बच्चा तुहिएपछि 5 दिन सम्मको सुरक्षा बिदा प्रदान गरिन्छ ।
- 12~15 हप्ताको गर्भावस्था: गर्भपतन भए पछि वा बच्चा तुहिएपछि 10 दिन सम्मको सुरक्षा बिदा प्रदान गरिन्छ ।
- 16~21 हप्ताको गर्भावस्था: गर्भपतन भए पछि वा बच्चा तुहिएपछि 30 दिन सम्म
- 22~27 हप्ताको गर्भावस्था: गर्भपतन भए पछि वा बच्चा तुहिएपछि 60 दिन सम्म
- 28~ हप्ताको गर्भावस्था: गर्भपतन भए पछि वा बच्चा तुहिएपछि 90 दिन सम्म

(3) गर्भपतन हुँदा वा गर्भ तुहुँदा प्राप्त हुने विदा भत्ता

- गर्भपतन वा बच्चा तुहिएमा दिइने बिदाको भत्तामा मातृत्व विदा कै मापदण्डहरूमा लागू हुनेछन् ।
- ठूला कम्पनिले सुरुको 60 दिनको बिदा भत्ता दिन्छ र रोजगार बिमाले अन्तिम 30 दिनको बिरामी भत्ता दिन्छ । (महिनामा 1,600,000 वनसम्म)
- साना तथा मझौला किसिमका कम्पनिको कामदारको हकमा रोजगार बिमाले 90 दिनको बिदा भत्ता दिन्छ (महिनामा 1,600,000 वनसम्म)

रोजगारी तथा श्रम
265

(4) गर्भपतन हुँदा वा बच्चा तुहुँदा दिइने बिदा भत्ता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 बिदाको समयमा भत्ता प्राप्त गर्ने मनसाय भएका कामदारहरूले, व्यवसायको मालिकबाट पुष्टि कागजात लिएर गर्भपतन हुँदा वा बच्चा तुहुँदा दिइने बिदा भत्ताको निवेदन र गर्भपतन वा मेडिकल संस्थाबाट बच्चा तुहेको मेडिकल प्रमाणपत्र सहित आवेदकले आफू बस्ने ठाउँ वा व्यवसाय भएको ठाउँको क्षेत्राधिकार पर्ने रोजगारी केन्द्रमा पेश गर्नु पर्छ ।

3. मातृत्व वा पितृत्व विदा

कामदारले 8 वर्ष वा त्योभन्दा कम उमेरका, वा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को दोसरो कक्षामा पढ्ने बच्चालाई हुर्काउनको लागि एक वर्ष बिदाको अनुमति लिन सक्छ।

(1) मापदण्डहरू

- एउटै कम्पनीमा एक वर्षभन्दा धेरै काम गरेका 8 वर्ष वा त्योभन्दा कम उमेर भएका र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को दोसरो कक्षामा पढ्ने बच्चा भएका महिला तथा पुरुष कर्मचारीहरूले बाल हेरचाह विदा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सक्छन्।
- बाल हेरचाहका कारण कर्मचारीहरूले काम नछोड्नु र घरको र कम्पनीको काम शान्तसँग गर्नु भनेर बच्चा हेरचाह बिदा दिइएको हो ।

(2) बाल हेरचाह बिदाको अवधि

- बाल हेरचाह बिदालाई एक वर्षसम्म लम्ब्याउन सकिन्छ ।

(3) बच्चा हुर्काउने बिदा खर्च

- बच्चाको पालन पोषणको लागि भनि बिदा लिएमा कामदारलाई छुट्टै रकम प्रदान गरिँदैन तर पनि कामदारलाई जीवन निर्वाह गर्न अप्ठ्यारो नपर्ने रोजगारी बीमाबाट केहि रकम सहयोग प्रदान गरिएको छ।
- पहिलो तीन महिना: नियमित ज्यालाको 80% (अधिकतम 1,500,000 वन, न्युनतम 700,000 वन), त्यसपछि 9 महिनामा नियमित ज्यालाको 40% (अधिकतम 1,000,000 वन, न्युनतम 500,000 वन) रकम बाल हेरचाह बिदा भत्ताको रूपमा दिइन्छ ।
 - ※ आमाले यो बिदा लिएपछि एउटै बच्चाको लागि बुवाले पनि यो बिदा लिएमा बुबाको पहिलो 3 महिनाको बच्चा हुर्काउने भत्ता नियमित तलबको 100% (अधिकतम : पहिलो बच्चाको लागि 1,500,000 वन, दोश्रो वा अन्य बच्चाको लागि 2,000,000 वन) प्रदान गरिन्छ। आमा बुवाको बिदा लिने क्रम परिवर्तन गरे पनि सहयोग रकम उही हुन्छ, बच्चा हेर्ने बिदामा बुवाको लागि बोनस प्रणाली बनाइएको हो।)
 - 2018 साल 7 जुलाईबाट सबै बच्चाको लागि अधिकतम 2,000,000 वन प्रदान गरिने गरी बढाइने छ।
- बालहेरचाह भत्ता बाहेक पनि धाएको कम्पनिले बच्चा हुर्कने र बच्चाभत्ता(महिनामा 300,000वन(पहिलो प्राथमिकता तोकिएको आमाको लागि) र सुत्केरी हुदाको लाग्ने खर्च (महिनामा 600,000वन(ठूला कम्पनिले महिनाको 300,000वन)) दिइन्छन।
 - ※ पहिलो प्राथमिकतादिने ठूला कम्पनिबाट आमाको बिदा पहिलोपटक लिदा बिदाको साथमा र सुत्केरी भत्ता100,000वन दिन्छ। (1स्तरको भत्ता)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बाल हेरचाह बिदा भत्ता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श्रम र कर्मचारीको

कोरियाली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गाइड बुक
266

(4) बाल हेरचाह बिदा भत्ता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 बिदा लिनुभन्दा 30 दिन अगाडि व्यवसायका मालिक समक्ष बाल हेरचाह बिदा भत्ताको निवेदन पेश गर्ने ।
- बाल हेरचाह बिदाको समयमा भत्ता प्राप्त गर्ने मनसाय भएका कामदारहरूले व्यवसायका मालिकबाट पुष्टि कागजात लिएर भत्ताको निवेदन सहित आवेदकले आफू बस्ने ठाउँ वा व्यवसाय भएको ठाउँको क्षेत्राधिकार हुने रोजगारी केन्द्रमा पेश गर्नु पर्नेछ ।
- कागजातहरू
 - कम्पनीबाट लिएका कागजातहरू: बाला हेरचाह बिदा पुष्टि गर्ने कागजात, रोजगारी करार (प्रतिलिपि), आदि जस्ता तलब पुष्टि गर्ने तलबक्रम कागजातहरू ।
 - रोजगारी तथा श्रम मन्त्रालय वा रोजगार केन्द्रको गृहपृष्ठबाट पाएका कागजातहरू: बाल हेरचाह बिदाको आवेदन फाराम ।

4. बच्चा पालन पोषणको समयमा गरिने कार्य अवधि कटौती

- 8 बर्ष भन्दा कम उमेरका प्राथमिक तहको २ कक्षा भन्दा तल्लो तहसम्मका बच्चा भएका कामदारले बच्चाबच्चीको पालन पोषण गर्नको लागि हप्तामा कार्य अवधि 15~30 घण्टासम्म घटाइ बच्चा पालन पोषणको समयमा आफ्नो कार्य अवधि घटाउन सक्छन्।

(1) व्यक्तिहरू

- कुनै कम्पनीमा एक वर्षभन्दा धेरै काम गरेका र 8 बर्ष भन्दा कम उमेरका प्राथमिक तहको २ कक्षा भन्दा कम उमेरका बच्चाहरू भएका कर्मचारीहरूले कार्य अवधि कटौती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सक्छन् ।
- बच्चाको पालन पोषणको समयमा कार्य अवधि कटौतीको प्रणालीले कर्मचारीलाई एकै साथ काम गर्न र बच्चाको पालन पोषण गर्न सक्षम बनाउँछ । यसले वृत्तिमा जटिलता आउन र कार्यकुशलतामा गिरावट हुन दिँदैन र रोजगारको निरन्तरता ग्यारेन्टी गर्दछ ।

(2) प्रयोग अवधि

- बच्चाको पालन पोषणको समयमा गरिने कटौती कार्य अवधि कटौती एक वर्ष सम्मको लागि ग्यारेन्टी गरिन्छ । तथापि, एक वर्षसम्म कटौती गरिएको कार्य अवधि समयले अभिभावकीय (मातृत्व, वा पैतृत्व) बिदा समेट्छ । तपाईंले अभिभावकीय बिदा 1 बर्ष सबै प्रयोग गरिसक्नु भएको छ भने कार्य अवधि कटौती समय प्रयोग गर्न पाउनु हुन्न ।

(3) बच्चाको पालन पोषणको लागि कार्य अवधि कटौती भए पछिको ज्याला

- कार्य अवधि कटौतीको समयमा कामदारहरूले व्यवसायका मालिकहरूबाट कटौती गरिएको कार्य अवधिको ज्याला प्राप्त गर्नेछन् र रोजगारी बिमाबाट कटौती गरिएको तलब (नियमित ज्यालाको 80% (अधिकतम 1,500,000 दिइन्छ) कार्य अवधि बराबरको भत्ता प्राप्त गर्नेछन् ।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되는 오산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스포츠강좌 수강자 모집,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3차 재난지원금 최대300만원 지급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일(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며,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영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1월 11일 발송되는 신청 문자를 수신한 후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신청접수의 적극홍보 및 현장접수 지침시달시 통합운영센터를 오산 시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 및 지역경제과(031-8036-7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 수강권 지원대상 모집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한 수강료 지원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생연도 2003~2016년인 만5~18세 유·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

위 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범죄피해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 신청을 권장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면,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최소 8개월 이상 지원 받으며,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세마건강 릴레이'

오산시 세마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주민 생활터 중심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세마건강 릴레이'를 운영한다.

세마건강 릴레이는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또는 자체 운영을 통해 주민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하며 분기별로 1~4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마건강 릴레이 1기는 2월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온택트 '집콕 슬기로운 운동교실'을 운영하며 참여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다음 기수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산소·근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자흥 세마동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주민맞춤형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건강생활실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C)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이런 분들 더욱 조심하세요!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이나 보온(옷,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동상 위험군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이주여성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년 2월 ~ 9월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이주여성 활동가	지원내용	① 활동비, 사업비 지원 ② 전문가 자문 및 이주여성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신청자격	성평등, 다양성 존중 및 지역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이주여성 활동가
	지원규모	최대 500만원
단체지원사업	지원내용	① 인건비, 사업비 지원 ② 전문가 자문 등
	신청자격	비영리 여성단체, 이주민 지원 기관 ★ 실무인력의 50% 이상 이주여성 참여 필수
	지원규모	최대 2,000만원
활동 예시	- 성차별 해소와 이주여성 인권 증진 - 이주여성 고용 안정 및 노동권 향상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 - 이주여성 역량강화 - 성평등한 다문화가족과 미래세대 교육 - 기타 자유주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 1. 4(월) ~ 2021. 1. 20(수)

신청방법: 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omenfund.or.kr 접속하기
② 신청서 서식 내려 받기
③ 신청서 작성 후 bbok@womenfund.or.kr 보내기

문의 | 지원사업팀 복금희 대리 | 02-336-6559 | bbok@womenfund.or.kr

주최: 한국여성재단 후원: 하나금융그룹 지원: 사랑의열매

所得が低く、日常生活が困難ならば生計給與を申請

政府支援が切實な多文化家族は行政福祉センターで相談して下さい



基礎生活保障生計給與扶養義務者基準が大幅緩和される。

政府は2021年から‘高齢者’と‘一人親家族’、‘重度障がい者世帯’の基礎生活保障生計給與に対する扶養義務者基準を緩和する。

扶養義務者基準とは、基礎生活保障を申請した受給者のすべての世帯員を対象に、両親、子ども、など、1寸直系血族の財産所得水準を考慮することを指す。

所得がたいへん低く日常生活が困難な場合、政府の生計費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その際、扶養義務者基準を確認し、申請者家族の両親と子どもなど、直系家族に財産や所得が多い者がいると生計費支給が拒否されたい。

しかし今回‘高齢者がいる世帯’と‘一人親家族’、‘障がい者世帯’の扶養義務者基準が緩和されたことで、両親や子どもが財産が多いという理由で生計費支援を受けられない事例は減るだろうとみている。

緩和された扶養義務者基準によると、扶養義務者が年1億ウォン、月834万ウォン以上の高所得者や金融財産を除く財産が9億ウォン以上の場合にだけ生計費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それ以外の場合は、生計費申請者の所得・財産などの基準のみを満たせば、生計給與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021年基準生計給與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中位所得30%基準は4人家族は146万2887ウォン、3人家族は119万5185ウォン。2人家族は92万6424ウォン。

自分の家族が受ける給與がこの基準に達していな

ければ、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で生計給與を申請すること。

現在の自分の状況がよく分からなければ、まずは行政福祉センターを訪問して、福祉擔當職員と相談することをお勧めする。

一方医療給與は中位所得の40%以下、住居給與は中位所得の45%以下、教育給與は中位所得の50%以下に支給するため、生計給與を受けられなくても他の給與の申請が可能だ。

政府は広報紙配布、ホームページ掲示など、積極的な広報を進め、対象者を發掘、より多くの人が恩恵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ている。

政府関係者は“より多くの市民が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の恩恵を受けられるようになると期待”とし、“過去には扶養義務者基準超過などにより支援を受けられなかった低所得層を積極的に發掘し、福祉の死角をなくしていく”とした。

詳しい内容はお住まいの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窓口にて。〈한글 기사 37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Hỗ trợ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100,000won/người thuộc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bắt đầu từ đầu tháng 2 ...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đưa kiến nghị lên tỉnh Gyeonggi...Chủ tịch tỉnh ông Lee Jae Myong đáp “sẽ suy nghĩ về thời kì và quy mô”.

Bắt đầu từ ngày 11 tháng 2, là thời gian trước Tết âm lịch, toàn bộ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ều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với số tiền là 100,000won/người.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đã chính thức đưa kiến nghị lên tỉnh Gyeonggi yêu cầu hỗ trợ lần thứ hai cho người dân số tiền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vào ngày 11 tháng 1 vừa qua.

Sau đó chủ tịch tỉnh Gyeonggi ông Lee Jae Myeong đã có bài đăng lên SNS có nhân của mình với nội dung “cảm ơn những suy nghĩ sâu sắc dành cho người dân của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và “bản thân sẽ đứng trên phương diện là một người dân để suy nghĩ về thời kì, đối tượng cũng như quy mô hay có hỗ trợ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lần thứ hai này hay không”.

Cho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việc trợ cấp dành cho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đã chính thức được đồng ý tuy nhiên chỉ có cách thức trợ cấp là vẫn chưa được quyết định.

Vào lúc 2h chiều ngày 11 vừa qua, chủ tịch Hội đồng tỉnh Geonggi ông Chang Hyeon Kook, ông Jin Yong Bok, Moon Gyeong Hui – ph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cùng với đại diện đảng Dân chủ ông Park Geun Cheol đã mở một cuộc họp báo ngay tại Hội đồng tỉnh để đưa ra kiến nghị về việc trợ cấp lần thứ hai này cho người dân tỉnh.

Chủ tịch Hội đồng cho biết rằng “yêu cầu Tỉnh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lần thứ 2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thuộc địa bàn tỉnh nhằm mục đích khắc phục những khó khăn do dịch Covid-19 gây ra, đây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phương án hỗ trợ khó khăn trong thời kì dịch bệnh của Tỉnh”. Số tiền hỗ trợ lần thứ hai này sẽ bằng với số tiền đã được trợ cấp trong đợt 1 vào tháng 4 năm 2020, số tiền sẽ là 100,000won/người.

Cũng giống như với đợt hỗ trợ lần thứ nhất, trong đợt hỗ trợ lần thứ hai này, người dân cũng sẽ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dưới hai hình thức là tiền đặc thù của địa phương hoặc thẻ tín dụng, số tiền này sẽ được trợ cấp ngay trước kì nghỉ Tết âm lịch vào đầu

tháng 2 tới đây.

Tuy nhiên,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ong địa bàn tỉnh có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đợt 2 này hay không vẫn chưa có quyết định một cách rõ ràng.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thứ nhất, chỉ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đã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F-5) mới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của Tỉnh, do đó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thứ hai này, khả năng chỉ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mới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trợ cấp là rất cao.

Nhưng vào năm 2020, tỉnh Geonggi đã có ý kiến rằng sẽ suy nghĩ kỹ về những yếu tố lâu dài để hỗ trợ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Tòa soạn báo đa văn hóa tỉnh Gyeonggi sẽ có những bài viết mới nhất cập nhật về tình hình của tỉnh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trợ cấp vừa đề cập trên.

Nhà báo Song Ha Seong.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타 시도 모델이 될 행복한 가족상 만들 것”

신한대 산학협력단-파주건가다가, 위탁 운영 취임식 진행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센터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취임식과 함께 협약을 통해 파주시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관 사업 및 행사의 홍보 협력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취임식에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장형

성 단장과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성심 센터장,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금량 센터장,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조성심 센터장은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구조를 재점검하고 사업내용을 재편성하며, 파주시의 취약계층 가족은 물론 타 시도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가족 像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올해부터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맡는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코로나 우울과 가족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온라인 ‘힐링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14일부터 전염병 감염 두려움,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파주시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온라인 힐링존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020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이동훈 외 5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6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 경험은 각각 48.8%, 29.7%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 또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힐링존 참가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센터에서 재료를 받아 온라인(유튜브) 영상을 통해 각자의 가정에서 참여하면 된다. 내용은 코로나 우울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 슬기로운 방학보내기(스트레스 관리), 힐링 프로그램(원예치료: 다육정원화분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센터는 조리읍(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운정(교하로 20, 희망e센터 내)과 문산(개포대로 34, 문산광역보건지소 내)에 ‘마음건강상담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5-2117/ www.pajumind.org)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파주 결혼이주여성의 4인 4색 사진책 출판

파주건가다가,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출판물 발간한다

파주시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파주시 지역 내 다문화가족 여성이 출판에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40.50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그녀들의 수다를 엿보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1월 중 <수요일 오후 두 시, 네 여성의 사진과 짧은 글들>(가제)이라는 사진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선정돼 추진한 6개 교육 과정 중 하나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고 가족을 만들어 살아가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이 글쓰기와 사진을 배우며 가족 간 원만한 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사진책을 출판해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업은 사진 촬영을 통해 발화자로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인 ‘포토보이스(photovoice)’ 기법으로 진행했

다. 학습자들은 번역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해 비대면 온라인(Zoom) 수업으로 진행했고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의 특성상 오히려 온라인 수업 환경을 선호했다. 또한 이미 온라인으로 한글 교육도 받고 있어 줌 프로그램 활용도 익숙해 순조롭게 진행됐다.

<수요일 오후 두 시, 네 여성의 사진과 짧은 글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 ‘나의 고국을 표현하는 사진’, ‘나의 마음에게 쓰는 편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이 엄마, 아내, 며느리, 딸 등의 역할을 떠나 각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빚어낸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을 이해하고자 차이점을 위주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안내

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21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당초 1억원)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 거래 가격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2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확대됐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克服‘小規模商工人心張り棒 (버팀목) 資金’、‘緊急雇用安定支援金’支給

外国人（事業者登録者）も心張り棒資金対象に... 特殊雇用・フリーレンサーは雇用安全支援金

政府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コロナ19)の3次擴散による被害を受けている小規模商工人と、特殊形態勤勞者(特雇)・フリーレンサーなど、雇用脆弱階層に対する3次災難支援金の支給を11日からスタートさせる。

政府は11日、4兆1千億ウォン規模の‘小規模商工人心張り棒資金’優先支給対象者に、お知らせ文字メッセージを發送した。事業者登録をしている外國人も要件を備えていれば支援対象となる。

コロナ19被害を受けている小規模商工人280万人のうち、まず250万人に支給する。既存2次災難支援金(新希望-새희망資金)を受給した小規模商工人と、政府の防疫指針に従って集合禁止・制限措置を受けた特別被害業種が優先支援対象だ。

昨年11月24日以降、政府と自治體の防疫強化措置により集合禁止または營業制限対象となった小規模商工人は、各300万ウォンと200万ウォンを支給。

昨年の売上額が4億ウォン以下で、昨年年売上が2019年より減った小規模商工人は100万ウォンを支給。

該當小規模商工人は文字メッセージが發送される11日からオンライン申請が可能だ。

ただし混雑を避けるために、11~12日の両日は事業者登録番號の最後の数字を基準に、偶奇数制(11日は奇数、12日は偶数)を運用している。13日からは區分なく申請可能だ。

政府は11日申請当日の午後から支給をスタートさせ、遅くとも1月中には支給を完了させる計画だ。

新規受給者である残りの30万人の場合、1月25日附加價値稅申告内容をもとに支援対象を選別、早ければ3月中旬から支援金を支給する。ただし附加稅申告期限延長により、以後の売上を申告すると支給時期がより遅くなることもある。

小規模商工人心張り棒資金事業の具體的な内容はコールセンター(☎1522-3500)、ホームページ(www.버팀목資金.kr)にて、3次緊急雇用安定支援金はコールセンター(☎1899-9595)、ホームページ(covid19.ei.go.kr)にて。

コロナ19長期化で所得が減った特雇・フリーレンサー70万人に支給する3次‘緊急雇用安定支援金’も、

11日から支給している。緊急雇用安全支援金は韓國籍を取得していなくても多文化家族は支給対象となる。

昨年1~2次緊急雇用安定支援金を受給した65万人に、別途の審査なしに一人当たり50万ウォンを支給する。ただし年末年始防疫強化特別對策を施行した昨年12月24日基準で、雇用保險に加入していた者は支援対象から除外される。

6~11日の期間に申請を受付けたが、まだ申請していない者も申請済とみなし、1次または2次支援金受給時に登録した口座に3次支援金を支給する。

11日から15日まで先着順で支給を完了させる。新規受給者5万人は審査を経て100万ウォンを支給する。15日に事業公告し、申請受付など行政手続きを踏む予定だ。

多文化家族は自分がどの対象に該当するのかしつかり把握して申請すること。

これ以外にも、京畿道が一人当たり10万ウォンの2次災難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

<한글 기사 5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และ "การจ่ายเงิน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น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ยั้งได้ ... รับเงินสนับสนุน ... เงินอุดหนุ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สำหรับการจ้างงานพิเศษและฟรีแลนซ์

ในวันที่ 11 รัฐบาลเริ่มจ่าย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ภัยพิบัติครั้งที่สามให้กับผู้ด้อยโอกาสเช่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คนงานประเภทพิเศษ (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 และมีมือปืนรับจ้าง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สายพันธุ์ใหม่ครั้งที่สาม (โคโรนา 19)

ในวันที่ 11 รัฐบาลได้ส่งข้อความแจ้งเตือนไปยังผู้รั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ตามลำดับความสำคัญจำนวน 4 ล้านล้านวอนของ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ลงทะเบียนเป็นธุรกิจยั้ง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หาก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

จาก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2.8 ล้านคน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 Corona 19 จะจ่ายให้ 2.5 ล้านคนแรก ลำดับความสำคัญจะมอบให้กับ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เคย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ทุติยภูมิ (กองทุนใหม่ที่ต้องการ) และธุรกิจ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เป็นพิเศษซึ่งถูกห้ามหรือ จำกัด ตามแนวทางการกักกันของรัฐบาล

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ถูกห้ามจากการ จำกัด กลุ่มหรือธุรกิจ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เพิ่มมาตรการกักกันโดยรัฐบาลและ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ตั้งแต่วันที่ 24 พฤศจิกายนปีที่แล้ว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 3 ล้านวอนและ 2 ล้านวอนตามลำดั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มียอดขายน้อยกว่า 400 ล้านวอนในปีที่แล้วและยอดขายต่อปีลดลงจากปี 2019 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

ออนไลน์ได้ตั้งแต่วันที่ 11 เมื่อได้รับข้อความแจ้งเตือน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สำหรับการใช้งานที่ราบรื่นระบบคู่มือ (แม่ในวันที่ 11 และวันที่ 12) จะทำงานตามตัวเลขสุดท้ายของหมายเลขทะเบียนธุรกิจสำหรับทั้งสองวันตั้งแต่ 11 ถึง 12 ตั้งแต่วันที่ 13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โดยไม่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ใด ๆ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เริ่ม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ในช่วงปลายของวันที่สมัครในวันที่ 11 และ ดำเนิน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ใน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อย่างช้าที่สุด

ในกรณีของผู้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ใหม่ที่เหลือ 300,000 คน จะจ่ายเงินสนับสนุน ตั้งแต่กลางเดือนมีนาคม โดยเร็วที่สุดตามเนื้อหาของรายงาน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ในวันที่ 25 มกราคม สำ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โครงการ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สำ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โปรดไปที่ศูนย์บริการเฉพาะ (☎ 1522-3500) หรือเว็บไซต์ (www.Support fund.kr) และ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ที่สามมีอยู่ที่ศูนย์บริการเฉพาะ (☎ 1899-9595) หรือเว็บไซต์ (covid19.ei.go.kr)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ชุดที่สามซึ่งจ่ายให้กับนักทำงานอิสระ 700,000 คนและ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ที่มีรายได้ลดลงเนื่องจากโคโรนา 19 ที่ยึดเยื้อมานานก็จะได้รับเงินตั้งแต่วันที่ 11 ครอบคลุมหาทุนฮวาคาอง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ได้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ได้รับสัญชาติก็ตาม

500,000 วอน ต่อคนจะจ่ายพิเศษให้กับผู้ที่ได้รับเงิ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ครั้งแรกและครั้งที่สองเมื่อปีที่แล้ว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เมื่อวันที่ 24 ธันวาคม ปีที่แล้วเมื่อมีการใช้มาตรการพิเศษเพื่อเพิ่มความเข้มงวดในการกักกันในช่วงสิ้นปีและปีใหม่ที่สมัคร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จะไม่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รัฐบาลได้รับใบสมัครจากพวกเขาในวันที่ 6 ถึง 11 แม้แต่ผู้ที่ไม่ได้สมัครก็จะถือว่าได้สมัครและ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รั้งที่3 จะจ่ายให้กับหมายเลขบัญชีที่ลงทะเบียนไว้เมื่อ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รั้งแรกหรือครั้งที่2รัฐบาลชำระเงินให้เสร็จสมบูรณ์ตามลำดับก่อนหลังได้ก่อนตั้งแต่วันที่ 11 ถึงวันที่ 15

ผู้รับใหม่ 50,000 คนจะได้รับเงิน 1 ล้านวอนหลัง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 ในวันที่ 15 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โครงการและขั้นตอนการบริหาร เช่น การรับใบสมัครอยู่ระหว่างดำเนินการ ครอบคลุม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ควรสมัครหลังจากที่เข้าใจว่าพวกเขาอยู่ใน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ใด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ายเงิน 100,000 วอนสำหรับ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ภัยพิบัติครั้งที่สองต่อคน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ด้วย <한글 기사 5면>

이아리 기자

“파주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 전해요”

파주주말농장 접수, 평생학습관 온라인 강좌,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등



파주시는 다문화가족 및 파주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필요한 정보를 잘 빠르게 신청하면 부담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1 파주주말농장 접수 시작

파주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2021년 파주주말농장 운영한다.

금촌동 1017번지에 위치한 주말농장 신청은 오는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1가족당 1구좌씩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돼 있는 자로 신청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으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파주주말농장은 1구좌당 99㎡(3평)씩 총 2,500구좌가 분양된다. 연간 임대료는 1구좌당 1,720원이며 경작 기간은 개장예정일인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파주 주말농장 임대 관련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과 체험농업팀(☎031-940-5282, 5289)으로 하면 된다.

#파주시 평생학습관 온라인 강좌

파주시 평생학습관은 2021년 제1기 파주시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면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기획돼 진행되며 모집 분야는 ▲건강·취미 교육 ▲직업교육(창업·자격증) ▲컴퓨터·외국어교육 ▲공예기타·교양무료교육 4개 분야로 K-POP댄스 등 88개의 다양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접수는 모집분야별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파주시 평생교육포털(ill.paj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파주시는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1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사업신청자가 선정한 농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해당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출산(예정) 농가 거주지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단출장소(동지역 거주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시 한빛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파주시 한빛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월 26일, 27일 이틀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에서 즐기는 겨울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빛도서관 겨울독서교실 프로그램은 ‘나는 내가 좋아’라는 제목으로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서관 ▲42가지마음의 색깔로 알아보는 나를 주제로 작가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나만의 봉투마스크 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서관이 아닌 가정에서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이인숙 파주시 교하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됐지만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방법이나 궁금한 점은 한빛도서관 어린이실(☎031-940-573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lib.paju.go.kr/hblib)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파주시 2월 10일까지 설 명절 전 신청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설 이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09:00~18:00까지 운영)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2

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

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파주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된다.

이지은 기자

1기 평생학습관 온라인 수강생 모집

18~29일까지 4개분야 88개 강좌 수강생 모집



파주시 평생학습관은 2021년 제1기 파주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면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기획돼 진행되며 모집분야는 ▲건강·취미교육 ▲직업교육(창업·자격증) ▲컴퓨터·외국어교육 ▲공예기타·교양무료교육 4개 분야로 K-POP댄스 등 88개의 다양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스마

트 기기가 준비돼 있어야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모집분야별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파주시 평생교육포털(ill.paj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파주시 평생학습과 교육운영팀(☎031-940-2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도 평생교육 사업을 소개하는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를 평생학습관에서 오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생활법률정보, 국적 취득과 운전면허, 친지초청에 대해

한국생활에 대한 궁금증,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군포건가다가에서 도움 받아요



▲지난해 군포건가다가에서 진행된 '놀이면뮈해yo' 프로그램

(질문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답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

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답2)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3)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

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이유로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사증을 받아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번호)에 의한 입국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민이 뽑은 2020년 10대 뉴스 1위는 '코로나19 방역'

군포시정뉴스, 금정역의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 2위 선정돼 시민 관심사 반영



다문화가족도 2020년을 돌아보며 군포시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선정해보자. 군포시민들은 군포시의 코로나19 방역을 2020년 군포시정 뉴스 1위로 뽑았다.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민들이 투표로 선정한 올해 군포시정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중 1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군포시의 방역 활동이 뽑혔으며, 2위는 GTX-C노선이 정착하게 되는 금정역의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 3위는 미래가치가 담긴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민선7기 시민공감 온택트 토크콘서트, 5위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6위는 청년살롱 청춘심미당 개소, 7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이 올랐다.

8위는 군포시미디어센터 개관, 9위 군포시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 활동 개시, 그리고 10위는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돌봄센터 건립 도비 40억원 확보가 각각 뽑혔다.

이번 군포시정 10대 뉴스 선정에는 시민 3,287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30~40대 여성이 반 이상을

차지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에서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재확인됐으며, 토크콘서트나 통합도시브랜드, 군포시미디어센터 개관 등이 10위 안에 든 것은 시민들이 시와의 소통과 공감을 원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주신 올해 시정 10대 뉴스를 보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시정의 잘잘못을 냉정히 평가하고 이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세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홍보기획과(031-390-06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多文化家庭生活法律信息, 取得国籍, 驾照, 邀请亲属 생활법률정보

(提问1) 外国人和韩国国民结婚的话, 会立即取得韩国国籍吗?

(答1) 如果外国人与韩国国民结婚并在韩国居住, 就可以取得韩国国民的配偶地位, 但并不意味着立即取得韩国国籍。但是, 和韩国国民的配偶合法登记结婚后在韩国居住2年或3年后居住1年的外国人, 可以通过简易归化取得韩国国籍。

◇简易归化的需要的条件

▲和国民的配偶结婚的状态▲在韩国继续居住▲在韩国的民法上是成年(19岁)▲品行端正▲有生活能力▲韩国国民具备基本素质

◇申请简易入籍许可

与韩国国民配偶进行婚姻登记并过着正常婚姻生活的外国人要想申请简易入籍许可, 只要在入籍许可申请书上附加能够证明是外国人的文件, 提交给出入境、外国人事务所所长、出入境、外国人厅, 出差场所或出入境、外国人事务所出差场所负责人即可。

(提问2) 经有了本国的驾驶证, 要想取得韩国的驾驶证, 还需要再考一遍吗?

(答2) 在韩国, 驾驶机动车必须经过公认的考试, 取得驾驶执照。但是, 如果有在本国已经取得的驾驶证, 可以免试一部分。另外, 外国人在本国获得国际驾照的时候, 自来到韩国之日起一年内, 没有韩国的驾照也可以驾驶。

◇免除驾照考试

参加驾驶证考试的外国人▲在韩国登记的人▲外国人登记或者被免除的人▲作为在外同胞在国内进行居所申报的人, 取得外国驾驶证

的人, 可以免除部分考试。

◇凭国际驾照驾驶

获得国际驾照的人, 即使不领取韩国的驾照, 自进入大韩民国之日起一年内, 凭国际驾照就可以驾驶汽车等。

3. 结婚移民者想要邀请在国外的父母或亲戚怎么办?

答3. 在外国的结婚移民者的家人和亲戚如果想访问韩国, 需要签证(VISA)。如果是这样, 可以直接向该国的驻外公馆(韩国大使馆)申请签证。但外国国籍同胞可以向韩国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对想要邀请其家属的签证签发认证书(编号)。签证签发后将签证号码告诉父母或亲属, 由该国驻外使馆在申请签证时提交。

◇签证入境

一般来说, 观光或以亲地方的身份入境时, 得到可以停留3个月的短期访问(C-3)资格签证。申请短期访问(C-3)签证时, 事先从在韩国的外国人那里收到邀请函及身份担保书(指在韩国进行公证)等能够证明访问目的的文件, 如果在申请签证时一起提交, 就能更容易得到签证。但如果以照顾子女为由邀请父母参加, 就更容易得到签证, 可以长期停留。

◇签证签发认证书(编号)入境

原则上, 想要进入大韩民国的人必须亲自申请签证, 但与大韩民国国民结婚的外籍同胞在取得韩国国籍之前, 为邀请拥有抚养权的未成年子女, 可以向滞留地管辖的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签证发放批准号码。
왕그나 기자

시민 10명 중 9명, 군포시의 삶 만족

군포시민, 2020년 시정운영 긍정평가 88.6%



군포시는 지난 1월 14일 시민들을 상대로 한 2020년 하반기 시정 현안 조사 및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관심층은 70.8%로 상반기보다 0.9%포인트 올랐지만, 비관심층은 29.2%로 상반기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관심층은 주로 40대 연령층과 자영업층에, 비관심층은 20대와 학생층에 각각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 평가는 88.6%로 상반기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했으며, 2020년 전체의 긍정 평가는 87.3%로 1년 전보다 6.8%포인트 뛰었다.

이는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과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등 민선 7기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하반기 긍정 평가가 83.0%로 상반기보다 5.4%포인트 올라 소통행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포시 거주 만족도는 91.3%로 상반기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으나, 10명 중 9명꼴로 군포시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들의 군포에서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다. 대체로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 만족 이유로는 체육.휴식.녹지공간 36.8%, 도시.교통인프라 25.9%, 쾌적한 주거환경 11.7% 순으로 조사됐으며, 군포시의 대표 이미지로는 수리산.수리산 도립공원이 18.0%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시계획.개발이 지난 2년간 가장 잘한 분야(20.0%)이면서 가장 미흡한 분야(31.4%)로 집계됐다.

향후 핵심 추진 분야에서도 도시계획.개발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참여.소통 25.5%, 복지.건강.가족분야

1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계획.개발분야 중 가장 바라는 사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27.0%,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24.2%, 공업지역 활성화 및 종합정비 16.8%,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14.6%,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 6.3%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정 인지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과 마스크 지급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정환승센터 입체화사업 추진이 71.0%, 국토교통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이 65.5%로 조사됐다.

도시개발분야정책의 중요도 평가에서도 GTX-C노선 및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이 8.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7.43점, R&D 혁신허브 조성 등 공업지역 활성화 6.06점으로 조사됐다.

군포시정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잘할 것이다'가 50.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가 46.8%로 집계됐으며, 군포시의 미래 발전상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도시가 31.9%로 가장 높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시민중심도시 17.5%, 문화시설이 풍부한 문화예술도시 14.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긍정평가가 66.6%로 부정평가 33.4%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으나, 킥보드 이용자 안전운행 캠페인 홍보 37.7%, 전용도로 및 주차공간 마련 28.5% 등, 시민들은 킥보드 관련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현안 조사는 메트릭스리서치에 의뢰해 군포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서 지난해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김영의 기자

#궁금증해소

이민법 전문 변호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성분상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대표번호 1599-2569

#조아요 만나게

Как сэкономить на отоплении в корейских квартирах 난방비 절약법

온돌 따뜻하지만 난방비 적지 않아, 외국인주민도 내복, 커튼, 에어캡 등으로 난방비 절약해요



В этом году зима на удивление достаточно холодная.

И на радость многим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ое утро на дорогах нас ожидает снег, которое весьма нечастое явление для корейской зимы. Поэтому в этом году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заполнили фотографии первого снега этой зимы.

Однако наряду со всеми прелестями зимы нежданно пришла следующая напасть - холод в помещениях. Каково же было мое удивление, когда зайдя в магазин или придя домой, ощущаешь лишь легкую зябкость.

Ведь в Сибири, благодаря центральному отоплению, в домах и нежилых помещениях достаточно комфорт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Но есть ведь 난방 - нагрев помещения с помощью подогрева полов, скажете вы? И вы будете правы! Но очень часто оплата отопления плата выходит очень высокой, поэтому корейцы стараются экономить любыми способами. И в этой статье я поделюсь одними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способов сократить 난방비.

1. Этот способ наверное самый простой и незатратный - носить многослойную одежду дома. В Коре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е только термобелья, но и теплых пижам. Используя лишь этот способ, вы сможете комфортно себя чувствовать даже если в квартире температура не выше 20 градусов. Кроме того, считается, что такой прием эффективен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ересушивания кожи от холодного зимнего воздуха.

2. Большая часть тепла уходит через окна. Очень часто, особенно в старых домах, в квартире

становится холодно из-за продувания холодного воздуха из щелей в окнах. Поэтому многие рекоменду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шторы повышенной плотности,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теплоизоляцию.

3. В дополнении ко второму пункту является оклейка окон и оконных рам пузырчатой пленкой, которая также препятствует проникновению холодного воздуха в помещения.

Начиная с осени, такую пленку очень часто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в различных магазинах. Так как данный способ также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одному из самых простых и дешевых, то он несомненно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4. Зимой воздух очень сухой, поэтому все выделения нашей кожей быстро испаряются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жа охлаждается. Поэтому при одинаковой температуре чем суше воздух, тем холоднее он нам кажется.

Это явление лежит в основе последнего способа. Т.е. кажущаяся нам температура будет увеличиваться примерно на 1°C при росте относительной влажности с 25% до 55%.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если влажность в помещении будет на правильном уровне, то человеку будет казаться температуру помещения более теплой.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хотите сэкономить на отоплении, то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остоянно увлажнять воздух в помещении до правильного уровня.

Я надеюсь,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может вам сократить расходы на отопление, но при этом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находясь дома!

올해 겨울은 놀라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주민들에게 반가운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겨울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SNS에는 겨울 눈 사진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겨울의 모든 즐거움은 뜻하지 않게 실내 추위로 이어집니다.

필자는 최근 가게에 들어가거나 집에 돌아올 때 약간의 오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중앙난방이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한국에도 난방이 있어요. 바닥 난방(온돌)으로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할 것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난방비가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절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인기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옷을 여러겹 껴입기

이 방법은 아마도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한국에는 보온 속옷뿐만 아니라 따뜻한 파자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만 사용해도 아파트의 온도가 20도를 넘지 않아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공기로 인한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 커튼 등으로 단열하기

대부분의 열은 창문을 통해 빠져 나갑니다. 자주, 특히 오래된 주택에서는 창문의 틈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집이 차가워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고밀도 커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이는 추가 단열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3. 뽁뽁이 등으로 추가 단열하기

두 번째 방법 외에도 창문과 창틀을 일명 뽁뽁이(에어캡)라고 하는 버블 랩으로 덮어서 찬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을부터 이런 종류의 제품을 다양한 상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4. 실내 가습하기

겨울에는 공기가 매우 건조하여 피부의 모든 분비물이 빠르게 증발하여 피부가 식습니다. 따라서 같은 온도에서 공기가 건조할수록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의 해결 방법의 기초가 됩니다. 실내 기본습도가 25%에서 55%로 상승하면 겉보기 온도가 약 1°C 증가합니다. 즉, 실내 습도가 올바른 수준이면 실내 온도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방비용을 절약하려면 실내 공기를 올바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가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사가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인주민 모두 여전히 집에 있는 것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2060-0453 군포시청 031-392-3000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95-1811
아시아의창 031-443-2876 광명여성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광명 아동돌봄교실 운영 정담회 개최

유근식 도의원, 3월 개소 돌봄센터 도비 설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4일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4단지 사무실에서 경기도청이 직접 추진하는 광명 아동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광명 아동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일범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팀장을 비롯하여 노혜진 아파트관리소장, 윤석진 단지 대표, 김덕환·남성순 동대표 등이 참여하였으며, 광명 아동돌봄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일범 아동돌봄팀장은 “거점형 돌봄시설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은 지역 아동돌봄 사업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돌봄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축, 주간돌봄 및 저녁, 공휴일, 방학, 긴급돌봄 등 틈새돌봄까지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복합도시형인 광명센터 이외에도

대도시형 시설인 화성센터, 산업단지형인 파주센터 등 3개 센터를 시범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들 3개 센터를 오는 3월에 일제히 개소하고, 추가로 농촌형 시군을 대상으로 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광명 아동돌봄센터는 기존 체육시설로 이용되던 소하 4단지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지역의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흔쾌히 지역주민들께서 무상사용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청으로부터 1억 5,100만원의 센터 설치 예산과 1억 3,200만원의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광명 아동돌봄센터가 제공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자녀 등과 같은 돌봄 취약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혜진 소장 및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아동돌봄시설들이 주간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근식 의원은 지난 12월 경기중앙교육도서관-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장 도서 광명 작은도서관협의회 기증과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지는 기자

광명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기

광명소식지 3개 국어 번역 등 이주민 배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0만 광명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 더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

#일자리.복지 분야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아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2월 철산동에 문을 연다. 광명시는 쉼터에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150원)된 1만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 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60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과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교육.보육 분야

지난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명소하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기 중 문을 열어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한다.

#부동산.주택 분야

광명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 원은 0.35%, 2.5억~5억 원은 0.2%, 1억~2.5억 원은 0.1%, 1억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김영의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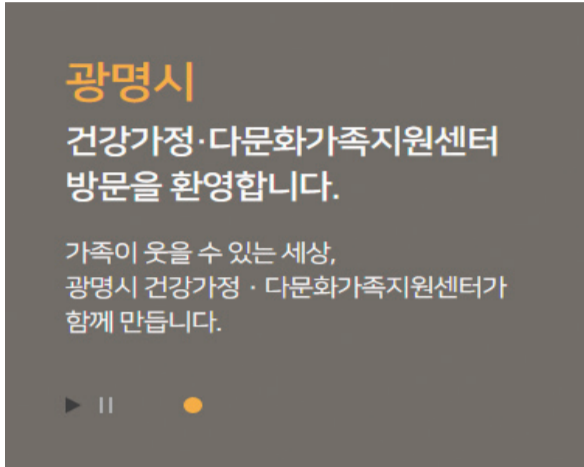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 되는 광명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 기억해요

광명건가다가 방문교육서비스, 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추모공원 6월 개장 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1년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광명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교육서비스 대상 가정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방문교육서비스 대상 가정을 모집한다. 단 현재 자녀생활서비스는 대기자가 많아 약 6개월~1년 사이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2021년 방문교육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주 2회, 1회당 2시간(20분 휴게시간)이 진행된다. 장소는 대상가정 내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한국어,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자녀생활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가 지

원되며 지원 가구 소득 기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2인 가족 4,632천원, 3인 5,976천원, 4인 7,314천원, 5인 8,636천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무료 이용 가능하며, 150% 이상은 월 6만5,28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 (02-6265-1366)로 하면 된다.

#공공도서관, 겨울방학 비대면 프로그램

광명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및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운영하는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4~5학년(소하도서관은 3~4학년 대상) 도서관별로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하안도서관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40 미래의 나'라는 주제로 '책과 함께하는 미래직업여행' 등 독서에 대한 흥미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독서기반 프로그램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명도서관은 '집콕! 랜선교실'을 주제로 '5줄만!' 등 다양한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7개 프로그램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철산도서관은 '도서관과 함께, 코로나 힐링!'이라는 주제로 '반려식물로 마음 힐링' 등 참가자들의 독서력 증진과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소하도서관은 '언택트 시대의 환경'을 주제로 '어떻게 생각해?' 등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방학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안도서관은 <창의융합 과학교실> 등 4개 강좌를 ▲광명도서관은 <환경특목 미술놀이> 등 5개 강좌를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철산도서관은 <도전! 나도 유튜브!> 등 4개 강좌를 2월 2일부터 5일까지, ▲소하도서관은 <미술관에 간 코딩> 등 4개 강좌를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연서도서관은 <북아트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 등 3개 강좌를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www.gmlib.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6월 개장

광명시는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올해 6월 개장한다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손꼽히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광명.화성.부천.안산.시흥.안양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화성시 매송면 속곡리(산12-5법인지)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면적 9,154㎡ 규모로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6,514기, 자연장지 25,300기, 장례식장 8실과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장되면 화장시설은 구당 16만원에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소득 낮아 일상생활 어렵다면 생계급여 신청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다문화가족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상담받아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족',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내국인은 정부에 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 신청자 가족의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 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생계비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노인이 있는 가구'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부모님이

나 자녀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비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외의 경우에는 생계비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의 기준만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3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146만 2887원, 3인 가족은 119만 5185원이다. 2인 가족은 92만 6424원이다.

자신의 가족이 받는 급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른다면 일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 직원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

겠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지급하므로 다문화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해도 다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국어 17면, 베트남어 48면, 러시아어 22면, 일본어 29면, 태국어 42면>

이지은 기자

한국어교육 공백 없도록 겨울특강 운영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어 특강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2021 신축년을 맞이하여 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 겨울특강을 시작한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특강은 사업 공백기간인 1~3월에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 선정 성과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공백이 가정내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연화 센터장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겨울특강은 1월 18일부터 '2021년 한국어교육 겨울특강 온라인수업'

을 통해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 강사와 비대면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결과를 환류하여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욕구를 반영하였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며 특히, 교과를 이용한 기초과정 외에도 어렵게 느껴지는 토픽과정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비대면 수업으로 이주여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아성장을 돕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신축년에도 소처럼 부지런히 일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통해 가족 내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며 발생된 문제를 최선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행복디딤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올해는 꼭 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송하성 기자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수요처 선정 김포건가다가 '현판 전달식' 마쳐



지난 1월 11일 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현숙)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기도 자원봉사 우수수요처)로 선정, 현판을 전달했다.

우수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중 자원봉사활동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매년 1365자원봉사포털 활용,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자원봉사자 관리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수요처를 선정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두가족봉사단, 자원상담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 일반 봉사자 등을 김포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1365자원봉사포털에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봉사자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자원봉사센터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도 김포시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자율방재단 등 4곳을 선정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박현숙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요처와 상호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관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의 가족사업을 위한 의견을 모으다

김포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김포시 여성가족과는 지난 1월 14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경애 김포시 여성가족과장,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과 김연화 센터장 외 김포시청 주무관, 센터 직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센터 업무보고에는 ▲운영법인 및 기관소개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및 성과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및 비대면 프로그램 ▲2021 사업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간담회 때는 종사자 처우개선, 센터사업 홍보협조 등과 관련해 중지를 모았다.

특히 2021년은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지 3년이 되는 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상생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경애 김포시 여성가족과 과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사업, 긴급돌봄 등을 신속히 시도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김포시 역시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202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온라인 (Zoom 활용)
멋진 부모! 행복한 자녀!

대 상	다문화가정 부모 (영유아기~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회기	일 시	장 소	내 용
1	2021.1.27(수) 10:00~12:00	온라인 (Zoom 활용)	- 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법 - 아동학대예방교육 - 다문화가정 법률정보 안내(필요영향서 연례)

강 사 조금랑 박사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전문강사)

신청 및 문의 전화접수 (가족사업2팀 고은정 031-996-5923)

* 신청자에 한하여 Zoom 링크주소 개별문자발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Кênh thông tin luật pháp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Tìm hiểu về bảo lãnh người thân, cách thi bằng lái xe và quốc tịch

(Câu Hỏi 1)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có thể được cấp quốc tịch Hàn quốc ngay không?

(Đáp 1)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sẽ có thể định cư dài hạn tại hàn quốc với visa kết hôn nhưng không thể được cấp quốc tịch ngay được. Thay vào đó, nếu người vợ(chồng) có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ịnh cư trừ trên 2 hoặc 3 năm tại hàn quốc và từ trên 1 năm liên tiếp định cư sẽ có thể đăng kí thi lấy quốc tịch hàn quốc

◇ Điều kiện để đăng kí lấy quốc tịch dành cho người kết hôn

▲Đang có quan hệ hôn nhân với người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ịnh cư liên tiếp tại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dài ▲đủ 19 tuổi theo luật dân sự hàn quốc công bố ▲có phẩm hạnh tốt ▲có khả năng lao động nuôi gia đình ▲ có phẩm chất đủ để trở thành một công dân của hàn quốc.

◇ Cách thức đăng kí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ếu có nguyện vọng nhận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phải viết và nộp đơn xin cấp quốc tịch hàn quốc cùng với một số hồ sơ kèm theo để chứng minh thân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mình sau đó nộp lại cho cơ quan xét duyệt là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ó quyền hạn kiểm tra và cấp quốc tịch.

(Câu Hỏi2) Tôi đang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quốc gia của tôi, nhưng nếu tôi muốn đăng kí cấp bằng lái xe tại hàn quốc thì có phải thi lái xe lại từ đầu hay không?

(Đáp2) Để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bạn phải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ại hàn quốc. Một số các trường hợp nếu người lái xe đã có bằng lái xe được cấp bởi quốc gia của mình thì sẽ không cần phải thi lái xe lại cũng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Ngoài ra, nếu người đang sở hữu bằng lái xe là bằng lái quốc tế mà chính quốc gia của mình cấp thì sẽ có thể được lái xe trong 1 năm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à không cần phải có thủ tục đăng kí lái xe nào cả

◇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thi bằng lá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ó 1 trong các điều kiện sau ▲Có chứng minh thư người nước ngoài do hàn quốc cấp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í cư trú hay người được miễn đăng kí cư trú ▲Một số các kiểu bào.

◇ Lái xe bằng bằng lái xe quốc tế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ở hữu bằng lái xe quốc tế có thể không cần đăng kí thi lái xe tại hàn quốc vẫn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rong vòng 1 năm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bằng bằng lái xe quốc tế của mình.

(Câu Hỏi 3) Vợ(chồng)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làm thế nào để có thể bảo lãnh bố mẹ và người thân sang hàn quốc?

(Đáp 3) Để có thể bảo lãnh bố mẹ hoặc người thân của mình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ì điều đầu tiên cần phải làm đó chính là cấp visa để có thể nhập cả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có thể trực tiếp đến phòng lãnh sự của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để đăng

kí xin được cấp visa. Nhưng đối với các kiểu bào nếu có nguyện vọng bảo lãnh người thân trong gia đình thì chỉ cần nộp hồ sơ bảo lãnh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là được. Khi Cục cấp mã visa thì chỉ cần đưa lại cho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mã số này và họ sẽ lên đại sứ quán để đăng kí đóng visa

◇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phải có VISA

Thông thường, khi người thân trong gia đình được bảo lãnh nhập cảnh thì sẽ có thể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ới thời gian ngắn hạn là dưới 90 ngày và visa được cấp là visa du lịch C-3. Để đăng kí Visa ngắn hạn(C-3), người được mời phải có được thư mời từ phía người mời đang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cùng với giấy bảo chứng(đã được công chứng tại hàn quốc), vv cùng với một số giấy tờ chứng minh cho mục đích bảo lãnh của mình. Người được bảo lãnh nên chuẩn bị các thủ tục này trước để nộp cùng với giấy đăng kí xin cấp visa thì sẽ rút ngắn thời gian chờ đợi hơn rất nhiều.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bảo lãnh người thân sang trông con nhỏ thì tỷ lệ ra visa sẽ rất cao và có thể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ới thời gian tương đối dài.

◇ Nhập cảnh sau khi nhập được visa

Theo luật, người được mời – nghĩa là ngườ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ẽ phải là người đi đăng kí xin cấp visa tại lãnh sự quán, nhưng đối với kiểu bào kết hôn với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mặc dù chưa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đi chăng nữa nhưng nếu có nguyện vọng bảo lãnh con của mình khi chưa đủ tuổi thành niên thì chỉ cần nộp hồ sơ bảo lãnh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là được. <한글 기사 33면> 강혜나 기자

多文化家族の生活法律情報、国籍取得と運転免許、親戚招請について

(質問1) 外国人が大韓民國国民と婚姻すると、すぐに大韓民國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

(答1) 外国人が大韓民國国民と婚姻し大韓民國に居住すると、大韓民國国民の配偶者としての地位をもつこととなりますが、すぐに大韓民國の国籍を取得できません。ただ大韓民國国民の配偶者と適法に婚姻申告、大韓民國で2年居住、または3年経過し1年居住した外国人は、簡易歸化を通じて大韓民國国籍を取得できます。

◇ 簡易歸化の要件

▲国民である配偶者と結婚した状態であること ▲大韓民國に継続居住すること ▲大韓民國の民法上成年(19歳)であること ▲品行方正であること ▲生計能力があること ▲大韓民國国民としての基本素養を備えていること

◇ 簡易歸化許可申請

大韓民國国民である配偶者と婚姻申告を行い、正常な結婚生活をおくっている外国人が、簡易歸化許可を申請するためには、歸化許可申請書に外国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などを添付、出入國・外国人廳長、出入國・外国人事務所長、出入國・外国人廳出張所長、または出入國・外国人事務所出張所長に提出します。

(質問2) 本國の運転免許證をすでに持っているのですが、大韓民國の運転免許證を取得するならば、最初か

ら試験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答2) 大韓民國で自動車を運転するためには、公認試験を経て運転免許證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本國ですでに取得した運転免許證があるならば、運転免許試験の一部が免除されます。また外国人が本國で國際運転免許證を發給されている場合、大韓民國に入國した日から1年間、大韓民國の運転免許證がなくても運転することができます。

◇ 運転免許試験の免除

運転免許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外国人のうち ▲大韓民國に住民登録している者 ▲外国人登録をしたか免除された者 ▲在外同胞として國內居所申告をした者が外國免許證を持つ場合は、運転免許試験の一部が免除されます。

◇ 國際運転免許證による運転

國際運転免許證を發給された者は、大韓民國の運転免許を取得していなくても、大韓民國に入國した日から1年間は、國際運転免許證で自動車などを運転することができます。

(質問3) 結婚移民者が外國に住む両親や親戚を招請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ですか?

(答3) 外國に住む結婚移民者の家族・親戚が大韓民國を訪問するためには、査證(VISA)が必要です。この場合、直接その國家の在外公館(韓國大使館)に申請し、査證の

發給を受けます。ただ外國国籍同胞は、大韓民國内の出入國管理事務所に招請しようとしている家族の査證發給認定書(番號)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査證發給認定書(番號)が發給されると、その番號を両親や親戚に知らせ、その國家の在外公館で査證發給を申請するときに提出します。

◇ 査證(VISA)發給による入國

普通觀光や親戚訪問目的で入國する場合には、3ヶ月間滞在できる短期訪問(C-3)資格の査證を發給されます。短期訪問(C-3)査證を申請する場合、大韓民國に住む外国人から招請状および身元保證書(大韓民國で公證を受けたものを指す)など、訪問目的を証明する書類を前もって準備し、査證發給申請を行うときに提出すると、より容易に査證の發給が可能で、子どもの面倒をみるためという理由で親戚を招請する場合は、より簡単に査證を發給され長期間滞在することができます。<한글 기사 33면>

◇ 査證發給認定書(番號)による入國

原則的に査證は、大韓民國に入國しようとする者が直接申請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大韓民國国民と結婚した外國国籍同胞は、大韓民國国籍を取得する前でも、養育権がある未成年の子どもを招請するために、滯留地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に招請する子どもの査證發給認定番號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코로나로 지친 김포 가족들의 힐링 시간 가져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행복한 우리가족! 힐링하는 부모!'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2월 16일 온라인 ZOOM을 활용하여 김포시 거주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우리가족! 힐링하는 부모!' 프로그램을 2회기 진행했다.

1회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모임이 어려워지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사분담 및 육아에 지쳐있는 부모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와인의 역사와 종류, 선물용 와인 고르는 방법 및 가족모임 식사

예절 등을 내용으로 비대면 부모교육 '와인 이야기와 가족매너교육'을 진행했다. 사전에 제공된 포도주를 대신한 포도주스와 와인잔 KIT를 활용하여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2회기는 가정안전관리교육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하임리히법 등을 가정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급처치교육이 진행됐다.

안중용 감사의 시범과 엄희원 단장(김포시재난안전CPR교육단)이 '가정안전관리교육'을 주제로 비대면 진행했다.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와인 매너를 통해서 오붓한 연말파티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했는데 응급상황시 간단한 처치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2021년에도 비대면 가족프로그램을 통하여 김포시민대상 교육·문화·상담 등의 one-stop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 전국 최초 모든 세대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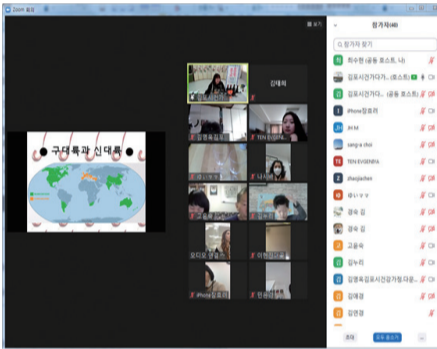
김포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김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전체 19만 3,234세대의 세대주이다. 세대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50매가 지원되며 총 지원물량은 966만 1,700여 장이다.

김포시는 읍면동별로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 배부계획을 세워 이달부터 각 세대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을 결정했다"면서 "투병 폐트병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GIMPO**

2021년도 한국어교육 겨울특강 온라인 수업

[2021.01.18 개강]

반 이름	채널이름	강의 일자	강사	교재
센터한국어1 (1월 18일 개강)	ZOOM	매주 월, 수 10:00~11:00	안월순	즐거운한국어, 첫걸음
센터한국어2 (1월 19일 개강)		매주 화, 목 10:00~11:00	정춘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주말반 (1월 23일 개강)		매주 토 10:00~12:00	이한형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

- 대상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 수강방법 : ZOOM 활용 (신청자에 한해 ZOOM 주소 전송 예정)
- 비용 : 수강료 무료(교재비 별도)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교재 구입을 추천합니다(개인구매)
- 지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공모사업
- 문의 : 031)996-5920 (사회복지사함재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564 (구래동, LH한가람마을 2단지 내)
▷ 전화: 031-996-5920 / 가족상담: 031-996-5921 / 아이돌봄: 031-996-5922
▷ 경기육아나눔터: 고촌도서관 5층 어린이자료실 내 (☎ 031-997-5921)
▷ 공동육아나눔터: 김포한강 4로 564 (☎ 031-997-5921)
▷ 다문화가족소통교류공간: 통진도서관 1층 다문화자료실 (☎ 070-4108-4965)

202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안내

1. 사업목적: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포시에 거주하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1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
2. 사업내용:

구분	부모교육	자녀생활	한국어교육
이용 대상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세부 내용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정보 제공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인지영역: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자아·정서·사회성 발달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문화인식, 경제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음, 문화
지원 기간	1회(40회)/생애주기별 (3회, 최대18개월)	1회(80회)	1회(80회)
방법	방문교육지도사가 주 2회 방문, 회당 2시간씩 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하고
 -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신청
 - 결정통보를 받고 대기(결정통보 처리기한: 14일 이내)
 - 소득기준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무료, 150%초과 월 8회기준 65,280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표 참고)
4. 연계방법: 신청 순서로 연계 예정
- ◎ 우선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인 가정
 - 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3) 중도입국자녀
5. 신청기간: 연중가능
문의전화: 031-996-5923
담당: 가족사업2팀 진윤주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도 김포시 위탁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19로 지친 다양한 가족 부모의 어려움 함께 극복해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을돌봄나눔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지친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 자녀 돌봄공백 ‘마을돌봄나눔터’로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일상을 걱정하는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와 부림 ‘마을돌봄나눔터’를 운영한

다. ‘마을돌봄나눔터’는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홀로 있는 초등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인 돌봄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 돌봄서비스 정책이다.

과천시가 운영하는 ‘마을돌봄나눔터’는 학기 중에는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7시까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며, 숙제와 생활지도, 학원 시간 챙기기, 간식 제공 등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으로 선정기준은 맞벌이 가정, 사회적 배려 가정 등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 등이다.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는 래미안슈르 아파트 거주 초등학교 대상이며 1월 19일까지 20명 모집한다. 이메일(gchfsc@daum.net)로 신청받아 공개 추천한다. 이용 기간은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다.

월 이용료 5만원을 분기별 납부해야 한다. 부림 ‘마을돌봄나눔터’는 과천 관내 초등학교 대상이며 1월 19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02-503-0070)로 확인해야 한다. 공개 추천하며 월 이용료 5만 원을 분기별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 등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및 가사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대상이며 ▲가족맞춤형 상담은 초등기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20가정 대상이다. ▲랜선

수다방은 초등기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20가정 대상이며 ▲집콕놀이는 A팀과 B팀으로 나눠 5~7세 유아 자녀 10가정, 8~13세 초등 자녀 10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각 가정에서 줌을 이용해 진행되며 상담은 개별 안내된다. 랜선도시락 수다방은 A팀 1월 22일과 29일 12시~ 13시30분, B팀 1월 27일과 2월 3일 12시~ 13시30분 각각 진행된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한 경험담과 아이디어 나눔이 이뤄진다.

놀이전문가와 집콕놀이는 A팀 2월 19일과 2월 26일 오전 10시~12시, B팀 2월 24일과 3월 3일 오전 10시~12시 각각 진행된다.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스트레스 해소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중복참여가 안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2-503-0070)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1년 1월 프로그램 계획

○ 센터 명 :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담당 자 : 이양수 (☎ 02-503-0070)

사업명	일시	접수 기간	대상	인원	내 용	비 고 (사업구분)
가족상담	연중	수시	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가족	-	· 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놀이치료	연중	수시	놀이치료가 원하는 유아동	-	· 유아동 심리정서지원, 사회적 발달 및 적응 관련 놀이치료	가족관계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1월~3월	1월	경기도 거주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20가구	· 놀이 전문가와 집콕놀이, 랜선 도시락 수다방, 랜선 풍파티, 가사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	가족관계
가족사레관리	연중	수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거주 가족 (다문화가족 포함)	-	· 개인 및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레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 지원 및 대처 능력 강화 · 심층상담 및 필요자원 연계 등	가족돌봄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 (래미안슈르/부림동)	월~금 방학 중 (9:00~17:00)	접수완료	인근 거주하는 초등학생	래미안슈르 15명, 부림동 15명 (*진급돌봄 운영)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숙제지도, 도서 및 학습 공간 이용, 급간식 지도, 요일별 프로그램 · 긴급 돌봄 운영 중	가족돌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연중	접수완료	다문화가정 및 지역 유관기관	45가족, 유관기관 5곳	·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보 습득	가족생활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제 · 종일제	연중 수시	과천시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통한 양육 지원 -시간제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종일제 이용시간: (기본)1회 3시간 이상	-
	학습 돌봄	연중 수시	과천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학년~6학년)	-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돌봄 활동가의 초등학생 전 과목 학습 지원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연중 수시	과천시 만3개월~만 12세 이하 질병아동 및 시설아동	-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

문의 02-503-0070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 신규 이용 접수 안내

본 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홀로 있는 초등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인 돌봄 운영의 일환으로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이용 아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이용대상 : 과천 관내 초등학생 대상
- 1) 이용대상 가정 : 맞벌이가정, 사회적 배려 가정
- 2) 신청 방식 : 접수 기간 내 이메일(gchfsc@daum.net)로 이용신청서 접수 후 공개 추천
- 3) 동 순위 내에서는 저학년 우선 선정

- 모집인원 : 25명
- 신청기간 : 2021. 1. 6.(수) 13:00 ~ 1. 19.(화) 18:00

이용자 선정방법 및 일정 :

- 1) 이메일 접수 후(이용 신청서 제출 후 접수확인전화(02-503-0070) 필수)
- 2) 공개추첨(1.28(목) 19:30, 대기자 발생시 대기자 추첨도 진행)
* 추첨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발생시 개별 통보
- 3)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일정 추후 안내)

○ 이용기간 : 2021. 3. ~ 2022. 2. (1년 단위로 신청)

- * 신청문의 :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 ☎ 02-502-3405 *13:00~19:00
-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503-0070 *9:00~18:00 (담당자 : 이동혁)
- *은 통화가능시간점심시간 12:00~13:00



이용신청서 양식링크

이용 안내

- 이용시간 : 학기중 13시 ~ 19시 / 방학중 09시~19시
- 이용장소 : 부림동 주민자치센터 1층
- 월 이용료 : 50,000원 (분기별 수납)
- 인력 및 프로그램내용 :

운영인력	담당 교사 2명 상주 근무
연 중	돌봄(일상생활 및 급-간식관리), 놀이, 독서 및 학습지도, 주중 프로그램(실내체육, 미술, 보드게임, 과학놀이, 코딩, 독서프로그램 등) 운영
상 시	특별 프로그램(가족활동, 지역환경미화, 체육대회, 외부체험 및 인성프로그램 등) 운영

본 마을돌봄나눔터 이용 시 등하원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원 : 과천시 Gwacheon-si
본 마을돌봄나눔터는 과천시에서 지원합니다.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서비스 운영기관

문화다양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어울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행복 어울림~ 다문화동행'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 교수)는 2020년 한 해 동안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행복 어울림~ 다문화동행'을 진행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외국인과 선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주민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위해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무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문화체험 강사(다문화 강사)로 활용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164회기, 164시간, 1회 1시간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기관별 2개국, 7회기 수업, 학교는 1학교 1학년 12회 무료지원 됐다.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1회 2시간 진행됐으며 베트남 전통 무용 공연도 실시됐다.



강의&체험식 교육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특징 소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출신국 문화(의식주, 전통, 놀이 등) 소개 ▲의상, 전통 놀이 체험활동 등이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 문화 간 차이 이해 및 수용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강사의 역량 강화 및 자아실현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 간담회 다문화정책 개선 활성화 방안 모색



안양시의회는 지난 1월 12일 부의장 직무실에서 다문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여성 자립방안, 다문화 관련 조례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일 부의장과 안양시 다문화 홍보대사 이례사 페레라, 안양시 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팀장이 참석해 다문화정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병일 부의장은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나온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12월 14일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대표를 맡아온 이례사 페레라를 안양시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영의 기자

หากรายได้ของคุณอยู่ในระดับต่ำและ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ของคุณลำบากให้ยื่นขอผลประโยชน์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พ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กาจงที่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รัฐบาลอย่างสิ้นหวังเยี่ยมชม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บริหารเพื่อขอคำปรึกษา

มาตรฐานสำหรับผู้ที่ทำหน้าที่ต้องสนับสนุนผลประโยชน์พื้นฐาน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พจะคลี่คลายลงอย่างมาก

ตั้งแต่ปี 2564 เป็นต้นไปรัฐบาลจะผ่อนปรนมาตรฐานสำหรับผู้ที่ทำหน้าที่สนับสนุน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สำหรับ "ผู้สูงอายุ"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พ่อหรื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และ "ครัวเรือนที่ทุพพลภาพรุนแรง"

เกณฑ์สำห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มีภาระผูกพันหมายถึงการพิจารณาระดับรายได้ทรัพย์สินของญาติทางสายโลหิตรวมทั้งพ่อแม่และลูกสำหรับสมาชิกในครัวเรือนทั้งหมดของผู้รับที่สมัครขอรับ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 หาก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ลำบากเนื่องจากรายได้น้อยเกินไปชาวเกาหลีรวมถึง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บาลสำหรับค่าครองชีพได้

ในเวลานี้รัฐบาลได้ตรวจสอบเกณฑ์สำหรับผู้สนับสนุนที่มีภาระผูกพันและปฏิเสธที่จะจ่ายค่าครองชีพหากมีคนที่มีทรัพย์สินหรือรายได้จำนวนมากในหมู่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เช่นพ่อแม่และลู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ผู้สมัคร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ในขณะนี้เมื่อมาตรฐานสำหรับผู้ต้อง

เลี้ยงดู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ผู้สูงอายุ"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และ "ครอบครัว ที่พิการ" ได้รับการผ่อนคลายน้อย แต่ไม่มีการแก้ไขใด ๆ ที่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ครองชีพเนื่องจากพ่อแม่หรือลูกมีความมั่งคั่งมาก

ตามเกณฑ์ที่ผ่อนคลายเป็นพิเศษอยู่ในความอุปการะที่มีภาระผูกพั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ครองชีพไม่ได้มีให้เฉพาะสำหรับผู้ที่มีรายได้สูง 100 ล้านวอนต่อปีและ 83.4 ล้านวอนต่อเดือนหรือด้วยทรัพย์สินที่ไม่รวมทรัพย์สินทางการเงิน 900 ล้านวอนขึ้นไป

ในกรณีอื่น ๆ หากคุณมีคุณสมบัติตามเกณฑ์เช่นรายได้และทรัพย์สินของผู้ขอค่าครองชีพคุณ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ผลประโยชน์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พได้

ในปี 2021 รายได้เฉลี่ย 30% ที่จะได้รับ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คือ 1.462,887 วอน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 4 คน และ 1,195,185 วอน 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 3 คน ครอบครัว 2 คนจะได้รับ 920,6424 วอน

หากค่าจ้าง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คุณไม่เป็นไป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นี้คุณสามารถเยี่ยมชมระเบียบ EuP Myeondong ศูนย์ปกครองสวัสดิการ และ นำไปใช้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

ในชีวิต หาก你不แน่ใจ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ปัจจุบันของคุณขอแนะนำให้คุณไปที่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ปรึกษากับเจ้าหน้าที่สวัสดิการ

ในขณะที่เดียวกันรัฐบาลจ่าย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ที่ 4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 45%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และ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ที่ 5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ดังนั้น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สวัสดิการอื่น ๆ ได้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ก็ตาม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ค้นหาผู้ชมเป้าหมายและ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ผ่าน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ที่กระตือรือร้นเช่นการแจกจ่ายสื่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ขายและการโพสต์บนเว็บไซต์ 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รัฐคนหนึ่งกล่าวว่า "ฉันคาดหวังให้ประชาชนจำนวนมากขึ้น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ระบบ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แห่งชาติสำหรับ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โปรดติดต่อระเบียบ EuP Myeondong ปกครองสวัสดิการศูนย์ที่คุณอยู่

<한글 기사 37번>

이아리 기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안양시,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안양시가 6일 금년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다.

안양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다문화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안양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 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380-0863)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anyang.go.kr/청년정책관실☎031-8045-5787)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2020년 7월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하였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0. 연하장

대화-거실에서



안진숙

조이 : 형부, 지금 뭐 하세요?
 준기 : 지금 연하장 쓰고 있어.
 조이 : 이걸 편지가 아닌 것 같네요. 지난번 결혼식 때 본 청첩장 같아요.
 메이 : 맞아. 청첩장이랑 비슷하지? 하지만 디자인은 조금 다르네.
 준기 : 연말연시라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야.
 조이 : 몇 장이나 보내실 거예요? 남으시면 저도 몇 장만 주세요.
 준기 : 늘 어려운 시기에도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몇 장은 남을 거야. 넉넉하게 준비했어.
 메이 :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니?
 조이 : 일단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교수님, 학교 조교, 그리고 기숙사 친구들이요. 직접 찾아 가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방학이라 만나기 어려워서요.
 준기 : 요즘에는 SNS로 보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분은 직접 손으로 써서 정성을 담은 연하장을 보내는 게 좋지.
 조이 : 저도 벌써 대학교 입학하고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준기 : 조이도 이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해서 다행이야.
 조이 : 맞아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메이 : 나도 네가 와서 좋아. 아기도 잘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어서 행복해.
 준기 :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있도록 내가 쓴 첫 연하장은 조이에게 줄게.
 메이 : 조이는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겠네.
 조이 : 그럼 오늘 제가 특별히 맛있는 요리를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해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연하장'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간단한 글과 그림을 담아 새해인사를 전하는 편지 또는 엽서'를 말합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면서 가까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표현 - 연하장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간단한 글과 그림을 담아 새해인사를 전하는 편지 또는 엽서

-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연하장을 보내줘서 정말 감동 받았어.
- 내일까지 거래처에 연하장이랑 달려 보내야 하니 모두 준비 해 두세요.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연하장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손글씨로 써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 보세요.

한국문화 - 엽서와 편지

엽서는 그림이나 사진 등이 인쇄되어진 우편물이며,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이 아닌 내용이 노출이 되는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에 직접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지 않고 간단하게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는 종이에 별도로 편지를 써서 봉투를 준비하여 거기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2021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1. 1. 11.(월) ~ 1. 29.(금)

지원대상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 포함) 청년

- 거주요건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 소득기준 | 2019년 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봄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

지원제외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가액이 2억 9천만원이상인 경우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 이차지원

※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대출영의자 본인 방문 접수 (평일 9:00~18:00)

-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점심시간(12:00~13:00)은 불가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배정표를 통해 지원 결정)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 으로 문의바랍니다.

"코로나 비켜라, 화성 외국인근로자들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체육 문화 활동 온라인 진행해 안전과 배움 '일석이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대면 프로그램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적극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지난 연말에 진행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문화유산퍼즐 키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12월 '2020년 문화유산퍼즐 키트로 배우는 한국의 문화유산 이벤트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퍼즐로 배우는 이 프로그램은 퍼즐로 문화유산 건물 등을 제작하며, 그 의미와 역사를 집에서 배울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는 아주 재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외국인근로자는 "퍼즐로 거북선, 첨성대 등을 만드니 너

무너무 재미있었다"며 "코로나19로 집콕해야 하는 시기에 재미있게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2021년에도 집콕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체육키트로 홈트레이닝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매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외국인주민들이 추운 겨울 신체를 단련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육키트로 홈트레이닝을 하는 비대면 체육활동을 진행했다.

체육키트는 밴드, 매트, 마사지볼, 발줄넛기 등 다양한 체육물품으로 구성됐다.

이 물품을 활용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메뉴얼도 함께 동봉해 집으로 발송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번 체육키트를 활용해 운동하는 사진을 센터로 보내줘 시선을 끌었다.

카드 보내고, 트리 받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12월 중순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성시 관내 외국인주민들이 센터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트리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센터에 많은 카드를 보냈다. 화성의 북은 그 중 30명을 추첨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역시나 트리를 만드는 모습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사진후기로 많이 보내주어 행사 관계자들을 즐겁게 했다.

어울림학교 종업식 진행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교육 프로그램 등은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종업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12월 18일 '202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시범사업 가리따스 어울림학교 종업식'을 진행했다.

이날 종업식에서는 한해 동안 열심히 배운 자기개발 수업 댄스와 기타연주를 뽐내는 시간과 우수청소년 시상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종업식을 진행했지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센터 관계자는 "2021년에도 진행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연간 48만원 친환경농산물, 24일까지 신청

화성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화성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산모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 중인 임신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성시 임신부(임신부, 출산부)들은 본인 자부담 9만6000원을 부담하면 연간 48

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1차 집중신청 기간에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인 2월 1일~12월 1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사업량(3600명 분)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 자녀 복지자원 서비스 한눈에

화성시, 다문화 관련 안내서 발간 각 기관 배포

화성시가 15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자원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흩어져있던 다문화 관련 각종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하나로 엮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시는 관내 외국인 주민의 자녀(0세에서 29세까지)가 2만 4,629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자 이번 안내서를 기획했다. 안내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한국어 기초교육 ▲통역서비스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취업교육 ▲관내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대상 프로그램 등이 수록됐다. 화성시

는 총 3천부를 제작해 2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2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연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지은 기자

Подготовка к свадьбе в Корее. 한국에서의 결혼식 준비

러시아에서 온 사촌동생의 결혼식 ... 코로나로 인해 험난했으나 모든 이의 축복 받아



Не 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жизнь продолжается, хоть и реже, но события происходят. Так не давно я была приглашена на свадьбу к двоюродной сестренке.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се проходил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 условиями и социн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целом торжество прошло замечательно. Мне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как проходила подготовка к свадьбе и я попросила рассказать. И вот такой получился рассказ.

Так уж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свадьбу в Корее мы с теперь уже мужем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сами, без участия родителей. Список дел был бесконечным, примерно полгода у нас не было выходных, так как именно на выходных мы искали банкетный зал, примеряли платья, делали фотосессию, искали дом и т.д. Но обо всем по порядку. Я опису подробности в виде встречи родителей (상견례), предложения руки и сердца (프로포즈) и назначения даты опиш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оцесс подготовки к торжеству. Для начала нужн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 студе - студио (студия, гд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фотосессия), дресс (свадебное платье), макияж (макияж). Можно заняться поиско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네이버 (Naver) или в Инстаграм по хештегам. Я случайно набрела на сайт myselfwedding.com, где уже есть портфолио стилистов и фотографов, каталоги свадебных салонов и можно посчитать, сколько будет стоить тот или иной пак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 определитесь с фаворитами, с вами свяжется менеджер с сайта, поможет сделать бронь в удобное для вас время,

будет высылать вам информацию и списки того,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для того или иного процесса. Здесь же можно подобрать и зал, но мы решили заняться поиском зал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 тематикой торжества, или если попроще - какую свадьбу вы хотите. Если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пригласить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то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залы, вмещающие от 500 и более персон; если наоборот, планируете скромную свадьбу,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рестораны,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еся на смолвединг. Я всегда хотела свадьбу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но чтобы подстраховаться на случай непогоды, мы остановились на 하우스웨딩, свадьбу в ресторане, интерьер которого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 к природе. Примерять платья вам придется дважды: один раз перед фотосессией и один раз перед свадьбой. Фотосессия занимает как правило весь день (включая прическу и макияж), очень утомительная процедура, но результат того стоит. Затем ближе к свадьбе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приглашения (мы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сайтом HYPERLINK www.barunsoncard.com), подобрать ханбог родителям, замужним женщинам в семье (сестры, золовки) и себе (если проводите процедуру 폐백), выбрать подарки друг другу (예물) и родителям, выбрать букет, ведущего на свадьбу,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кожу лица, спланировать медовый месяц и провести процедуру дегустации в банкетном зале, оформить документы на дом и обставить его, зарезервировать место для вечеринки после свадьбы (피로연). После медового месяца, который следует сразу за торжеством, необходимо посетить дома родителей и сделать им прощальный поклон.

Весь этот процесс мог бы оказаться даже интересным, если бы не одно «но». Сраз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пожениться, нагрянула пандемия. Изначально мы свадьбу на июнь, но из-за пандемии перенесли.

Аккурат за 2 недели перед торжеством ввели 2,5 ступень карантина, в зале запретили собираться группами больше 50 человек, еду отменили, мои друзья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из зарубежья не смогли прилететь. В масках должны были находиться все кроме жениха, невесты и родителей. Нам пришлось срочным образом оповещать всех гостей об изменениях, многие с нами побоялись приехать, выбрали поздравить нас заочно.

Конечно, как бы тщательно вы не готовились к торжеству, не всегда все проходит идеально, но самое важное, что вы с будущим мужем должны пронести через все эти процессы: взаимное уважение и терпение. Поверьте, оно вам пригодится. Будьте счастливы!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도 가족 행사가 예전보다 줄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촌동생의 결혼식에 초대 받았다. 모든 행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건에 따라 진행됐음에도 전제적으로 결혼식은 훌륭했다.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서 동생에게 물었다. 이미 결혼식을 치른 다문화가족들도 준비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할 것이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부모님의 참여 없이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다. 약 반년 동안 예비부부는 휴일이 없을 정도로 결혼 준비에 매진했다. 왜냐하면 주말에만 결혼식장을 찾고 드레스를 입어보고 결혼사진 앨범 촬영을 하고 같이 살 집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상견례, 프리프로즈, 결혼 날짜 잡기 등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축하 행사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업체를 결정해야 한다. 네이버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태그를 사용하여 직접 검색했다. 그는 우연히 스타일리스트와 사진 작가의 포트폴리오, 웨딩 살롱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했고, 거기서 바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드메-스튜디오'가 결정되면 스튜디오 관리자가 전화해 편리한 시간에 예약하도록 돕고 해당 과정에 대해 준비해야 할 정보 및 목록을 안내한다. 이 사

이트에서 웨딩홀도 알아볼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스스로 찾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결혼식의 주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하는 결혼식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수의 손님을 초대한다면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홀도 있고 반대로 스몰웨딩을 계획하고 있다면 스몰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레스토랑도 있다.

사촌동생은 항상 야외 결혼식을 꿈꾸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분위기의 하우스웨딩에서 결혼식을하기로 결정했다.

웨딩드레스는 두 번, 앨범촬영 전과 결혼식 전에 입게 된다. 사진촬영은 보통 하루 종일 (머리와 화장을 포함하여) 걸리는 매우 지루한 절차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다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 초대장을 보내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자신을 위한 한복과 예물, 부모님께 드릴 선물 및 결혼식 꽃다발을 고르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신혼여행을 계획한다. 그리고 같이 살 집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 후 파티 장소(피로연)를 예약한다.

신혼여행 후에는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여 작별의 절을 해야 한다. 이 전체 과정은 재미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다. 처음에 그들의 결혼식은 6월에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염병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리고 결혼식 2주전 갑자기 거리두기 2.5단계가 도입되는 바람에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됐다.

음식이 취소되었으며, 해외에서 오기 못한 친구와 친척들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신랑, 신부, 부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우리는 모든 손님에게 변경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알려야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축하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축하 행사를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 신부와 신랑이 상호 존중과 인내라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촌동생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이 꼭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장울가 기자

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与您一同守护 全租押金!

全租合同核对要点

签订全租合同前后、缴纳尾款前及完成迁入申报后请随时确认登记簿副本!
尤其是在缴纳尾款之前! 必须确认登记簿副本, 核实是否存在预先抵押、临时扣押、财产保全等相关事项。

须知

交房 | 拿到房子钥匙后搬家
迁入申报 | 已迁入新居, 向管辖机关申报, 变更住址并登记
确定日期 | 新住址所在地管辖机关确认签订住房租赁合同的日期
※ 满足以上三个条件后, 从日00时起产生对抗力和优先偿还权。
对抗力 | 租用人向第三方, 即租赁房屋的受让人, 租赁权继承人及其他与租赁房屋有利害关系的人主张租赁内容的法律力量。
优先偿还权 | 指拍卖担保物时, 普通债权人及次级担保人可以优先使用销售款获得赔偿的权利。

什么是全租押金退还保证?

全租合同解除或终止后, 出租人无法退还全租押金时或租赁标的物被公开拍卖, 分配后不足以偿还全租押金时, 由住宅城市保证公社代替出租人向租用人退还全租押金的制度。

为什么需要?

- 即使出租人无法退还, 仅通过保证履行请求即可收回押金。(必须确认条款上的请求条件)
- 租赁到期时, 完成住房租赁权登记后可迁居。
- 租户可以单独申请开具保证书(无需房主同意)。

如何加入全租押金退还保证?

- 请访问附近的住宅城市保证公社的营业网点。
- 银行也可以出具。(截至2020年11月, 光州、庆南、韩亚、国民、企业、农协、水协、新韩、友利银行均可办理此项业务)
- 可通过手机或网络简便地申请保证。(https://khig.khug.or.kr)
- ※ 保证加入条件请参考公社官网或咨询管辖营业网点。

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与您一同守护 全租押金!

全租押金退还保证的注意事项?

- 合同变更或延长(包括默认更新)、出租人变更时请务必联系公社!
- 必须住在实际签约的房子里。
- 不承担保证书上的押金以外的利息和赔偿金等。
- 合同期满后必须搬家, 但若未收到押金, 则必须先向保证公社告知相关事实(通知保证事故)。
- 然后完成租赁权登记命令, 向住宅城市保证公社请求履行。

如何请求履行全租押金退还保证?

- 全租合同解除或终止后1个月内未能收回押金时, 必须在完成住房租赁权登记后请求履行。
- 全租合同期内全租标的物被公开拍卖时, 如果要求分配后担保债权人未能收回全租押金, 应提交分配表等可证明全租押金中未收回金额的材料进行申请。
- 必须在保证事故发生后2个月内向公社申请履行保证债务。

下列情况无法履行保证!

- 全租合同期内丧失对抗力和优先偿付权(包括因全租合同延长等而更新保证的情况)时
- 全租押金被第3方扣押、临时扣押、全部追讨命令、债权转让、向金融机构提供担保(全部或部分全租押金)等导致公社蒙受损失时等
- 违反通知义务, 对公社造成损失或其他在保证条款上属于免责事由的情况

除了全租押金退还保证之外, 还有可以保护全租押金的制度吗?

全租权设定

在登记簿副本上记载租借人的姓名、全租押金、期限、全租权设定受理日期等, 比其他顺序的债权人拥有优先权, 从而可以保护全租押金。但须经出租人同意才可申请, 可能会产生设定费用, 拍卖时, 如果房价少于全租押金, 则可能无法得到全部押金。

优先偿付权

租赁押金低于一定金额时, 可以比其他债权人最先收回的制度。不同地区和押金范围的最优先偿还金额不同, 请务必确认清楚!

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Cùng HUG giữ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Điểm kiểm tra hợp đồng Jeonse

Hãy thường xuyên kiểm tra bản sao đăng ký ngay trước và sau khi ký kết hợp đồng thuê nhà Jeonse, trước khi thanh toán số dư, sau khi khai báo đăng ký cư trú!
Đặc biệt, trước khi thanh toán số tiền còn lại! phải kiểm tra bản sao đăng ký để xác định xem có các nội dung như thế chấp, xử lý tạm thời các tài sản bị tịch thu hay không.

Thuật ngữ phải biết.

Chuyển giao: Nhận chìa khóa nhà và chuyển đến
Khai báo đăng ký cư trú: Khai báo đến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ể thay đổi và đăng ký địa chỉ khi chuyển đến nhà mới.
Ngày xác nhận: Kiểm tra ngày ký kết hợp đồng thuê nhà tại cơ quan thẩm quyền của nơi cư trú mới
※ Nếu đáp ứng ba điều kiện này, ngay từ 00 giờ ngày hôm sẽ có quyền phân đối và quyền ưu tiên thanh toán.
Quyền phân đối: Là quyền hợp pháp mà bên cho thuê nhà đưa ra các yêu cầu đối với người thuê là bên thứ 3, người được kế thừa quyền thuê nhà và người có quan hệ lợi ích liên quan đến nhà cho thuê khác.
Quyền ưu tiên thanh toán: Là quyền lợi ưu tiên thanh toán cho người cho vay nói chung và người cho vay thứ cấp từ số tiền sang nhượng khi đấu giá tài sản thế chấp.

Thế nào là bảo lãnh hoàn trả tiền đặt cọc Jeonse?

Bảo lãnh hoàn trả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là chính sách Tổng công ty bảo lãnh nhà ở đô thị thay mặt để hoàn trả lại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cho người thuê trong trường hợp sau khi đã kết thúc hoặc hủy hợp đồng cho thuê nhà nhưng người cho thuê không thể trả lại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hoặc trong trường hợp thiếu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sau khi thực hiện bán đấu giá/ tổ chức đấu giá nhà cho thuê Jeonse.

Tại sao lại cần?

- Có thể được hoàn trả tiền đặt cọc bằng cách yêu cầu thực hiện bảo lãnh ngay cả khi chủ nhà không thể hoàn trả.
(Chắc chắn phải kiểm tra điều kiện yêu cầu bảo lãnh)
- Khi hết hạn thời gian thuê nhà Jeonse, có thể chuyển nơi ở sau khi đăng ký quyền cho thuê.
- Người thuê nhà có thể tiến hành đăng ký xin cấp đơn bảo lãnh riêng (Không cần sự đồng ý của chủ nhà).

Làm thế nào để đăng ký Bảo lãnh hoàn trả tiền gửi Jeonse?

- Vui lòng đến điểm kinh doanh gần nhất của Tổng công ty bảo lãnh nhà ở thành phố.
- Có khả năng cấp ngay ở ngân hàng. (Tính đến tháng 11 năm 2020 có thực hiện ở ngân hàng Woori, ngân hàng Shinhan, ngân hàng Nonghyup, ngân hàng Kookmin, ngân hàng Hana, ngân hàng Gyeongnam, ngân hàng Gwangju)
- Cũng có thể dễ dàng đăng ký bảo lãnh trên điện thoại hoặc internet.(https://khig.khug.or.kr)
- ※ Vui lòng tham khảo trên trang chủ của Tổng công ty hoặc liên hệ với điểm kinh doanh có thẩm quyền về yêu cầu tham gia bảo lãnh.

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Cùng HUG giữ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Những điểm cần chú ý của bảo lãnh hoàn trả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 Phải liên hệ với Tổng công ty trong trường hợp thay đổi hợp đồng hoặc gia hạn (bao gồm làm mới) hợp đồng hoặc trường hợp thay đổi chủ nhà!
- Thực tế phải sống ở ngôi nhà đã ký hợp đồng.
- Ngoài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trên giấy bảo lãnh, chúng tôi không thực hiện bảo lãnh tiền lãi và tiền bồi thường.
- Nếu hết hạn hợp đồng và phải chuyển đi nhưng vẫn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trước hết phải thông báo vấn đề đó với công ty bảo lãnh (thông báo vấn đề bảo lãnh)
- Sau đó, phải hoàn thành yêu cầu đăng ký thuê nhà và phải yêu cầu Tổng công ty bảo lãnh nhà ở đô thị thực hiện bảo lãnh.

Làm thế nào để yêu cầu thực hiện bảo lãnh hoàn trả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 Trong vòng 1 tháng sau khi hủy bỏ hoặ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nhà Jeonse, nếu bạn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bạn hãy yêu cầu thực hiện bảo lãnh sau khi hoàn thành đăng ký thuê nhà ở.
- Trong thời hạn hợp đồng Jeonse,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bán khống hoặc bán đấu giá đối với là mục đích cho thuê Jeonse, sau khi yêu cầu trả lại tức, bên bảo lãnh cho vay không nhận lại được khoản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thì phải yêu cầu gửi tài liệu chứng minh số tiền không nhận được trong số tiền bảo lãnh thuê nhà Jeonse như phiếu chia có tức.
- Trong thời hạn 2 tháng kể từ ngày xảy ra vấn đề bảo lãnh, phải yêu cầu Tổng công ty thực hiện nghĩa vụ bảo lãnh.

Những trường hợp dưới đây không có khả năng thực hiện bảo lãnh!

- Khi mất quyền được ưu tiên thanh toán và quyền phân đối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Jeonse (Bao gồm trường hợp tái cấp bảo lãnh như gia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Jeonse).
- Khi đã xảy ra thiệt hại công trình do tịch thu, tạm tịch thu, lệnh thu hồi toàn bộ, chuyển nhượng trái phiếu, cung cấp tài sản thế chấp cho các tổ chức tài chính (Toàn bộ hoặc một phần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 Trường hợp gây ra thiệt hại cho công trình hoặc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uộc lý do miễn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heo các điều khoản và điều kiện bảo lãnh do vi phạm nghĩa vụ thông báo.

Ngoài bảo lãnh hoàn trả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Jeonse, còn có chế độ nào có thể giữ được tiền đặt cọc Jeonse?

Thiết lập quyền Jeonse

Ghi tên người thuê, số tiền đặt cọc Jeonse, thời hạn, ngày tiếp nhận thiết lập quyền Jeonse vào bản sao đăng ký để có thể được ưu tiên bảo vệ tiền thuê nhà Jeonse hơn so với chủ nợ khác. Tuy nhiên, chỉ có thể đăng ký khi có sự đồng ý của chủ nhà, và khi tiến hành đấu giá có thể xảy ra chi phí thiết lập, nếu giá trị của ngôi nhà thấp hơn so với giá trị thuê Jeonse thì bạn có thể không nhận lại được toàn bộ tiền đặt cọc.

Quyền ưu tiên thanh toán đầu tiên

Là chế độ người thuê nhà có thể nhận lại tiền đặt cọc Jeonse sớm hơn so với các chủ nợ khác khi tiền đặt cọc nhỏ hơn một số tiền nhất định. Số tiền hoàn trả sớm nhất khác nhau theo từ khu vực và phạm vi tiền đặt cọc nên nhất định phải kiểm tra!

Кулинарные курсы для корёинов в г.Хвасон 한국요리프로그램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 150년간 분리된 한국인과 고려인 요리의 간극을 메우다

Кухн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 корёин - имеет общие корни 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й, поэтому в целом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орёинам не чужды. Корёины тоже с детства едят паби/밥, солят на зиму чимчи(김치/김치) и не представляют жизни без твандян(된장) и овощных ча(панчан/반찬). Однако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корёинов, проживших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и адаптированы под местную среду и продукты и, конечно же, претерпели изменения. Разве может современный южнокореец представить, как это вкусно: паб/밥 заливать водой, в кимчи/김치 класть душистый кориандр и черный перец горошком, твандян/된장 намазывать на хлеб и попробовать мучим/무침 из моркови(между прочим,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благодаря корёина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алат)?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орёины тоже не знают, как и с чего готовятся мног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в Корее блюда.

13 и 20 декабря (вос) в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зия центр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улинарные уроки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которые мало знакомы корёина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нятны и близки им по вкусу: кимчи из зеленого лука с отварным мясом (в кашеварке) па김치&수육(밥술) и тушеная свинина с маринованным овощами 돼지갈비찜&채소장아찌. Прожив в Корее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мн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аверняка пробовали все эти блюда, некоторые даже пробовали их готовить,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лучше один раз увидеть.

В связи с усиленными мер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урсы проводились небольшими группами до

10 человек. Также участие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приготовлении блюд было ограничено, основную часть готовил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 тому же, на месте попробовать на вкус приготовленное блюдо тоже было нельзя, все участники забрали контейнеры с готовыми блюдами домо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и меры, не совсем удобны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улинарных курсов,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тем не менее ожида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и подробное введение в основ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люд, о которых русскоязыч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даже не догадывались. Например, корёинам незнакома настойка на тациме 육수, которая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ах, в качестве бульона в супы/찌개 и тимы/찜, а также добавляется в приправы для кимчи и маринадов. Тщательное промывание мяс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лука, специй и приправ для уменьшения запаха тоже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открытием для участвующ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ообще от количества бутылок с различными соусами(맛술, 매립, 울리고당 и т.д.) участники схватились за телефоны, потому что запомнить их был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ассказал основные секре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заправки (яннем/양념)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мчи, и слушатели курса могли сопоставить различия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составе и вкусе между кимчи и чимч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рок проводил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 слушатели курса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учащиеся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в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зия центре, помощь переводчик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понадобилась.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всем принявшим участ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уроки кулинарии понравились, и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блюда также пришлись по вкусу.

Корейцев и корёинов объединяет общее прошлое, общая культура и история, но за 15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в жизни тех и других произошли масштабные перемены. Поэтому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русскоязыч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 иностранцы на 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не только по документам, но и по внутреннему содержанию. И самая стоятельная адаптация корёинов в Корею может проходить не так легко, как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со стороны. Поэтому, на мой взгляд, поддержк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ерез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программ: кулина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и др - необходима и очень важна.

От имени корёинов г.Хвасон хотелось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зия центр за оказание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ддержки. Хочется выразить надежду, что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такж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кулинарные курсы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больше ее число корёинов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их.

Будьте в курсе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бытий в жизни корёинов вместе с репор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енгидо, Еленой Ким.

구소련 국가에서 온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인 고려인의 음식은 한식과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식은 고려인에게 이질적이지 않다. 고려인들도 어릴 때부터 “빠비”/밥, 겨울에는 소금에 절인 “침치” (김치)를 먹었고, “짜야”(된장)와 “야채차”(반찬) 없이 국을 끓이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반세기 이상 살

았던 고려인의 전통 요리는 지역 환경과 식품에 적응해 왔으며 당연히 변화를 겪었다.

현대 한국인은 밥에 물을 붓고, 김치에 향기로운 고수와 검은 후추(통호추)를 넣고, 된장을 빵에 바르고, 당근으로 만든 무침(고려인 덕분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샐러드)을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까? 고려인 또한 많은 전통 한식 요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지 못한다.

지난 12월 13일과 20일, 화성시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에서 고려인에게는 낯설면서도 입맛에 가깝고 맛도 비슷한 전통 한식인 파김치&수육(밥술), 돼지갈비찜&채소장아찌 등의 요리 체험이 진행됐다.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일정 기간 살면서 여러 한국 음식의 맛을 봤고 일부는 만들기도 시도했지만 무엇보다 직접 보는 것이 낫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교육은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직접 요리를 하는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어 주요 부분은 강사가 만들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맛보는 것도 불가능했고, 참가자가 완성된 음식을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야 했다.

이런 상황은 요리교육을 진행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모든 참가자는 러시아어권 동포들이 알지도 못했던 한국 요리의 기초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려인이 모르는 다시마 육수는 거의 모든 한국 요리에 사용되어 찌개와 찜의 국물로 사용하며 김치와 양념장에 넣기도 한다. 철저한 고기 씻기, 양파, 향신료 및 양념을 사용하여 냄새를 줄이는 것도 참여한 동포들에게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소스(맛술, 매립, 울리고당 등)가 담긴 병의 수가 많아서 참가자들은 단순히 기억하기가 불가능해서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야 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 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첫 행사로 박명래 총장 함께 한 ‘시무식’ 진행

올해 통합된 화성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첫 업무를 시작했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순철)는 지난 1월 5일 오전 운영법인인 협성대학교 박명래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센터의 팀장 이상 직원만 2m 이상 거리두기를 한 채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신순철 센터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해 첫 출발하는 해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박명래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의 일부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 협성대학교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홍보영상을 시청했으며 신순철 센터장과 박명래 총장에게 직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이 전달됐다.

박 총장은 시무식 후 사무실에 들러 직원들과 눈인사

를 나누기도 했다.

박명래 총장은 시설 라운딩 도중 경기다문화뉴스에 “처음 통합센터 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화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기꺼이 참여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서철모 화성시장의 지원에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무공간이 분리된 채 새해를 맞은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사무공간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센터장으로 부임한 신순철 센터장은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인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역임했다.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넘치는 기관장으로 합리적이고 세밀한 준비로 위기의 순간에도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세간의 평이다. 송하성 기자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có thu nhập thấp gặp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 생계급여 신청해요

Những tiêu chuẩn về người có nghề vụ phụng(nuôi) dưỡng đang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đã được giảm thiểu đi rất nhiều

Chính phủ đã có quyết định bắt đầu từ năm 2021 những tiêu chuẩn dành cho người có nghĩa vụ phụng(nuôi) dưỡng mà đang nhận sự hỗ trợ trong sinh hoạt tối thiểu của những 'gia đình người khuyết tật có độ khuyết tật cao' cũng như những 'gia đình có một vợ hay một chồng' hoặc những người cao tuổi

Những tiêu chuẩn dành cho người có nghĩa vụ phụng(nuôi) dưỡng bao gồm những tiêu chuẩn liên quan đến tổng tài sản của những người có liên quan huyết thống trực tiếp với nhau, như cha mẹ, con cái, vv đã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của chính phủ. Không chỉ có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mà ngay cả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gặp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cơ bản nhất cũng có thể đăng kí để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từ Chính phủ.

Trong số những người có nghĩa vụ phụng(nuôi) dưỡng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sẽ điều tra về tổng số tài sản đang có, nếu tổng

số tài sản trên mức quy định thì người đăng kí sẽ khô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ừ chính phủ.

Tuy nhiên do chính sách thay đổi từ năm nay về những tiêu chuẩn đăng kí hỗ trợ đối với những "gia đình có người cao tuổi", "gia đình chỉ có một vợ hoặc một chồng", hay những "gia đình người khuyết tật", theo dự tính của Chính phủ, với việc thay đổi chính sách lần này thì hầu như việc bố mẹ hoặc con cái có nhiều tài sản mà bản thân mình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từ chính phủ hầu như không còn tồn tại nữa.

Theo như những thay đổi về chính sách này, chỉ có những công dân có nghĩa vụ phụng(nuôi) dưỡng có tổng số thu nhập từ trên 100 triệu won/năm, 8,340,000won/tháng hoặc những công dân có tổng số tài sản tín dụng từ trên 900 triệu won mới không được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này của Chính phủ. Do đó, chỉ cần đủ tiêu chuẩn mà chính phủ đưa ra thì đối tượng sẽ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cơ bản này.

Tính theo tiêu chuẩn năm 2021,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ừ 30%, số tiền hỗ trợ được nhận hàng tháng đối với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là 1,462,887won, gia đình

có 3 thành viên là 1,195,185won và 926,424won đối với gia đình có 2 thành viên.

Người đăng kí có thể liên lạc đến Trung tâm phúc lợi hạnh phúc để được tư vấn và đăng kí nhận sự hỗ trợ này./ Nếu bản thân mình vẫn chưa nắm rõ được những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chính sách này của chính phủ thì có thể nhận tư vấn chi tiết tại Trung tâm phúc lợi hạnh phúc.

Ngoài ra, chính phủ không chỉ hỗ trợ về mảng sinh hoạt cơ bản mà còn hỗ trợ về mảng y tế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dưới 40%, hỗ trợ chi phí nhà ở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dưới 40%, hỗ trợ chi phí giáo dục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dưới 50%, do đó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hãy kiểm tra lại tình hình kinh tế của gia đình mình và đăng kí gói hỗ trợ phù hợp.

Chính phủ sẽ thông báo và quảng bá rộng rãi về nội dung của chính sách hỗ trợ này thông qua việc phát truyền tờ rơi, hay thông báo nội dung trên các trang mạng để có thể hỗ trợ được nhiều đối tượng nhất có thể.

〈중략.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해 앱을 설치하세요〉

〈한글 기사 37면〉

강혜나 기자